



남가주 지역에서 목회하는 성결교 목회자와 그 가족 300여 명이 한자리에 모여 2014년을 십자가와 복음으로 달려갈 것을 다짐했다.

성결교 교역자들 “십자가와 복음으로” 2014년 신년하례회

남가주성결교교역자회(회장 신현철 목사)가 1월 12일 오후 5시 유니온교회(문병용 목사)에서 신년하례회를 열고 2014년 힘찬 출발을 다짐했다.

신현철 목사의 사회로 열린 이날 행사는 300여 명의 성결교 목회자 가정이 참석한 가운데 1부 예배와 2부 지방회 기관별 하례식, 만찬 순서로 열렸다.

예배는 이종길 목사(주님의총신교회)의 기도, 장석천 목사(LA지방회 서기)의 성경봉독, 살린 이 사모의 특별찬양, 류종길 목사(미주성결대 총장)의 설교 순으로 드러졌다.

고전1장18-31절을 본문으로 “십자가와 복음”이란 제목으로 설교를 한 류목사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복음을 선포할 때, 십자가 외에 아무 것도 선포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류목사는 “십자가의 도는 약해 보이나 세상의 어떤 힘보다 강하다. 십자가와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라며 “2014년에 십자가와 복음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한 해가 되라”고 권면했다.

교역자회 총무인 우현석 목사의 인도로 각 교회의 부흥과 교역자들의 풍성한 사역을 위해, 미주성결교단의 화합과 부흥, 세계선교를 위해, 한국과 미국의 영적 각성과 부흥, 경제회복을 위해 기도했다.

신년축하메세지를 전한 차광일 목사(미주성결교총회장)는 “이 한 해 하나님께서 펼칠 일이 기대돼 가슴이 뛰다”며 “지난해 아쉬움도 많지만, 하나님께서는 부족한 과거를 미래를 위한 영적 거름으로 사용하실 줄 믿는다”고 말했다.

이어 박용덕 목사(오렌지카운티교회협의회 이사장)는 “성결이란 단어는 너무나 복되고 귀한 단어”라며 “성결 안에 흐르는 복음을 붙들고, 승리하는 한 해가 되자”고 말했다.

한편, 2부 순서로 각 지방회·기관별 하례식과 함께 유니온교회가 정성껏 준비한 만찬과 교제를 나눴다.

이인규 기자

미국의 근간 종교자유 두고 연방대법원 역사적 소송

미주한인의 날 감사예배 드려

오바마케어 낙태조항 중심으로 종교자유 적용 범위 논쟁

연방대법원이 미국의 종교자유에 역사적 이정표를 쓰게 될 판결을 앞두고 양측의 구두변론을 청취한다.

미국의 가장 대표적인 기독교 기업인 하비로비 사가 오바마케어의 낙태 및 피임 강제 조항에 반대해 연방정부 보건복지부와 벌인 소송이 연방대법원까지 올라가며 3월 25일 역사적인 구두변론이 시작되는 것이다.

변론 일정이 잡혔다는 것은 연방대법원이 이 사건을 공식적으로 채택했음을 의미하며 구두변론은 양측이 법적 논리를 겨루는 가장 중요한 과정이다. 양측은 연방대법원 판사들의 거침 없는 질문 공세에 답해야 하며 언론들도 이 과정을 매우 상세히 보도하기에 여론의 흐름을 주도할 수 있는 기회가 되고 있다.

오바마케어 그 자체는 연방대법원에서 2012년 6월 합헌 판결을 받았지만 오바마케어에 강제하고 있는 낙태 및 피임 비용 문제로 인해 전국적인 소송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특히 기독교 단체, 기업, 학교들은 신앙적 양심에 근거해 이를 수용할 수 없다고 거부했다.

이 소송에 가장 앞장섰던 하비로비사는 이 조항을 거부해 매일 130만 달러씩 벌금을 부과받으면서 소송에 나서 화제가 되기도 했다. 이 외에도 보건복지부는 웨스트민스터신학교, 휴스턴침례대학교, 미주리 주의 배관생산업체인 수 치프(Sioux Chief), 펜실베이니아 주의 코네스토가 가구점, 도미노피자 등 60여 곳과 소송을 치러야 했다.

전국적인 규모로 소송이 이뤄졌지만 그 판결은 지역별로 사뭇 달랐다. 제3항소법원은 코네스토가와의 소송에서 “세속적인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은 종교적 가르침에 관여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제6항소법원은 의료기구 업체인 오토캠(Autocam)과의 소송에서 “낙태 조항은 사주의 종교적 신념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했다. 제4항소법원은 리버티대학교와의 소송에서 리버티대학교의 종교자유를 인정했다가 급히 철회하기도 했다.

반대로 제10순회 항소법원은 하비로비에 부과된 수천만 달러의 벌금을 면제하고 또 계속해서 소송하도록 허가했다.

이렇게 소송의 결과가 다른 이유는, 종교자유에 대한 기준 때문이다. 수정헌법 1조에 명시된 종교자유가 개인이나 비영리 단체에만 국한되는 것인지, 아니면 영리 목적의 기업에도 적용되는지에 대한 것이다. 만약 기업도 사주의 종교적 신념에 따라 종교자유를 누릴 수 있다면, 오바마케어의 낙태 조항을 거부할 수 있겠지만, 종교자유가 없다면 낙태 조항을 무조건 수용해야 한다.

따라서, 이번 소송은 낙태 조항을 주제로 하고 있지만 사실은 미국의 근간이 되어 온 종교자유에 대한 적용 범위를 다루는 매우 중요한 소송이 되는 것이다.

한편, 1993년 제정된 종교자유회복법에 따르면, “정부는 국가적 유익을 위한 최소한의 수단이 아니라면 개인의 종교적 자유에 실질적인 부담을 부과해서는 안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 법을 둘러싸고 진행될 이번 소송은 “오바마케어가 영리 목적의 기업을 운영하는 사주의 종교적 신념을 침해하는지 여부”를 집중 다루게 된다.

김준형 기자

나라정비 ASE 유압차 전문점 SMOG CHECK 323.734.4881 월~금: 8am~6pm 토: 8am~5pm 1201 S.Western Ave, LA 웨스턴과 12가

나라 오토 텐트 범퍼·도어·바디복원 무료견적·Rent Car

크리스천을 위한 오바마케어 벌금면제 혜택 (H.R.3590 Religious Exemption) 월\$40~\$175 가입문의 213-700-9212 www.christianmutual.org

자라 가르치겠습니다!

NCA 사립 초중고등학교 OPEN HOUSE January 23(Thur.), 7PM

귀하게 자란 아이들, 이젠 저희가 귀하게 가르치겠습니다. 성공한 리더들은 어릴 적 교육부터 남달랐습니다. 크리스천 사립학교로서, 기독교 정신을 바탕으로 실력과 인성을 겸비한 인재를 길러내는 것이 New Covenant 사립학교의 목적입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커리큘럼과 공부요령을 잡아주고 중고등학교 때 체계적으로 발전시키면 무리한 과외공부없이 원하는 대학에 갈 수 있으며, 학생 스스로가 자신의 미래를 개척해 나갈 능력을 키울 수 있습니다. 정규 교과 과정은 물론, SAT도 함께 가르치는 New Covenant 사립학교. 인재보다 더 큰 사람을 키웁니다. 사람, New Covenant가 키웁니다.

New Covenant Elementary Eliah Djedjro (2nd)
 New Covenant Middle School Richard Shin (7th) 2013 US National Rolling Fencing Top 10
 New Covenant High School Alice Kim (12th) Class of 2014 National Merit Semifinalist Honor Council Member

WASC Accredited
 IB World School The Gold-Standard of college prep education
 Proven College Preparation Excellent preparation evidenced by all past graduates advancing to tier-one schools
 Affordability Less than 1/2 of comparable schools
 Excellent Teachers Qualified, committed, and effective Christian instructors
 Credibility 15 years of proven results

Counseling & Support Personal, family, and academic counseling to support students and parents
 Community & Family Environment Partnership between parents and teachers
 Holistic Approach to Education Spiritual, intellectual, physical, and character development
 Small Class Size Average size of 10-12 students
 Safe & Nurturing Environment Safe campus, classrooms, and facilities for students to enjoy

OPEN HOUSE January 23(Thur.), 2014 7PM <Must RSVP>
 2014 가을학기 학생모집 모집학년: K학년~12학년
 213-487-5437 www.e-nca.org 3119 W. 6TH STREET L.A., CA 90020

미주장로회신학대학교 신년 동문 가족의 밤 열려

이민교회의 미래는 신학교육에 달려... 기도와 후원 부탁



미주장로회신학대학교 신년 동문 가족의 밤이 13일 하워드존슨호텔에서 열렸다.

미주장로회신학대학교 2014 신년 동문 가족의 밤이 13일 오후 6시 플러튼 소재 하워드존슨호텔에서 열렸다. 서정일 목사(동문회장) 사회로 열린 이날 행사는 1부 예배, 2부 만찬과 교제 순서로 이어졌다. 예배는 이병일 목사의 기도, 이영진 목사의 성경봉독, 강영창 목사의 설교로 이어졌다. 마가복음 2장 21-22절을 본문으로 "새 술은 새 부대에"라는 설교에서 강영창 목사는 "진정한 새해를 맞아 '송구영신'이란 말을 기억하자"고 말문을 열었다. 강 목사는 낡은 가족부대는 옛 유대주의에 물든 사고와 생활양식을 말하고, 새 포도주란 무한한 생명력과 폭발적 운동력이 있는 예수님의 복음을 뜻한다"며 "신년을 맞아 이 자리에

모인 모든 목회자들이 예수님의 복음을 받기에 합당한 새부대로 거듭나, 새로운 부흥의 시대를 열자"고 말했다. 격려사를 전한 노진걸 목사는 "우리는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부름을 받았다"면서 "2014년 한 해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자"고 말했다. 이어진 격려사에서 이상명 목사(미주장로회 총장)는 "불경기임에도 13만불이란 많은 금액을 도네이션 해 주신 동문 목사님과 교회에게 감사하다"고 말했다. 이 목사는 "이민교회의 미래는 신학교육에 달려있으니 양질의 신학교육이 이뤄질 수 있도록, 본교의 동문회원들의 간절한 기도와 후원을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그는 "1.5세와 2세의 신학대학 한인 지원률은 계속 떨어지고 있고, 미국신학교나 한국신학교도 갈수록 어려운 상황이다"라며 "10년 이내 개신교의 미래는 빠르게 재편되리라 본다. 개신교가 진정 미래를 내다보고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 목사는 "미주장로회 대 디아스포라 신학교를 대표하는 신학교로 발전해, 세계 곳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동역자들을 배출하자"고 말했다. 이어 서정일 동문회장 이 31대 전 동문회장 김용호 목사에게 감사패를 전달하고, 32대 이사장 고영준 목사의 축도로 예배를 마쳤다. 2부 순서로 만찬과 함께 강운 전도사의 사회로 교제를 나누며 훈훈한 시간을 보냈다. 이민규 기자



크리스천헬스케어의 스티븐 정 소장(왼쪽)과 코리안아메리칸 메디컬그룹의 한승수 박사(오른쪽)가 협약 체결 후 악수를 나누고 있다.

코리안아메리칸 메디컬그룹(KAMG) 크리스천헬스케어(CHM)와 MOU 체결

남가주를 대표하는 한인 의료 메디컬그룹인 코리안아메리칸 메디컬그룹(KAMG: Korean American Medical Group 회장: 한승수 박사)과 오바마케어 승인 프로그램인 크리스천헬스케어(CHM: Christian Healthcare Ministries 대표: 하워드 러셀 목사)는 남가주에 거주하는 한인 크리스천을 대상으로 더 나은 서비스를 다짐하기 위해 협약을 체결했다. 오하이오주에 본사가 있는 크리스천헬스케어의 대표인 하워드 러셀 목사는 전화 인터뷰를 통해 한인 커뮤니티의 적극적인 호응과 관심에 감사를 표하며 이번 업무협약을 통하여 양 단체간의 긴밀한 협조와 관계를 원한다고 전했다. 크리스천헬스케어는 미국에서 가장 오래된 비영리 의료선교단체로서 지난 20년간 10억불이 넘는 의료비를 회원들을 위해 지출해 왔다. 오바마케어 법안 중 H.R.3590으로 인해 벌금면제를 인정받은 단체인 메디케어, 사마리탄도 크리스천헬스케어로부터 독립된 곳이다.

을 일반내과와 암내과를 겸하고 있는 한승수 박사는 "크리스천헬스케어의 신뢰도와 서비스를 충분한 시간을 갖고 지켜 보아왔다"고 전했다. "이미 많은 한인들이 크리스천헬스케어를 통해 의료비를 지원받은 사실을 들었다"고 전했다. 코리안아메리칸 메디컬그룹은 심장내과, 위장내과, 암내과 등 155명이 의사들이 활동하고 있다. LA 지역은 물론 Valley, Orange County 지역의 그룹 소속 의사들 중 주치의를 선정할 수 있고 많은 전문의를 통해 한인들에게 보다 나은 의료서비스를 약속했다.

크리스천헬스케어의 한인지원센터 소장인 스티븐 정 씨는 "크리스천헬스케어의 회원가입을 홍보하는 것뿐만 아니라 커버드 캘리포니아 산하 비영리단체인 연장자 센터의 전문 상담사들과 협력하여 오바마케어에 적합한 분들에게는 가입을 도와주고 있다"고 전했다. "나아가서는 재미 한인들을 위한 의료봉사도 각종 정보의 서비스에 앞장 설 것을 다짐했다."

크리스천헬스케어는 오바마케어로 높은 보험료를 지불해야 하는 사람들이나 체류 신분 때문에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람, 그리고 종교적인 이유 때문에 곤란함을 겪는 사람들에게 가장 좋은 대안이라고 할 수 있으며 33년의 역사와 전통의 신뢰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의 의료비를 담당하는 것을 사명으로 알고 있다.

크리스천헬스케어(CHM)는 Health Care Sharing Ministry라고 할 수 있는 의료사역 단체이다. 이미 미국 주류사회에서는 오래 전부터 이용되어 왔던 프로그램으로 건강보험비를 절약하고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받고자 해서 설립된 의료조합의 형태이다.

오바마케어의 가입과 벌금, 그리고 혜택의 여부를 알아 보느라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늦어도 3월까지 가입을 해야 벌금을 내지 않는다. 때에 발 맞추어 남가주에서 높은 수준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코리안아메리칸 메디컬그룹과 업무 체결을 하게 되었다. 남가주에서만 40여년

이벤 오바마케어 법안에서는 면제 조항(Religious Exemption)에 의해 H.R. 3590으로 승인된 것이다. 가입자들에게 오바마케어의 벌금면제는 물론 100%의 의료비 지원의 놀라운 시스템을 자랑한다. 회원끼리 소개하면 한 달 회비를 삭감해 주는 규정도 있어서 서로가 서로를 돕는 좋은 모델이 될 것으로 보인다.

토마스 맹 기자

탈북신학교와 함께하는 가정사역 컨퍼런스

제4회 커뮤니티와 함께하는 가정사역 컨퍼런스가 18일 오전 8시 30분에 목회자, 선교사, 사모, 상담분야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탈북신학교 비즈니스 빌딩(13800 Biola Ave. La Mirada, CA 90639)에서 열린다.

또 다른 강사인 탈북의 신학박 벤신 교수는 20년간 탈북에 재직했고 목사, 선교단체 지도자로서 UCLA, 탈북신학교를 졸업했다. 그는 하나님의 사람의 경건훈련에 대해 강의하게 된다. 박사 과정 교수로 재직하고 있는 렉스 손슨 교수는 갈등의 해결에 대해 다루게 되며, 임상심리학자인 쉰니 송 교수는 분노조절을 위한 심리 정서적 접근 등에 대해 강의한다. 이날 통역이 제공되며, 탈북신학교에서 발급되는 수수료증이 주어진다. 신학생 장학혜택이 주어지며, 등록은 70달러이다. >문의:(714)287-2458

세미나 강사는 가정사역 분야의 선구자이고 원로교수인 노만 라이트 박사, 그는 장애 아들과 사별, 사랑하던 아내의 투병과 사별, 그리고 재혼을 거쳐 인생 전체의 경험을 통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76세의 노령에도 불구하고 아름답게 전하고 있다. 이번에는 트라우마가 가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강의하게 된다.

토마스 맹 기자

플러동문회 신년모임

제 15대 플러한인 M.Div.동문회 총회 및 플러한인총동문회 신년모임이 19일(주일) 오후 6시에 데저트팜스 온천(67485 Hacienda Ave. Desert Hot Springs, CA 92240)에서 열렸다. 더불어 플러한인 M.Div.동문회 가족 수양회가 19일부터 20일까지 1박 2일 동안 같은 장소에서 진행된 다. 참가비는 가족은 40달러, 혼자 올 경우 20달러이다.

>문의:(951)704-6087(플러한인 M.Div.동문회 이영우 부회장) 토마스 맹 기자

VISIONDRIVE HD BLACK BOX

SF코딩으로 더욱 더 고급스러워진 HD블랙박스!!

2채널 블랙박스, 전후방 또는 실내를 항시녹화

영상 보정 기능으로 정확한 영상 분석/LCD 영상 재생 / 확대보기 기능

고성능 GPS 센서 내장/ 속도, 위치, 시간, 방향까지 확인

Battery 방전 방지 시스템

구입문의 : **Joseph Park** 213.235.7836
www.carblackboxstore.com 310.902.3944

천천히 다 둘러보고 오세요~

당신의 마지막 카드

13년 경력의 자동차 판매 전문가, 찰리 정

푸엔테힐스 현대 HYUNDAI

찰리 정 (FLEET MANAGER) | 213-276-8959 | email:usajyk@gmail.com

H.R.3590 Religious Exemption 크리스천을 위한 오바마케어 벌금면제 혜택



CMM은 크리스천을 위한 오바마케어 벌금면제 단체입니다.

2014년 1월부터 미국 국민과 합법적인 거주자들에게 건강보험 가입이 의무화되어 건강보험이나 'Health Care Sharing Ministry'에 가입하지 않으면 벌금이 부과됩니다.

기독교의료상조회(Christian Mutual Med-Aid)는 오바마케어 법이 요구하는 자격요건을 모두 갖춘 전국에 4개 뿐인 **Health Care Sharing Ministry** (오바마케어 크리스천 벌금면제 플랜) 중 하나이며 유일한 한인 단체입니다.

CMM 플랜의 특징 및 장점

- ▶ 성경적으로 운영되는 비영리 플랜입니다.
- ▶ 한국(선교지)에서 사용한 의료비도 지원합니다.
- ▶ 한국어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 ▶ 모든 의사나 병원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 크리스천이 가입할 수 있습니다.
- ▶ 수입과 신분에 관계없이 가입할 수 있습니다.

프로그램	Gold Plus	Gold	Silver	Bronze
내용				
의료비 혜택 내용	예방검진 치료를 위한 검사비 수술 및 입원비	치료를 위한 검사비 수술 및 입원비	수술 및 입원비	수술 및 입원비
1 unit (1인)	\$ 175	\$ 135	\$ 80	\$ 40
2 units (2인)	\$ 325	\$ 260	\$ 160	\$ 80
3 units (3인 이상)	\$ 425	\$ 385	\$ 240	\$ 120
본인부담금 (1인 기준)	\$ 500 / Year	\$ 500 / Incident	\$ 1,000 / Incident	\$ 5,000 / Incident
질병당 의료비지원한도 (브라더스키퍼 가입)	unlimited	unlimited	질병당 최고 \$1,000,000	질병당 최고 \$1,000,000

CMM 기독교의료상조회
CHRISTIAN MUTUAL MED-AID

전화 213-700-9212
문의 www.christianmutual.org

전국적으로 20만 크리스천 가정과 단체는 건강보험대신 의료비나눔사역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CMM은 건강보험회사가 아니며, H.R.3590 Religious Exemption에 의한 비영리 Health Care Sharing Ministry입니다.

한국 선교사 수, 지난해 1,003명 증가해 총 25,745명

교단이 11,482명, 선교단체가 15,919명 파송해... 교회개혁, 제자훈련, 캠퍼스 등



한국교회가 파송한 선교사의 수가 여전히 증가 추세에 있어 매우 고무적이다. 특히 전체 선교사의 절반 가량이 복음의 황무지로 꼽히는 아시아권에서 헌신하고 있어 큰 도전을 준다. 사진은 청년들을 선교에 헌신하도록 동원하는 '선교한국' 대회의 한 장면.

한국교회가 지난해까지 파송한 선교사는 169개국 25,745명으로 나타났다.

한국세계선교협의회(KWMA, 회장 강승삼)가 13일 제24회 정기총회에서 발표한 '2013년 12월 말 현재 한국 선교사 파송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 선교사 수는 2012년에 비해 1,003명이 증가해 이 같은 수치를 기록했다. 2013년 선교사 수는 전체에서 이종소속(1,916명)을 뺀 것이다.

이 가운데 교단선교부(39개) 소속

은 11,482명, 선교단체(216개) 소속은 15,919명이었다. 대형교단의 선교사 파송이 꾸준히 늘고 있음에도, 선교단체에서 파송한 선교사 수가 그보다 더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KWMA 측은 "선교의 모판인 한국교회가 어려운 상태로 변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파송 선교사 수는 약 1,000명대 수준으로 꾸준히 늘고 있다. 이 조사는 KWMA 회원교단과 선교단체를 중심으로, 통계조사에 협조해 준 비회원까지 포함한 결과들이다. 여전히 조사 범위에 들어와

있지 않은 단체들이 있으며, 개 교회 또는 노회(지방회) 단위에서 파송된 선교사 수까지 합하면 실제 파송 선교사 수는 더욱 많다"고 밝혔다.

일반선교지역인 G2, G1에서 활동하는 선교사는 11,102명으로 전체의 42%이며, 전방개척지역인 F1, F2, F3에서 활동하는 선교사는 58%인 15,601명으로 나타났다.

일반선교지역보다 전방개척지역의 선교사들이 많다는 것이다. 그러나 필요한 선교사 측면에서 본다면 G2 지역은 벌써 과잉 상태로, 선교사

중복투자 점검, 그리고 그에 따른 재배치가 필요한 영역이라고 볼 수 있다. 여전히 한국 선교는 일반선교지역보다는 전방개척선교가 강조되어야 함을 알 수 있다.

한국 선교사들의 상위 활동지역은 몇 년 동안 거의 변동 없이 동북아 X국, 미국, 필리핀, 일본, 인도, 태국, 인도네시아, 러시아, 캄보디아, 독일 순으로 나타났다.

또 한국 선교사들의 전체 활동 국가 중 상위 10개 국가에 50% 이상이 활동하고 있어, 10대 선교국이 한국 선교에 있어서는 주력 부대가 활약하고 있는 지역이다.

그 중 동북아 X국, 일본, 인도, 태국, 인도네시아, 캄보디아는 전략선교지역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미국, 필리핀, 러시아, 독일에서의 전략선교는 자생하는 미전도종족이나 해외에서 이주한 소수 미전도종족 선교로 목표가 이동되고 있음을 볼 수 있었다.

한국 선교사들의 주요 사역은 예년과 동일하게 △교회개혁(136개국, 10,693명) △제자훈련(140개국, 8,612명) △캠퍼스(73개국, 2,499명) △교육사역(75개국, 1,361명) △복지·개발(70개국 819명) △의료(50개국, 515명) 순으로 이어졌다.

이 외에도 △문화·스포츠 사역 △어린이·청소년 사역 △성경번역 사역 △비즈니스 사역도 300명 이상이 사역하는 분야로 나타났다.

한국 선교사들이 가장 많이 활동하는 지역은 아시아로, 그 가운데서도 동북아시아(6,360명)와 동남아시아(5,009명)의 사역자 수는 1만 명이상이었다. 이 수는 전체 선교사가 25,745명이라고 할 때 거의 절반에 해당한다.

세번째가 북미주이며, 네번째인 한국 분부 사역자 수도 많은데, 그 이유는 선교행정가 및 동원선교사, 그리고 비거주 순회선교사들이 포함되

어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보고서는 "한국선교가 세계에서 가장 복음화되지 않은 지역인 아시아에서 큰 역할을 하고 있음을 반증한다"고 전했다.

지난해 발표되었던 2009년과 2012년의 '개척지수별 추이 현상'과 비교해, 전방개척지역으로 나가는 선교사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매우 긍정적인 현상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일반선교지역으로의 파송도 늘어나고 있다. 특히 G2 지역으로 나가는 선교사가 가장 많은 증가(전년 대비 331명)를 보여, 한국 선교가 여전히 불균형적인 파송을 하고 있음을 나타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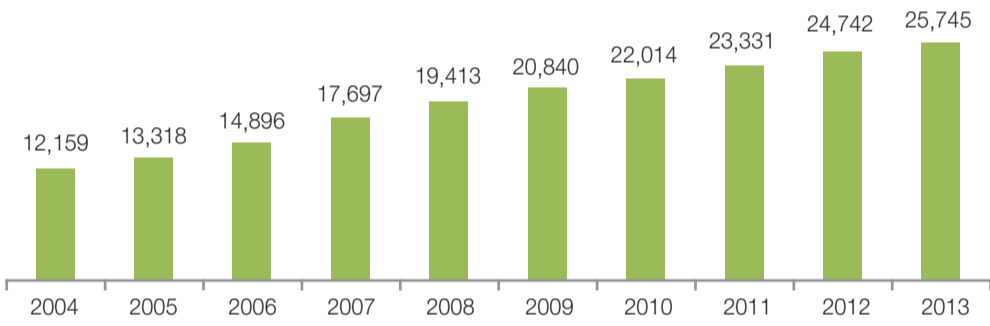
또 이 보고서는 "적극적으로 전방개척지역으로 선교사들을 파송하도록 격려하고, 그렇게 하지 못한 이유들을 찾아내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KWMA는 "통계 시스템을 개발한 2011년부터 통계조사가 용이하고, 수치의 오차를 줄여가는 노력을 하고 있다. 시스템 개발 이후 3년째 조사하면서 느낀 점은, 통계 조사에서 있어서 완벽한 시스템도 중요하지만 얼마나 많은 단체가 응하도록 하는가가 더 중요하다는 점이다. 따라서 회원단체는 물론이고, 비회원 등 조사의 폭을 넓혀서 통계를 모으도록 몇 년 전부터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했다.

또한 "양적 성장을 수치로 보면서 점검해야 하는 것들을 찾아낼 수 있고, 그 수치를 통해 전방개척 현황을 살펴봄으로써 전방개척선교가 강조되어야 하는 당위성이 제시될 수 있다. 그래서 선교사 현황 조사는 의례적이 아니라 목적을 갖고 하고 있다는 것을 놓치지 않았으면 한다"면서 비회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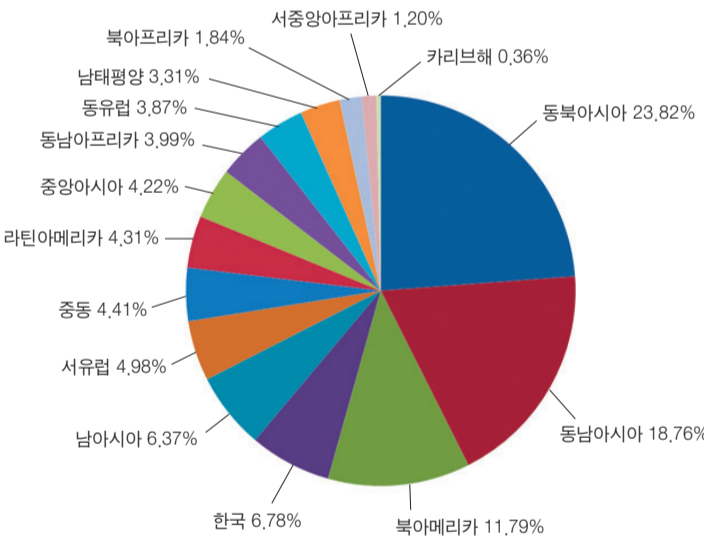
강해진 기자

연도별 선교사 현황



연도별 선교사 현황. ©KWMA 제공

권역	선교사 수(명)
동북아시아	6,360
동남아시아	5,009
북아메리카	3,149
한국	1,810
남아시아	1,700
서유럽	1,329
중동	1,177
라틴아메리카	1,152
중앙아시아	1,127
동남아프리카	1,066
동유럽	1,033
남태평양	884
북아프리카	491
서중남아프리카	320
카리브해	96
합계	26,703



지역별 선교사 파송 현황

최첨단 3D 전신 스캔 검사

다나병원의 BIS 전신 종합검사는 신체내 투입이나 통증없이 신속정확하여 과학적인 방법으로 뇌, 심장, 혈관, 간, 위, 척추 등 전신의 건강 상태 뿐만 아니라 위험 요소들을 미리 측정하여 예방도 가능하게 하는, 일찍이 경험하지 못한 전신기능의 검사를 합니다.

유전자 생약치료 200여개의 유전자를 분석하여 질병위험과 전반적인 건강상태 상담, BAM(bio active molecule: 생리활성물질)으로 치료를 합니다.

다나병원 다나병원은 Well-Being과 Aging Care를 목표로 통합의학을 지향합니다. 621 S. Virgil Ave., #252, Los Angeles, CA 90005 / T. 213.487.0691

보험료를 대폭 낮추었습니다!

가장 싼 자동차 보험 알선

“천절하게 웃음으로 상담해 드립니다. 부담없이 연락주세요.”

음주운전자들을 위한 특별 자동차 보험 | 각종 사업체, 화재보험 및 모든 보험문의 환영

굿모닝 보험 213.761.9990 24hr 한국인 서비스 KEVIN YOO

3550 Wilshire Blvd. #510 Los Angeles, CA 90010

LOS ANGELES ORT COLLEGE
NON-PROFIT ORGANIZATION
ACCREDITED BY ACCET www.LAORT.edu

◆ 한국인 상담
그레이스 (Grace)
직통: 213.703.6863
Office: 323.966.5444

고소득 직업을 원하십니까? 우리가 도와 드리겠습니다.

시민권자, 영주권자, 저소득층 정부전액 보조금 지급(유자격자) - ESL Program Only -

상담필수 8:30AM~7:00PM

- 시민권 신청
- 저소득층 메디칼 신청
- FREE Food Stamp
- HEAP(Utility Ball Payment)
- Social Service
- WIA, Childcare, Transportation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 드립니다.

• 방문비자(B1, B2)를 학생비자 F-1으로 변경 가능

유학생은 ORT학교 졸업 후 워크퍼밋과 소셜NO.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GED반 개설

- 메디칼 오피스 매니지먼트 학사취득 ... Medical Office management (AA Degree)
- 건축설계 ... Computer Aided Design & Drafting
- 의사보조 ... Medical Assistant
- 약사보조 ... Pharmacy Technician
- 정부 전액보조금지급(유자격자) 학자금 보조 및 용자
- 취업추천 및 직업소개(전문 직업, 높은 취업률 보장)
- 무료 버스표, ORT 학교 장학제도 보유

- ESL ... English as a 2nd Language (ESL) 1~6단계, 회화반
- 비즈니스 매니지먼트 학사취득 ... Business Management (AA Degree)
- 아카운팅 AAS 학사취득 ... Accounting (AA Degree)
- 그래픽, 포토샵 ... Computer Graphic & Desktop Publishing (Adobe Illustrator)
- 편리한 수업시간 대 : 아침반, 저녁반
- 유학생을 위한 1-20 발급 (미민국 SEVIS 인정 대학, 소셜 넘버가능)
- 교수진 : 전원 남녀 미국인교수

Los Angeles : 6435 Wilshire Blvd, Los Angeles, CA 90048 (Wilshire+Lajolla)
Van Nuys : 14519 W. Sylvan Street, Van Nuys, CA 91411 Tel. 818.382.6000

New York : Forest Hills
Chicago : Skokie

캘리포니아 공립학교 남녀화장실 공용법

폐지 위한 서명 재검표 돌입

13만6천 서명 무효처리 충격, 3060개 모자랐으면 완전 무산될 뻔

캘리포니아 공립학교 남녀 화장실 및 탈의실 공동사용법인 AB1266을 반대하는 주민 서명이 유효성 95.6%를 기록하며 전면 재검표에 들어갔다. 이 법은 이미 1월 1일 발효된 상태이며 2월 24일까지 진행될 재검표에서 50만 4760개의 서명이 넘으면 2014년 11월 주민투표에 상정되면서 주민투표 전까지 효력이 중지된다. 이 수에 미치지 못하면 주민투표 상정은 불가능하며 법의 효력은 유지된다.

보수층을 중심으로 한 반대 서명운동에서는 무려 61만9244개의 서명이 확보됐다. 이는 주민투표에 법안 폐지 문제를 상정하기 위해 필요한 50만 4760개보다 무려 11만4484개가 많은 수였다. 주법 상, 주민투표 상정을 위해서는 50만4760개의 서명이 필요하며 서명운동이 완료되면, 각 카운티별로 카운티 내 전체 서명의 3% 혹은 500개 서명 중 많은 숫자의 서명을 추출해 유효성을 검사한다. 여기서 50만 4760개를 기준으로 95% 이하, 즉 47만9522개 이하가 되면 주민투표 상정은 실패하고 110% 이상, 즉 55만5237개 이상이 되면 성공한다. 만약 95%에서 110% 사이의 수가 나오면, 주정부는 카운티 별로 모든 서명에 대한 전면 재검표를 실시하도록 하며 이 단계에서 50만4760개 이상이 되면 통과, 아니면 폐기한다. 이번 서명운동에서는 122%의 서명이 확보됐기에 주민투표 상정이 거의 확실시 됐으나 초고강도

로 이뤄진 유효성 검사에서 무려 13만 6662개 서명이 무효처리되며 고작 48만2582개 서명만이 남았다. 이는 유효성이 95.6%이며 주법에 따라 전면 재검표에 들어가게 됐다.

만약 3060개 서명만 모자랐어도, 유효성이 95%가 되지 못해 재검표는 커녕, 주민투표 상정 자체가 무산될 뻔했던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점은, 전체 서명의 무려 22%에 달하는 13만6천 서명을 무효화 시킨 성소수자 그룹의 막강한 공세다. 이번 61만 9244개의 서명은 1차 집계 당시 LA카운티에서 13만0978개, 샌디에고카운티에서 7만2542개, 샌버나디노카운티에서 6만3348개가 모였지만 모노카운티와 플레어카운티에서는 단 한 개의 서명도 없었고 알파인카운티에서는 단지 1개에 그쳤다. 그만큼 유효 서명을 탈락시키는 데에 초고강도 노력을 기울였다는 것이다. 이 법에 반대하는 성소수자 그룹은 3060개 서명을 더 탈락시키지 못한 것에 안타까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으며, 보수층은 3060 서명 차이로 주민투표가 무산될 뻔 한 것에 안도의 한숨을 쉬고 있다.

이런 사건은 과거에도 있었다. 2012년 7월 동성애 교육 저지를 위한 PRE(Parental Right in Education) 법안을 주민투표에 상정하기 위해서도 50만4760개의 서명이 필요했다. 1차 서명 마감일에 약 3만여 서명이 모자란 사태가 벌어졌고 두 달 후 서명을

보충해 가까스로 50만4940개의 서명을 채웠다. 이는 카운티의 집계를 무사히 마쳤고 95% 이상으로 유효성 검사까지 통과했다. 그러나 재검표에서 고작 3천 서명이 모자라 주민투표가 좌절됐다. 이제 주정부는 각 카운티에 2월 24일까지 전면 재검표를 지시했으며 여기서 50만4760개 이상이 되면 주민투표는 성사되고 아니면 폐기된다. 그리고 이미 발효된 AB1266은 2월 24일까지는 유효한 상태를 유지한다.

한편 AB1266에 따르면, 공립학교 킨더가든부터 12학년대에 속한 트랜스젠더 학생은 자신이 사용하고 싶은 성별의 화장실과 탈의실을 사용할 권리가 있으며, 참여하고 싶은 남성 혹은 여성 스포츠 팀에서 활동할 수 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트랜스젠더를 규정하는 범위인데, 실제로 트랜스젠더가 되기 위한 외과적 수술을 받지 않았더라도 자신을 다른 성별이라고 생각하거나 믿을 경우 트랜스젠더에 해당하게 된다. 따라서 이 법이 발효되면 외모는 물론 생물학적 성별도 남자인 학생이 어느날 갑자기 자신을 여성이라고 주장하며 여자 화장실에 들어갈 경우, 이를 제지할 방법이 없을 뿐 아니라 제지할 경우 성소수자 처벌로 처벌을 받게 된다. 또 남성이면서 여성이라 주장하는 학생이 여성 육상팀에 들어가 타 학생에 비해 상대적으로 좋은 성적을 낸다고 해도 이에 대한 형평성 문제를 제기할 수 없다. 김준형 기자

주정부 권한 결혼법

“연방정부 간섭 마” 법안 발의

수정헌법 10조 보호 위해 법안 필요성 제기

결혼법을 두고 연방정부와 일부 주정부 간에 갈등이 일고 있는 가운데, 연방정부가 각 주의 결혼법을 존중하도록 하는 법안이 랜디 웨버 하원의원(텍사스, 공화당)에 의해 추진되고 있다. 지난해 6월 연방대법원이 “결혼은 한 남성과 한 여성의 결합”이라 규정한 연방법인 결혼보호법을 위한 판결 이후, 각 주마다 서로 다른 결혼법 및 연방정부와의 갈등으로 인해 미국은 큰 혼란에 빠졌다.

최근 유타 주만 해도 지방법원의 동성결혼 합법화 판결이 보름 만에 연방대법원에 의해 효력이 중지된 후, 주정부는 이 결정에 따라 동성결혼을 불허했지만 연방정부는 보름 동안 유타 주에서 발급된 동성 커플의 결혼증명서를 인정하겠다고 해 논란 중이다. 잘 알려진 대로 결혼법은 연방정부가 아닌 주정부에 귀속돼 있기 때문에 연방정부에는 유타 주의 결혼증명서를 인정, 부정할 법적 권한이 없이 주정부의 결정을 따르게 돼 있다.

이처럼 결혼법이 각 주에 귀속돼 있는 한, 연방 결혼보호법 폐지 후에도 동성결혼을 인정하지 않는 주에 거주하는 동성 커플은 그들의 결합이 여전히 주 법에 따라 결혼으로 인정받지 못하기 때문에 결혼자들에게 주어지는 연방정부의 혜택도 누릴 수 없었다. 그런데 이번 유타 주의 사건은 주정부가 인정하지 않는 결혼을 연방정부가 독단적으로 인정하겠다는 것이다. 이

는 수정헌법 10조에 명시된 연방정부의 권한을 위배하는 것이라 지적이다. 반대의 예를 들면, 과거의 결혼보호법도 “동성결혼이 합법화된 주의 법이 타주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하며 각 주는 동성결혼을 거부할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면서 동시에 “동성 커플에게는 연방정부의 각종 혜택을 제공할 수 없다”는 내용을 골자로 했지, 각 주의 결혼법에 이례라 저러라 관여할 수는 없었다. 정리하면, 결혼보호법이 각 주의 결혼법에는 직접적 영향을 미칠 수 없었듯이 이 법의 폐지 역시 각 주의 결혼법에 영향을 미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연방정부가 동성결혼 문제에 있어서 권력을 남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웨버 의원이 제안한 이 법은, 연방정부의 각 기관들이 시민의 결혼 상태를 규정할 때 그들이 거주하는 주의 결혼법에 따르도록 명시해 놓았다. 이에 따르면, 동성결혼을 허가하는 주의 동성 커플은 결혼자이며, 금지하는 주의 동성 커플은 결혼자가 아닌 것으로 규정된다. 그는 “수정헌법 10조에도 불구하고 오랜 기간 동안 연방정부가 산하의 각종 기관들을 통해 주정부의 권한을 서서히 침해해 왔다”고 지적했다. 그가 제안한 이 법은 일명 주 결혼 보호법(State Marriage Defense Act of 2014)으로 명명되며 각 주의 결혼법에 대한 권한을 강화해야 하고, 신앙과 교리에 대한 모든 문제들을 마주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김영신 기자

美 기독교계 전반에 칼빈주의 다시 부상

최근 미국 기독교계에서 칼빈주의가 부상하고 있다. 뉴욕타임스는 최근 “16세기 종교개혁자인 존 칼빈의 관점을 가르치는 전도자와 신학교 교수들의 수가 늘고 있다. 칼빈의 영향을 받은 교회의 예배 출석률이 증가하고 있으며, 특별히 20~30대 예배자들 사이에서 이 같은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마크 드리스콜, 존 파이퍼, 팀 켈러 등 대형교회 목사나 주요 기독교 작가들이 모두 칼빈주의자들”이라고 보도했다.

미국에서 가장 큰 개신교단인 남침례회에서, 칼빈주의의 부각은 분쟁의

원인이 되기도 했다. 라이프웨이리서치가 지난 2012년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1,066명의 남침례회 목사가 가운데 30%가 자신들의 교회가 칼빈주의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칼빈주의는 신학적 지향점이 교단이나 단체가 아니다. 청교도 역시 칼빈주의자들이었다. 장로교는 스코틀랜드 칼빈주의자들에서 나왔다. 초기 침례교인들 중 상당수 역시 칼빈주의자였다.

그러나 19세기 개신교는 인간이 스스로의 구원에 반드시 동의해야 한다는 비칼빈주의(Non-Calvinist) 신념

으로 돌아섰다. 오늘날 미국에서 가장 보수적 교단 중 하나인 미국장로회(Presbyterian Church in America) 역시도 칼빈주의에 대한 미련이 없다.

그러나 지난 30년 동안 칼빈주의자들은 개신교의 다른 교단과, 신학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지 않던 교회 내에서 주목을 받기 시작했다고 뉴욕타임스는 전했다.

베일러대학교 교수이자 ‘반(反)칼빈주의(Against Calvinism)’ 저자인 로저 올슨(Roger E. Olson)은 뉴욕타임스와 가진 인터뷰에서 “우려하

는 한 가지는 일부 침례교 신학교의 새로운 졸업생들이 칼빈주의가 아닌 교회로 스며들고 있다는 점이다. 이들은 교회나 조사위원회에 자신이 칼빈주의자라고 말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가 전해 들은 바에 의하면, 젊은 젊은 설교자들은 몇 달을 기다리면서까지 도서관에서 존 파이퍼 혹은 마크 드리스콜 같은 칼빈주의자들의 책에 천착하고 있다. 이들은 칼빈주의에 대한 주제로 특정한 수업을 열거나, 동료 칼빈주의자들을 교회 스태프로 채용한다. 올슨 교수는 “때로는 교회의 분열 끝에, 비(非)칼빈주의자들이 그들의 교회를 시작한다”고 했다.

남침례회는 6월 연례회의에서 칼

빈주의 고문위원회 보고서를 받았다. 이는 교단 내 반칼빈주의적 편견과 칼빈주의자들에 대한 불평등한 처우를 골자로 하고 있었다. 보고서는 “우리는 지역교회에서 가감없이 모든 후보 사역자들을 존중해야 하고, 신앙과 교리에 대한 모든 문제들을 마주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유니온신학대학교 세린스 존스(Serene Jones) 학장은 “칼빈의 영향력은 보수주의자들에게만 제한돼 있지 않다”고 말했다. 존스 학장은 “일부 회중교회 신자(Congregationalists) 혹은 진보적인 장로교인들을 포함한 진보적 크리스천들은 칼빈 교리의 다른 면들을 수용한다”고 했다.

강혜진 기자

HEAVEN EARTH TRADING Import & Wholesale
www.uslahealth.com
213)386-3585
SANSAM
산삼(인디언이캔야생산삼) 모든 건강식품
매실/홍삼제품 한약제품
Vitamin 각종 즙
(LA 한남채넌내) 2740 W. Olympic Blvd. Los Angeles, CA 90006

헤어컷 특강
미용을 배워 선교하는데 사용하실 분들을 위해 특강을 엽니다.
▪ 대상 : 전도와 선교를 위해 사용하실 분 (현재 프로 미용인도 OK)
▪ 회비 : 월 \$10
▪ 강사경력 : 전 국가대표 선수권자
▪ 문의 : 213.392.2323

지긋지긋한 당뇨병 타죽출
평생을 안고가던 당뇨병이 이제는 치료가 됩니다. 새로운 당뇨 개선제 PRO-Z를 6개월만 복용하시면 지긋지긋한 당뇨병에서 해방되어 정상인과 같은 체질의 인슐린 분비를 촉진하여 줍니다.

PRO-Z
신제품 소비자 공급가 \$76
*한국에서는 \$145에 판매중

타주 대리점 모집
당뇨병의 원인 치료개선제
PRO-Z

당뇨병의 원인
아연은 우리 몸의 대사작용을 하는 필수 미네랄로 인슐린의 저장 및 분비에 필수적인 성분입니다. 아연이 부족하면 췌장베타세포의 인슐린 분비 기능이 저하되어 당뇨병을 유발하게 됩니다. 췌장베타세포의 기능 복원을 개선시키는데 PRO-Z가 해결해 드립니다. 현재까지는 수만종류의 당뇨약이나 인슐린으로 혈당 유지를 하는데 그쳤으나 PRO-Z는 췌장에 인슐린 분배를 확실히 개선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는 제제로 세계 최초로 미국 정부로부터 특별한 지원을 받고있는 당뇨 개선제입니다

재미과학자 송문기 박사는
UCLA의과 대학 박사로 40여년간 연구 개발한 PRO-Z는 미국FDA에 치료 약으로 신청중이며 주성분인 아연과 크롬으로 의약품계에서 획기적인 연구개발로 임상평가 받고 있다.
특히 미국의 재향군인 병원에서 임상실험 결과 최소한 6개월복용시 췌장에 탁월한 효과로 개선됨을 확신하고 있는 제품입니다.

621 S. Virgil st. Suit 260
Los Angeles CA 90005
213.434.1170

기도로 성취되는 성역(聖役)

사도행전 13:1-12



서울 성은교회 목사 장재호

안디옥 교회의 시작은 사도행전 11:19-21에 “때에 스테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을 인하여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도를 유대인에게만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매 수다한 사람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하신 말씀으로 시작됩니다. 안디옥 교회는 이방교회들의 모체로 서둘러 세워지게 됩니다. 처음에 세워지는 과정에서는 어느 누구도 그것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안디옥 교회뿐 아니라 그 후에 세워지는 다른 교회들도 하나님의 목적과 빈틈없는 계획 가운데 서둘러 전도인을 보내시고 그 입술을 통해 선포되는 말씀으로 역사하셔서 교회가 세워지도록 그 주변의 택하신 백성들을 끌어 모아 주셨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진리 정통하고, 성령이 충만하고, 영적 소망의 체질을 목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교회로 발전했다는 사실은 세계 교회사에서 가장 모범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모인 신도들은 과거에 헬라 문명권에서 살면서 그들은 세상적 지혜를 바탕으로 머리를 써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랬던 사람들이 세상조건의 허망한 기대와 꿈을 스스로 깨뜨려버리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서 그들의 인생관은 완전히 영성으로 바뀌진 성도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소망을 목적으로 살다보니 하나님 앞에 영적인 일거리를 달라고 온 교회가 합심해서 금식하는 기도까지 했다는 사실은 교회 역사 이래로 소망적인 모습을 최초로 보여준 것입니다.

흔히 교회들은 교회를 책임지고 있는 목사가 하나님의 뜻을 계시, 전달해도 당회나 제직회에서 이를 두고 왈가왈부합니다. 여러 가지로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는 오만하고 불손한 경향을 많이 보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교회는 민주주의가 될 수 없고 피라미드형인 계통체제를 세워야 합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예수님이 엄청난 희생을 치루시고 세우셔서 가꾸어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 교회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지 교인들 각자에게 있는 것은 아닙니다.

2절을 보면 “주를 섬겨 금식할 때”라고 했습니다. 교회 안에서 제멋대로 할 일을 결정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허락하시고 맡기시는 일이어야 자기들이 감당해서 하나님 섬기는 보람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간절한 기도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성령의 사명을 주시고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하셨습니다. 바나바와 사울을 선교사로 세워 파송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시고 세우신 바나바와 사울은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로 시험해보시고, 분석해 보신 결과 이들은 안디옥 교회에서 선교사로 파송할만하고 그들이 파송되어 예수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인도해 가지면서 성령의 능력으로 채워 쓰실만한 그릇으로의 자격이 인정되어졌기 때문에 그들의 이름을 지명하여 선교사로 세우라 하셨던 것입니다.

이에 이들은 다시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그것은 이들이 성령의 능력이 은사와 영력을 충만히 받아 파송되어야 죄악된 세상 속에서 영적인 승리를 할 수 있고 복음화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3절에서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냈다고 했는데, 안수(오비디언)라는 말에는 ‘하나님이 임하신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사도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한 내용 중에 “네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의 회에서 안수 받을 때에 예언으로 말미암아 받은 것을 조심 없이 말며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진보를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게 하라 네가 네 자신과 가르침을 삼가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네 자신과 네게 듣는 자를 구원하라(딤후 4:14-16)한 것으로 보아 안수라는 것이 그저 손만 얹었다 내리는 것이 아니라 목사를 통해 채워 역사하는 성령의 능력이 안수함으로 받는 사람에게 전달되어 능력을 채워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안수 받는 사람이 하나님과 본인 사이에 가리워진 것이 없어야 합니다.

안디옥 교회는 영적인 교회였기 때문에 그들은 “우리에게 일거리를 주옵소서”했고 영적인 선교 사업을 일거리로 주셨더니 다시 그들에게 영력을 충만하게 채워서 진리와 성령으로 완전무장 시켜 보내야겠다고 계속해서 금식기도를 했으며, 바나바와 사울에게 안수하여 그들이 기도해서 얻어진 영력을 두 사람에게 가득 채워 영적으로 완전무장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온 교회가 합심하며 부르짖는 기도의 결과였습니다. 이처럼 바나바와 사울은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그 인도하심대로 선교사로서의 발걸음을 내딛게 된 것입니다.

한국교회가 근간에 선교라는 이름하에 많은 선교사들을 파송했지만 현장에서 선교실적을 이루어 내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것은 기도하는 선교사가 아니었고 파송한 교회에서도 우리 교회도 선교한다는 교회적 명분만으로 내세운 선교였다는 것입니다. 선교하는 교회 입장에서 재정대책도 중요하지만 인재선별은 더욱 중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선교사는 투철한 사명감과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갖춰진 은사와 영력이 필요합니다. 말은 그럴듯하게 잘 하지만 그들이 선교하는 실상은 전혀 아니라고 볼 때 아무리 재정적인 지원을 충분히 해준다 해도 그곳에서는 선교에 대한 실적과 성과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선교사의 길은 하나님이 예비하셨고 성령이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하시면서 말씀으로 더불어 이적과 기사를 나타내시고 온갖 감동과 능력, 확신으로 역사하시기 때문에 회개하는 사람은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바나바와 사울은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했습니다. 그러다 바보에 이르러 바에수라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 박수를 만났습니다. 이 사람은 그 지역 총독인 서기오 바울을 등에 업고 여러 사람들을 속여 먹고 살아왔습니다.

총독 서기오 바울은 지혜있는 자로 바나바와 사울이 전하는 말씀을 듣고자 했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그동안 서기오 바울을 등에 업고 살아왔던 박수는 그가 그 말씀을 듣고 진리를 깨달아 회개하게 되면 자신의 신세는 끝나는 것과 같아서 총독이 바나바와 바울을 만나지 못하도록 훼방함으로 믿지 못하게 했습니다. 이것을 알게 된 사도 바울은 성령이 충만하여 그 박수에게 “모든 궤계와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여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네 위에 있으니 네가 소경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두움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행13:10-11)”했습니다. 이것은 악령과 성령의 대결이며 선교를 하면서 겪게 되는 절실한 상황입니다. 이 대결에서 누가 승리하느냐에 따라 그 지역을 지배하는 영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무당 박수는 바울의 말이 끝나자마자 눈이 멀었습니다. 이로써 바보라는 지역에 복음화의 기쁨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옆에서 그것을 지켜본 총독은 그동안 무당 박수의 신을 믿고 살아왔는데, 마음을 돌려 주님의 말씀을 기이히 여기며 주님을 따르게 되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어린 자녀들을 키우는 과정에서 경쟁의식이 있어야 성장하고 발전해가는 것을 기대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학생들의 입시경쟁, 기업간의 경쟁, 생존경쟁은 자신이 살기 위해 상대방은 죽일 수 있어야 한다는 생각에까지 미치도록 극악무도해져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쟁의 목적은 이기인데 있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승리는 다릅니다. 영적으로, 성령으로, 진리로 이기는 믿음은 요한복음 16:28-33에 “내가 아버지께로 나와서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지금은 밝히 말씀하시고 아무 비유도 하지 아니하시니 우리가 지금에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지 않는 줄 아나이다 이로써 하나님께서 나오심을 우리가 믿삽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보라 너희가 다 각

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시니라”하심과 같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셨고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그 사명을 온전히 완수하신 후 아버지께로 돌아가신다는 것입니다. 즉, 십자가 형틀에 피를 흘리고 죽으실 것과 예수님이 잡혀 가시게 되면 제자들은 다 각각 흩어지게 될 것을 예언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인들의 손에 끌려 다니며 매를 맞고 수모를 겪습니다. 십자가 형틀에 힘없이 묶여 죽임 당하신 것이 우리가 보기에는 실패같이 보이지만 그것은 이기기 위하여 거쳐야 할 싸움의 과정이었음을 누가 알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을 한꺼번에 구속해 주시기 위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이 죽음은 수천, 수만의 하나님의 새로운 아들, 딸들을 해산하는 놀라운 은혜의 과정이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낮아지는 것 같으나 높아지고, 지는 것 같으나 이기고, 부끄러움을 당하는 것 같으나, 훗날 영광의 주인공으로 되어지는 이 진리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대의 우리도 복음을 받고 하나님 진리 안에 거하여 성령의 도구로 사용되어진다면 우리를 통하여 악령의 세력은 발붙일 곳을 얻지 못할 것입니다. 마귀는 예수님이 없는 곳에 자리를 잡습니다. 인류복음화가 확장되어 갈수록 마귀가 발붙일 곳은 점점 더 줄어들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은 우선적으로 여러분들의 가정을 진리와 성령으로 복음화 시키는 역사를 기대하는 기도를 최우선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속해 있는 구역식구들을 복음화 시키기 위해 기도하시기 바라며, 지역사회를 복음화 시키기 위해 영적으로 이기는 믿음으로 무장하시기 바랍니다.

성은교회 장재호 목사 TV / RADIO / 신문 / 인터넷 동영상 설교

한국 선교 설교			
TV 한국 방송 설교		한국 신문 설교	
CBS TV	목요일 오후 2시	크리스천 투데이	7면 설교 / 동영상 · 인터넷신문 설교
CTS TV	금요일 오전 6시	경북 기독교 신문	3면 설교
		기도원 연합신문	3면 설교
해외 선교 설교			
TV 미국 방송 설교		라디오 미국 방송 설교	
COX TV 워싱턴DC	화요일 오후 6시 토요일 오전 7시	목요일 낮 12시 주일 오후 10시30분	AM1540 라디오 코리아 주일 오전 7시30분 / 동영상 설교 제공
CTS TV	수요일 토요일	서부 오후 4시30분 / 동부 오후 7시30분 서부 오후 6시 / 동부 오후 9시	AM1590 시카고 기독교방송 월요일 오전 11시 20분
미국 신문 설교			
기독교일보	5면 설교	온라인 칼럼 설교	AM1190 LA 미주 복음방송 월요일 오후 5시 / 하와이 현지시간 오후 5시
	인터넷신문 설교	오프라인 칼럼 설교	AM1310 기본소리방송
크리스천 헤럴드	7면 설교	온라인 칼럼 설교	화요일 오후 7시30분 금요일 오후 2시30분

지구촌 어디서든 YOU TUBE에서 "장재호 목사" 를 검색하면 동영상 설교들을 선택시청 가능합니다.

提供 국제성은복음선교회

2014 미주기독교대학박람회

미주장로회신학대학교
 해외한인장로회 총회 직영신학원
 (한국 장로회 통합측 목사고시, 안수가능)
 I-20발행 및 각종 장학제도

15605 Carmenta Rd, Santa Fe Springs, CA 90670
 Tel. 562-926-1023, 4691 Fax, 562-926-1025
 www.pts.edu

FULLER THEOLOGICAL SEMINARY
플러신학교 선교대학원 한국학부

135 N.Oakland Ave. pasadena, CA 91182
 Tel. 626-584-5574 http://korean.fuller.edu

호라이즌대학교
 학위취득 과정 및 학생모집 학과
 학사: 신학/ 상담학
 석사: 신학/ 목회학/ 상담학
 박사: 신학/ 상담학

CA 주정부 교육국 BPPE 인가
 연방정부 승인 SEVIS I-20 자체 발행
 520 S.La Fayette Park Pl. #411 LA, CA 90057
 Tel. 213) 736-5000 Fax. 213)736-5115

복음대학교 EVANGELICAL UNIVERSITY
 TRACS 정회원 인증
 특전: Sevis I-20 발행/ 선교사 장학금 및 각종 장학제도 있음
 학사과정: 성경학 학사 (B.A. in Biblical Studies)
 석사과정: 목회학 석사(Master of Divinity)
 종교학 석사(Master of Art in Religion)

2660 W.Woodland Dr., #200 Anaheim, CA 92801
 Tel. 714-527-0691(0692) Fax, 714-527-0693
 www.evangelia.edu info@evangelia.edu

Southern California Church of Glory
 This is the land sheathed on
 We want to establish a postsecondary school
 Doing Business As
Puritan Reformed University
 520 S. ...
 Te 213 38 ...
 As of January 2014
 www.mycyu.us

솔로몬대학교
 땅끝까지 제자를 삼아 복음을 전하자 (마태복음28:18-20)

총장: 백지영 박사 부총장: 브랜트 프라이스 박사
 3921 Wilshire Blvd. #400 Los Angeles, CA 90010
 Tel. 213-381-7755 Fax, 213-381-5055
 http://solomonuniv.org/

AMERICAN BAPTIST SEMINARY OF THE WEST, BERKELEY, CA
 L A Campus 목회학 박사과정
 (매년 1, 6월 통역제공, GTU 와 ATS 정회원)

Dr. Hoi Chang Kim: (213) 268-9367
 hoichangkim@hanmail.net
 Dr. Hyo Shick Pai: drhyopai@gmail.com
ABSW President: Dr. Paul Martin www.absw.edu

미주대한신학대학
 개혁주의에 기초한 성경해석과 성경에 대한 종합적 사고능력 배양,
 교회 역사와 신학에 대한 구속사적 안목의 정립,
 말씀을 실천하는 신실한 주의 종 양성,
 세계 복음화를 위한 영적인 리더십의 준비.

1325 12th Ave., Los Angeles, CA, 90019
 Tel. 323-731-9819

코헨대학교&신학대학원
 With the world!
 To the world!

17002 S.Prairie Ave. Torrance, CA 90504
 Tel. 424-257-8176 / Fax, 424-257-8136
 www.cohenuniversity.ac

캘리포니아 두란노 대학 신학대학원
 목회학, 신학, 철학박사 California Tyrannus University
 BPPE Ed, code 94874, Sc code 22426
 CEO 학장 김호 박사

1008 S. Kingsley Dr. Los Angeles, CA 90006
 Tel. 213-507-1933

미주충신대학교 CHONG SHIN UNIVERSITY IN USA
 개혁주의 신학의 전통을 바탕으로 하나님의 소명을 받아
 21세기 교회와 세계 선교 사명을 이끌어 갈
 사역자들을 양성하고 있습니다.

이사장 김연도 박사(D.P.M.) 총장 김근수 박사(Th.M., Ph.D.)
 2975 Wilshire Blvd.#300, Los Angeles, CA 90010
 Tel: 213-487-1010 e-mail: info@chongshinusa.edu
 www.chongshinusa.edu

미주성결대학교
 한국성결교회 100년,
 미주성결교회 30년,
 미래를 책임지는 미주성결대학교!

1818 S. Western Ave. #409 Los Angeles, CA 90006
 Tel. 323-643-0301 Fax, 323-643-0302
 www.aeui.org

크리스천 자녀를 위한 골프 . 성경교실

저렴한 비용으로 골프와 성경공부를 함께 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

성경공부를 통해 영성과 인성교육을 하며, 골프를 통해 집중력과 체력향상을 시켜줍니다. 귀한 자녀에게 이 두 가지를 함께 가르치는 전문인에게 믿고 맡겨주십시오. 달라지는 자녀의 모습을 보게 되실 겁니다.

*** 픽업가능**

- 성인을 위한 무료 골프교실도 오픈합니다. (성경공부 필수)
- 문의 : 최 제이콥 Professional (310-598-0746)
- Email : mrjacob601@hotmail.com

<최 제이콥>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New Bridge University Golf Management
The Reformed University 대학원
Dae Han Theological Seminary, U.S.A 스포츠선교학 박사

선교하시는 하나님의 아픈 마음



민종기 목사
충현선교교회

여 떠난 자신의 아내를 찾으려는 하나님의 애절한 부르심입니다.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 하리니 나의 진노가 그에게서 떠났음 이니라"(호 14:4). 이 회복을 위하여 우리를 이시대의 호세아로 부르십니다.

호세아서를 통하여 나타난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를 기다리는 사랑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을 떠났어도 다시 사랑하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타락한 아내를 향한 하나님의 마지막 표적이자 최고의 표적입니다. 사랑의 예수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선교를 통하여 애뜻하게 도전하시는 것 같습니다.

"내가 너희를 죽기까지 사랑하노라. 나의 마음에는 너희밖에 없다. 내가 하나님이라도 너희가 없으면 행복하지 않다. 내가 내 백성을 얼마나 사랑하느니 너희가 아느냐? 나는 다시 지참금을 가지고 나아가노니 내 찢어진 살과 그 사이로 흐른 언약의 피로 지블하라. 그것이 내 사랑의 최고의 징표 이니라. 너희들은 얼마나 존귀한 자인지! 나의 사랑을 깨달으라. 나를 받으라. 나에게로 다시 돌아오라. 너를 죽기까지 사랑한 자는 바로 나 나사렛 예수이다!"

엘의 문화 속에 가득하였습니다. 바알을 섬기는 일은 그제사 자체가 음란하였고, 백성들은 죄짓는 재미가 없는 하나님께로부터 돌아서서 세상 향락을 즐겼습니다.

"이스라엘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호 14:1). 상한 마음을 가진 남편 되신 하나님은 집 떠난 아내 이스라엘을 애타게 부르십니다. 하나님은 다시 장가들겠다고 하십니다. 내가 이미 지참금을 지불하고 데려왔던 아내지만 이제 빼앗겼으니, 다시 지참금을 지불하고 데려와 '처녀에게 장가드는 것처럼 결혼하겠다' 합니다.

이 간절한 사랑으로 잃은 아내를 찾으려는 마음이 바로 하나님의 선교하시는 마음입니다. 선교는 세상과 짝

관상, 사주팔자에 있는 역설과 자가당착



제이슨 송 교장
새연약사립학교

해 사주팔자를 알아보고, 타로 카드의 그림을 분석해 달라고 한다. 점쟁이나 관상가는 운명을 알려주는 것과 더불어 운명을 바꿀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며 복채를 받는다. 점쟁이나 점쟁이를 찾는 자나 둘 다 운명을 믿지만 그 운명을 바꿔보려고 한다는 것은 잘못된 결론, 역설, 그리고 당착어법이라 하겠다. 그렇기에 이런 비논리적이고 비지성적이며 비성서적인 운명론, 관상, 사주팔자, 타로는 100% 거부해야 한다.

그런데, 어떤 이는 기독교에도 구원에 관해 예정설(predestination: 인간 개개의 구원은 행위나 노력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미리 정해 놓으신 것임)과 자유의지(free-will: 인간 자신이 하나님의 구원의 초청에 응하고 선택했음)에 대한 논쟁이 있다고 지적할 것이다. 그러나 이 두 이론은 하나님의 존재, 구원, 중생, 회심, 칭의, 성화 등 원초적인 것에 대한 반론이 아니다. 그리고 이 두 경쟁 이론의 공통적 결론은 하나님의 섭리를 인간의 머리로서 완벽히 이해할 수 없으며, 예정설이던 자유의지이던 기독교인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영혼구원을 위해 전도와 선교에 전력을 다 해야 한다는 것이다.

선하신 하나님, 평안과 장래의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 그러나 때론 고난을 통해서도 가르치시고 훈련시키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영혼구원에 힘쓰며 살아가자.

요즘 "관상"이란 영화가 상영된 후 상당히 많은 사람이 관상, 사주, 타로 등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한다. 팔자는 1년에 한국을 한두 번 방문하는데, 대학가, 쇼핑센터, 그리고 길가에 타로 카페 및 점치는 곳이 점점 많아지고, 또 그런 곳에 손님이 붐비는 것을 볼 때마다 안타까웠다. 물론, 이것을 한국인의 관습, 문화, 그리고 정서라고 넘어갈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과 성경을 믿는 기독교인은 관상, 팔자, 그리고 운명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 것인가?

관상, 팔자, 운명, 어떤 단어를 쓰든 지 결국 영문으로는 fate와 가까운 표현인데, 그 뜻은 "초자연적인 힘에 의해 결정되는, 사람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사건 및 삶"이란 뜻을 갖고 있다. 즉, 사람이 살아가며 겪는 사건, 만남, 성공, 실패, 업적 등 모든 것이 다 사전에 정해졌기에 바꿀 수 없다는 것이다. 이것을 운명론 내지 숙명론(fatalism)이라고도 한다.

그런데, 운명론의 가장 치명적인 약점은 바로 "누가" 또는 "무엇"이 사람의 운명을 정해놓았느냐는 것이다. 운명론을 믿는 종교인, 특히 애니미즘(animism: 원시종교, 정령신배)주의자는 자신이 믿는 신(神)이라 주장하지만, 비종교인은 자연이 정해놓은 것이라 주장한다. 즉, 운명론을 믿는 자는 운명을 주관하는 자 내지는 어떤 힘 또는 법칙이 있다고 가정한다. 그렇다면 그 자는 누구이며, 그 힘, 법칙은

누가 만든 것인가? 운명론은 이 질문에 명쾌하고 신빙성 있는 답을 제공하지 못한다.

더 나아가, 운명론을 믿고 안 믿는 것 자체에 선택의 여지가 포함되어 있기에 삶의 모든 결정, 모든 사건이 다 운명에 따른 것이 아님을 쉽게 증명할 수 있다. 영화 관상에서도 한 기생이 남자가 안 따른다고 했을 때 관상가가 그 기생의 코에 점을 붙여준 후 인생이 바뀌었다고 했다. 만약 그 기생이 그를 만나지 못했다면 "타고난 남자 복"을 누리지 못했을 것이다. 물론, 운명론을 믿는 자는 그 관상가와 기생의 만남도 다 정해진 것이라 할 것이다. 하지만 결국 이 건 답이 먼저인지 계란이 먼저인지 따지는 논쟁이요, 답이 없는 말 장난에 불과하다.

영화 관상에서 봤듯이 많은 사람은 자신의 운명을 바꿔 보려고 애쓴다. 그래서 관상가를 찾아가고, 점쟁이를 통

계속 자라가십시오



김영길 목사
감사한인교회

<다카모리 교회의 스포어 선생님이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듣고 애도함과 함께 그분의 행적을 잠시 소개하고자 마음이 들었습니다.

스포츠 선생님은 캐나다 태생 여자 독신 선교사님으로 2차 대전이 끝나고 맥아더 장군 시절 한참 일본이 어려울 때 선교차 일본에 오신 분입니다. 처음에는 먹을 것을 구하려 교회마다 사람들이 들어왔는데 경제가 활성화 되면서 사람들이 일본종교로 되돌아가고 합니다.

일본에 오신지 8년 되었을 무렵 성도가 두 분 생겨 목회를 시작하셨고, 빼어난 아소산 풍경을 배경으로 반평생 나그네들을 영접하며 그들과 때로는 몇 개월, 때로는 몇 년 함께 생활하였는데, 때로는 그 나그네들 중에 목사가 된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또 어떤 때는 남루한 걸인이 교회를 찾아 온 적도 있었는데 스포어 선생은 그 걸인을 껴안고 "내가 기다렸노라"하며 영접한 일도 있었다고 합니다.

우리 모두 새해에 예수님을 기쁘시게 할 일을 한 가지만이라도 찾아 실천해 보십시오.

입니다. 교육의 목표는 예수님을 기쁘시게 해 드리는 것입니다. 단순히 예수님의 이름을 반복하여 부르기보다는 한 번이라도 그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것이 예수님을 훨씬 더 기쁘시게 해드립니다. 예수님은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고 하셨습니다.(마가복음 3:35)

지난 주간에 일본 마츠우라에서 선교하고 계시는 정병면 목사님께서 보내주신 글의 일부를 여기에 옮겨봅니다.

우리들은 매일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가야 합니다. 자신의 모자람을 스스로 깨닫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성숙해가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너희가 어린 아이가 되어야 하리라"는 말씀 가운데는 변화와 성숙의 개념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베드로전서 3:18)

교육에는 목표와 과정과 평가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받아야 할 교육의 목표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입니다. 예수님의 은혜를 알 뿐만 아니라 그 은혜를 베푸시는 예수님 자신을 알아야 합니다. 교육의 과정은 예수님과 함께 사는 삶입니다. 성서적인 관점에서 "안다"는 의미는 "함께 산다"는 뜻입니다.

베드로가 말하는 지식은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면서 그를 더 깊이 알아가는 지식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의 의미

담임목사 청빙

시카고 북서 교외에 자리한
가나안 교회에서
2대 담임목사님을 모집한다



자격 조건:

1. 정규 신학대학원의 M.Div 학위 이상 취득하신 분
2. 한/영 이중언어 가능하신 분
3. 이민교회에서 담임 혹은 부목사 경험 있으신 분
4. 50세 미만

구비 서류:

1. 가족사진이 포함된 이력서
2. 신앙 및 목회 소명서
3. 설교테이프 2개
4. 추천서 2

제출 기한:

2014년 2월 28일까지
(제출된 서류는 반환치 않고, 개별 통지합니다)

보낼 곳

Canaan Church
1250 Radcliffe Rd. Buffalo Grove, IL 60089
전화(847)873-1380 팩스 847)873-1381



가나안 교회

1250 Radcliffe Rd. Buffalo Grove, IL 60089

세계 최초! 최대! 음이온 매트 초당 850만개 영구적 음이온 생산 초강력 음이온 매트!

Dr-NIONZ™ DOCTOR NEGATIVE ION ZONE

세계 최고 신비의 음이온 실리온 매트
음이온은 혈액을 정화하여 혈액순환을 높여줌
● 운동 원치 및 면역력을 강화함
● 스트레스와 긴장감을 완화함
● 피로회복과 집중력을 높여줌
● 1 초당 850만개의 음이온이 지속 영구적 생산되어 숨이나 복호수보다 많은 음이온을 제공합니다.

\$99 LARGE

100% Non-Toxic / Allergy Free Silicone / Washable

Dr-NIONZ™ Tourmaline Mat Generates 0.06 mA & FIR Far Infrared Rays.
● Approximately 3,000 negative ions per cubic centimeter per second.
● Total generates over 8.5 million negative ions per second.

Dr-NIONZ™ Daily health benefits:
● deep sleep ● backache & shoulder ● whiplash & TMJ ● leg cramps ● foot & ankle ● muscle cramp ● backache

숲속의 숙면

고가제품의 각종 건강 매트에서 효험을 못보신분.
Dr-NIONZ로 특별한 체험을 경험하세요.

1. 기억력이 좋아지고 집중력이 높아짐
2. 심하게 코고는 분 70~80% 감소 효과
3. 잠못자서 항상 피곤하신 분 숙면으로 단잠
4. 호흡 곤란으로 힘드신 분 편안해집니다
5. 전립선으로 화장실 자주 가시는 분 확실한 효과
6. 피곤함이나 집중력이 필요한 학생들이나 정신 노동 하시는 분에게 크게 도움을 줌
7. 귀취한 냄새를 제거해 줍니다
8. 스트레스나 통증 완화에 도움을 드립니다

히트 상품!

Dr-NIONZ™ DOCTOR NEGATIVE ION ZONE

세계 최고 신비의 음이온 매트
음이온은 혈액을 정화하여 혈액순환을 높여줌
● 운동 원치 및 면역력을 강화함
● 스트레스와 긴장감을 완화함
● 피로회복과 집중력을 높여줌
● 1 초당 850만개의 음이온이 지속 영구적 생산되어 숨이나 복호수보다 많은 음이온을 제공합니다.

\$60 MINI

100% Non-Toxic / Allergy Free Silicone / Washable

Dr-NIONZ™ Provides more negative ions than a forest of waterfalls.
● Dr-NIONZ™ Tourmaline Mat Generates 0.06 mA & FIR Far Infrared Rays.
● Approximately 3,000 Negative Ions Per Cubic Centimeter Per Second.
● Total Generates Over 4.5 Million Negative Ions Per Second.

Dr-NIONZ™ Daily health benefits:
● deep sleep ● backache & shoulder ● whiplash & TMJ ● leg cramps ● foot & ankle ● muscle cramp ● backache

Dr-Nionz 매트는 학생들에게 집중력을 높여 줌으로써 학습 효과를 향상 시킵니다.
진드기, 곰팡이, 알레르기를 제거하는 닥터 니온스의 음이온 매트로 숙면을 즐기세요!!

무독성. 무취. 부작용 없음. 최고급 음이온 팔찌의 150배 음이온 발생
단 한번 구입 \$60 / \$99 평생 50년 이상 사용하실 수 있는 음이온 매트.

닥터-니온스의 강력한 음이온은 탁한 혈액을 맑게하며 혈관과 실핏줄을 확장시킴으로써, 혈액 순환을 높여줍니다.
엔돌핀과 NK 세포를 내보내도록 도움을 주며 암 예방과 억제에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산성화된 체질을 약 알칼리화 하는데 도움을 주며 심근경색, 치매, 중풍과 같은 치명적인 병으로부터 자유로워지도록 도움을 드립니다.
닥터-니온스의 강력한 음이온 매트 사용은 자연 숲 속이나 폭포수에서 숙면을 취하는 것과 같습니다.

Dr-Nionz 사용 후 날부터 머리가 맑아지고 숙면을 취하고 자궁수축과 호흡이 편해졌습니다. (사용 2개월, 여) 60대 초반 김정은

많은 건강 매트 사용에 보았지만 이렇게 효능있는 확실한 제품은 처음입니다. 전립선 때문에 잠자는 동안 화장실을 다섯 여섯번씩 다녔지만 지금은 한 두번정도. 잠자리와 호흡이 아주 편해졌습니다. (사용 1주일, 남) 70세 정재용

손자가 코를 심하게 골아 잠을 잘못 잤는데 Dr-Nionz 사용 후 코를 아주 적게 골며 잠을 잘 잤습니다. (사용 1주일, 여) 80세 복포 할머니

아내가 밤이면 네다섯번 잠 깨 숙면을 취하지 못했는데, 이젠 폭잠 수 있어 행복합니다. 그리고 본인은 공을 차다 허리를 약간 다쳤는데 Dr-Nionz을 사용한 다음날 바로 숙면과 함께 허리가 나아졌습니다. (사용 2달, 남) 50대 글렌델 브레드

Dr-Nionz 사용 후 날부터 심하게 골던 코가 80% 정도 감소하고 숙면을 하고 있습니다. (사용 2달, 남) L.A David Lee

아내가 밤이면 종아리에 쥐가 자주나서 고통을 많이 받고 있던 중 Dr-Nionz 매트 사용 후 쥐 나는 것에서 해방되어 아주 기쁘고 보너스로 코고는 것도 많이 감소하였으며 본인은 숙면을 취하며 기억력과 집중력이 향상 되었습니다. (사용 2달, 남) L.A 고윤기

추천 1: 음이온이 가장 많이 나오는 Dr-Nionz 매트로 일주일 정도 사용 하였는데 숙면도 되고 만성 피로도 점점 좋아짐을 느끼고 있습니다. Dr-Nionz 추천합니다. (한의사 원장 이은희)

추천 2: 현대인이엔 음이온이 부족하여 스트레스와 불안 불면 그리고 치매 중풍 뇌졸중등의 치명적인 병이 많아졌습니다. 초강력 음이온 Dr-Nionz의 음이온 자연 자유 법은 건강에 큰 도움이 되기에 강력 추천합니다. (한의학 박사 원장 조재범)

그동안 수많은 음이온 제품들이 있었으나, 그 효과를 보신분들은 많지 않습니다. 기존의 (팔찌, 매트, 벨트, 팬티, 여성 속옷 (브라 or 코르셋) 음이온 생리대 등 음이온 발생량이 지극히 적기 때문에 그 좋은 음이온의 효과를 누리지 못하셨을 것입니다. **무료로 음이온 제품들을 측정해 드립니다.**

니온스 음이온 팔찌

업계 최고의 품질 보증!

강력한 음이온 방출
최초 3D 입체형 디자인

\$20 ONE 팔찌
\$22 양편 (TWO TONS) 팔찌

11 컬러 3 사이즈

1. 최고 수치의 음이온 방출.
2. 입체형으로 통풍이 잘 되며 습하지 않고 가볍지 않은 차별화된 디자인
3. 포장 법을 준수하여 과대 포장을 하지 않고 소비자를 위하여 가격을 확실하게 낮추었습니다.

카멜레온 신비의 음이온 핸들커버

강력 음이온 팔찌보다 32배 음이온 방출!

COMFORT POWER GRIP

\$30

세계 최초 특허품
이런 분들께 특히 좋습니다

- 졸음 운전을 자주하시는 분
- 운전중 피곤하신 분
- 어깨나 팔이 아프신 분
- 손 관절로 인하여 아프신 분
- 차에 찌든, 담배 냄새 제거
- 운전중 집중력 강화

안전 운전자의 필수품!

5 year WARRANTY 명품 FUJITA 만의 강력한 특성!

독일 최고의 엔지니어링 시스템과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제작됨

전자파 없는 원적외선 온열시스템

혈액순환과 피로 회복에 최고!
면역 강화에도 크게 도움이 됩니다

Heating

양 팔과 양 발을 동시에 지압

3단 강약 조절을 선택할 수 있음!

Zero Gravity

머리 뒷골 및 머리 안마를 시원하게 함

세계 유일의 머리 안마 시스템!
후지타만의 완벽한 기능

허리 디스크, 좌골 신경통 교정에 최고!

세계 유일한 발바닥 롤러 마사지 시스템

발바닥이 무척 시원해요!

전문 타이 스트레칭!

후지타만에 완벽한 기능
차별화된 안마에 대만족!

에어 전신 스윙 안마

환상적 어깨 3 회 10초씩
허리 3회 60초씩

풀옵션!
머리부터 발 끝까지

FUJITA

KN9003 / 2013 최신행!
BEST SELLER! 소비자 만족 1위

7~8 천불 상당의 타사 마사지체어와 비교 해 보세요!!

품질은 최고, 가격은 정직한 절반값!! Reg. \$6,499.00

SALE \$4,200 +Tax

LA카운티 문장 속 십자가가 10년 만에 재삽입

미국사회에 정교 분리 논란 일으킨 대사건 로마 여신은 제거, 십자가는 회복

근 10년 만에 LA카운티의 공식 문장(Seal)에 십자가가 재삽입 된다. 카운티 문장은 카운티의 모든 공문서, 공공 건물 및 깃발, 카운티 소속 차량 등에 새겨지는 매우 중요한 상징이다.

이 LA카운티의 문장은 2004년 미국 사회에 거대한 정교 분리 논쟁을 불러온 바 있다. 1957년부터 LA카운티가 사용해 온 이 문장에는 십자가가 새겨져 있었는데 미국시민자유연맹(ACLU)이 이것을 정교분리 위반이라고 주장하며 소송 위협을 했다.

당시 온갖 논란 끝에 카운티는 결국 이 문장에서 십자가를 제거하기로 결정하고 문장의 디자인을 바꾸었다.

원래 문장의 디자인 중앙에는 로마 신화 속의 과일의 여신 포모나가 태양 해안에서 샌가브리엘 산맥에 떠오르는 태양을 배경으로 서 있었다. 그 왼쪽에는 과학과 공학 산업을 상징하는 삼각자와 측정양각기, 1542년 샌페드로 항구로 들어온 배 스페니시 캘리온, 어업의 상징하는 참치 그림이 있었다. 오른쪽에는 석유 산업을 상징하는 오일타워, 문화 산업을 상징하는 할리우드 보울, 축산업을 상징하는 펠레트 황소가 그려져 있었다.

당시 문제는 할리우드 보울 위에 있던 십자가였다. 기독교계와 미국 보수층은 이 십자가가 캘리포니아 역사의 상징이므로 종교성과 관계없이 반드시 문장에 새겨져 있어야 한다



LA카운티 문장. 왼쪽은 1957년부터 2004년까지 사용된 문장이며, 오른쪽은 2004년 새롭게 디자인되어 현재까지 사용되어 온 것이다.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반기독교 인권단체의 소송 위협에 LA카운티가 굴했지만 이 과정도 쉽지 않았다. 이를 결정하는 슈퍼바이저 위원회에서는 3대2로 가까스로 표결이 됐으며 반대 소송도 끊이지 않았다. 결국 2007년 연방대법원이 나서서 카운티의 손을 들어준 후에야 겨우 보수층의 반발이 사그라들었다.

이 과정에서 2004년 카운티는 문장 자체를 아예 새롭게 디자인했다. 왼쪽은 대동소이 하지만 중앙에는 포모나 대신 미국 원주민 여성이 들어갔다. 오른쪽은 가운데 할리우드 보울에서 십자가를 빼고 이를 제일 위로 올렸으며 오른쪽 위에 있던 오일 타워를 지우고 샌가브리엘미션을 가운데에 넣었다.

샌가브리엘미션은 캘리포니아 역사를 상징하는 스페인계 가톨릭 수도



원으로 1771년 원주민 선교를 목적으로 설립됐다.

2004년 당시 이 문장 속 샌가브리엘미션 그림에는 십자가가 없다. 왜냐면 샌가브리엘미션 지붕 꼭대기의 십자가가 1987년 지진으로 인해 파손된 상태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2009년 샌가브리엘미션이 지붕 복구 작업을 하며 십자가도 재건했고 당연히 문장 속의 샌가브리엘미션도 실재를 모델로 하고 있기에 십자가가 재삽입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 것이다.

7일 카운티 슈퍼바이저위원회(Board of Supervisors)는 3대 2로 샌가브리엘미션의 실제 모습을 구현하기 위해 카운티 문장 속 샌가브리엘미션 그림에도 십자가를 복원해야 한다고 의결했다. 미국시민자유연맹은 이 문제를 정교분리라며 반대하고 있다. 김준형 기자

미국 교회 2014년 키워드 대형교회 · 소그룹 · 사회참여

밀레니얼 세대 성향 반영된 것으로 분석

미국 최대 교단인 남침례교회(SBC) 산하 기독교 전문 리서치 기관인 라이프웨이의 대표 톰 레이너 박사가 최근 한 칼럼을 통해 총 14가지로 미국 교회의 유행어 변화 양상을 예측했다.

1. 작은 교회, 큰 교회로 인수·합병 증가= 가장 큰 요인은 인건비다. 많은 작은 교회들이 더 이상 목회자나 직원들에게 사레비나 수당을 지급할 수 없다고 말한다.
2. 교단 구조 축소될 것= 많은 교단들이 소속 교회 수가 감소함에 따라서 작은 구조로 바뀌어가고 있다.
3. 개종률 감소= 전도가 힘들어지고 있고 비신자가 기독교인이 되는 수도 줄고 있다.
4. 대형교회 더 늘어= 대형교회의 증가가 뚜렷하게 드러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계속될 것이 분명해 보인다.
5. 더 많은 교회들이 통일된 예배 스타일을 추구= 지난 몇 년간 교회들 사이에서는 다양한 예배 스타일의 추구가 유행이었다. 그러나 올해에는 이와 반대로 통일된 예배 스타일을 추구하는 경향이 일어날 것이다.
6. 교회 멤버십에 대한 더 높은 기대 생성= 교회는 과거 수십년간 교인들의 멤버십에 대한 낮은 기대를 유지해 왔다. 그러나 올해는 더 많은 교회들이 멤버십에 대한 높은 기대를 강조하는 경향이 생겨날 것으로 보인다.
7. 정부 제재로 인해 교회 부지 확보에 부담 증가= 지역 교통 혼잡을 막기 위한 정부 정책의 일환으로 인해 앞으로 교회들이 부지를 확보하고, 넓히

고, 건축물을 세우는 일이 더 어려워질 것이다.

8. 대형교회를 작은 교단들과 경쟁= 많은 대형교회들은 담임목사를 중심으로 지도목사와 각 캠퍼스를 담당하는 목사들이 있다. 이들은 교회를 위해서 모금하면서도 소그룹을 위한 자료를 집필하고, 또한 각자가 독립된 교회 개척 계획을 세울 것이다.
9. 예배 장소는 축소지향적= 소규모 모임이 활성화되면서 예배를 드리는 건물도 보다 소규모로 건축될 것이다. 또한 많은 교회들이 기존 건물들을 축소하게 될 것이다.
10. 소그룹 중요성 더욱 강조= 2014년은 약 20년 가까이 걸쳐 일어난 '소그룹 혁명'이 결정적인 변화를 맞이하는 해가 될 것이다.
11. 목회자 재직 기간 더 늘어날 것= 목회자가 현재 속한 교회에서 재직하는 기간이 지금보다 더 길어질 것이다.
12. 사역훈련 기관으로서의 지역교회 역할 확대= 과거에는 사역훈련의 기능은 성경대학이나 신학교에 한정되었다. 그러나 올해는 더 많은 교회들이 이러한 교육기관들과 협력하여 훈련을 제공하게 될 것이다.
13. 교회의 사회적 참여 증가= 많은 교회들에서 교인들이 사회 내에서 강력한 존재감을 통해 사람들에게 복음의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
14. 교육·설교 담당 목회자 수가 증가= 큰 교회들에서는 한 명 이상의 교육·설교 담당 목회자를 두는 것이 일반적인 경우가 됐다. 순현정 기자

北 12년째 최고 박해국 불명예... 성도들 정치범 수용

오픈도어선교회 세계박해순위 발표, 대부분 이슬람 국가

전세계에서 기독교인들이 가장 살기 힘든 국가로 북한이 또다시 선정됐다. 벌써 12년째다.

박해 받는 교회와 기독교인들을 도와 온 국제선교단체인 오픈도어선교회(이하 오픈도어)가 8일 발표한 2014년 세계박해순위(WWL, World Watch List)에서 북한이 1위를 차지했다. 오픈도어는 매년 초 기독교인들의 신앙의 자유가 제한되고 박해 지수가 높은 50개 국가를 발표해 왔다.

오픈도어는 “북한에는 약 5만~7만 명의 기독교인들이 정치범 수용소에 갇혀 있다”며 “성경을 소지하다 발각된 이들은 오랜 기간 징역생활을 하거나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고 북한의 박해 실상을 공개했다.

지구상에 얼마 남지 않은 공산국가 중 하나인 북한은 모든 종교를 반대하고 주민들에게 김일성 우상숭배를 강요하고 있다. 특히 기독교인들에 대한 북한 당국의 체포, 구금, 고문, 공개 처형 등 심각한 박해가 지속돼 왔다. 오픈도어는 현재 20만 명의 지하교인들이 박해 가운데 숨어서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중국으로 나온 북한 주민 및 탈북자들이 복음을 접하고 기독교인이 되는 경우도 늘고 있지만, 탈북자 출신 지하교인들에 대한 단속과 적발, 처형은 더욱 강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또 지난 2년 간 탈북자 사역을 하는 기독교인들이 살해당하거나 납치되는 등 이들에 대한 위협도 가중되고 있다.

이번 세계박해순위 최상위 10개국에는 북한 외에도 소말리아(2위, 작년 5위), 시리아(3위, 작년 11위), 이라크(4위, 작년 4위), 아프가니스탄(5위, 작년 3위), 사우디아라비아(6위, 작년 2위), 몰디브(7위, 작년 6위), 파키스탄(8위, 작년 14위), 이란(9위, 작년 8위), 예멘(10위, 작년 9위) 등이 포함됐다.

오픈도어는 “북한을 제외한 9개 국가가 모두 이슬람 세력이 강한 국가”라며 “세계박해순위 50개국 중 36개국에서 이슬람 극단주의에 의한 기독교 박해가 발생하는 등 이슬람 보수주의는 지난 15년 간 가장 큰 박해의 요인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시리아와 파키스탄은 처음으로 10위 안에 들었다. 시리아는 3년이 다되어가는 내전으로 박해 상황이 악화됐

으며, 파키스탄에서는 급진적인 무슬림들이 기독교인들에게 폭력을 행사하는데도 정부는 그들을 제어할 능력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사하라 사막 이남의 아프리카 국가인 소말리아는 처음으로 2위에 올랐으며, 수단도 11위(작년 12위)에 오르는 등 아프리카 국가들이 세계박해순위국의 상당 수를 차지하는 현상도 보이고 있다. 아프리카 '사헬 벨트'(Sahel Belt, 사하라 사막 남쪽 가장자리 지명으로 세네갈 북부·모리타니 남부에서 말리 중부·니제르 남부·차드 중남부까지 이르는 지역)에서 남쪽으로 확장하는 이슬람 극단주의와 북쪽으로 확장하는 기독교가 충돌하고 있기 때문이다.

오픈도어는 “중앙아프리카공화국(16위)은 새롭게 순위에 들어왔다”며 “셀레칸 반군 세력에 의해 기독교인들이 끔찍한 폭력을 당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외에도 스리랑카(29위), 방글라데시(48위)가 새롭게 50위 안으로 들어왔으며, 콜롬비아(25위, 작년 46위)도 눈에 띄게 박해 순위가 상승했다.

보고서는 긍정적인 소식도 전하고 있다. 아제르바이잔(작년 38위), 키르키스탄(작년 49위), 우간다(작년 47위)는 50위 밖으로 밀려났다. 말리는 작년 7위에서 33위로, 탄자니아는 작년 24위에서 49위로 순위가 크게 하락했다.

세계박해순위는 한 사람의 기독교인이 신앙을 갖고 생활하는데 있어 자유 정도를 측정하고 있으며 개인, 가족, 지역, 사회, 국가와 교회 생활 등 5개 목록과 폭력 정도를 추가로 측정하고 있다. 올해는 정보 수집 및 계산 과정을 투명화하기 위해 세계복음동맹(WEA) 산하 기관인 종교자유국제연구소(IRF, International Institute for Religious Freedom)의 감사를 받았다.

복음주의 초교파 단체인 국제오픈도어의 사역은 1955년 브라더 앤드류가 폴란드에 고난을 당하는 기독교 공동체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가족 가방에 성경책을 넣어 철의 장막을 넘으면서 시작했다. 주로 복음의 제한지역에서 복음 때문에 억압과 박해를 당하는 그리스도의 교회를 섬겨 왔다.

이지희 기자

초기 이민자 봉사센터

미국 생활에 어렵고 답답한 것들이 있습니까?
한미 법률센터(초기 이민자 봉사센터)에서
전문 변호사 및 법무사, 세무사, 유학 전문가가 교민들을 위해
횡수에 제한없이 무료 상담을 해드리니 부담없이 이용바랍니다.

- 유학생(ESL 포함)전학 및 체류신분 변경
- 유학생의 학교생활 고민 상담(어려운점 및 문제점)
- 영주권 신청, F-1(학생), E-2(소액투자), R-1(종교)및 종교이민

- 아파트 분쟁
- 소액재판
- 민사소송
- 이혼
- 법인 설립
- 재정 보증

■ TAX & Accounting (세금 절약 방법 안내)

이민국 서류 거절시 수수료 전액을 즉시 환불해 드립니다.

www.migukguide.com

migukguide@gmail.com

문의: 213)272-7498

1300 W Olympic Blvd, #202 Los Angeles, CA 90015 (Olympic + Union에서 동쪽으로 4블럭)



기독교 미래학자 레너드 스위트 박사가 강연하고 있다.

오순절 교회의 급성장

기독교 제3의 물결

첫째 물결(가톨릭) 점증, 셋째(오순절) 급증, 둘째(개신교)만 잠잠

기독교 미래학자 레너드 스위트 박사(Leonard Sweet·美 드류대) 초창 '렛츠통스크립투라(Let's Tong Scriptura)' 세미나가 성경통독원 주최로 13일 서울 광장동 한강호텔에서 개막했다. 스위트 박사는 첫날 세미나에서 머릿글자 'R'과 '3'가지로 많은 부분을 설명했다.

스위트 박사는 "교회사를 통틀어 모든 부흥(Revival)과 개혁(Reformation), 혁신(Renewal)에는 반드시 세 가지 요소가 있었다"며 "이것이 바로 종교개혁에서도 일어났던 일"이라고 소개했다.

이 세 가지 중 첫째는 교회가 성경으로 돌아가는 것(Return to the Bible)이다. 둘째는 이 성경이 그 문화에 속한 언어로 읽히는 것(Read by thier Culture)이고, 셋째는 가장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발견하는 것(Rediscover Jesus Christ)'이다. 그는 "로프가 서로 꼬여 있을 때 가장 강력한 힘을 발휘한다. 이 세 가지는 서로 긴밀하게 엮여 있다"며 "이렇듯 서로 다른 두 가지를 보완하고 협력하면서 능력을 만들어내는 이 세 가지를 저는 삼위일체가 그러하듯 '성스러운 삼겹줄'이라 부른다"고 말했다.

스위트 박사는 "성경으로 돌아간다는 의미는 진정한 본질로 돌아가는 것"이며 "이것이 가장 진정한 의미의 창조성으로, 우리 자신의 창조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 원리에 들어가는 것"이라고 소개했다. "어쩌면 히틀러나 스탈린이 지구상 모든 사람들보다 창조적이었을지 모르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 속에 들어오지 못하고 자신들의 길로 간 것이 문제"라는 것이다.

그 시대의 언어로 성경을 읽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는 집에 돌 가구는 임의로 선택할 수 있지만, 우리들의 삶 자체가 우리가 사는 시대를 선택할 수는 없다"며 "우리의 소명은 시대와 함께 오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시대에 선택하신 섭리를 따라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것'에 대해 그는 "우리의 가장 큰 문제는 예수님 말씀을 진정으로 믿지 않고, 우리 생각과 계산대로 하려 하는 것"이라며 "여러분과 제가 해야 할 일은 예수님 말씀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좇아가는 것이고,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높일 수 있는지,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주인이 되시길 기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우리가 교회에 오는 것은 익숙하지만, 그리스도에게 가는 것은 익숙하지 않다"고 했다.

앞서 그는 기독교 2천년 역사 중 '세 가지 물결'에 대해 언급하면서, 종교개혁 500주년(2017년)을 앞두고 "과연 이를 어떻게 축하할 것인지, 축하하지 못할 상황이 되지나 않을지"를 우리가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가 말하는 '첫번째 물결(파도)'은 중세 시대(1054년) 동-서방 가톨릭 교회의 분리이다. 서방 교회는 로마 가톨릭, 동방 교회는 '동방정교회'로 알려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아르메니아 등의 오스독시 그룹이다. 이후 1517년 루터가 비텐베르크 대성당 앞에 '95개조 반박문'을 붙이면서 두번째 물결이 밀려왔다. 그는 "반박문을 문 앞에 붙였다"는 사람도 (편지) '부쳤다'는 사람도 있지만, 어쩌겠든 이 파도를 우리는 '개신교(protestantism)'라 부른다"고 설명했다.

세번째 파도이자 제3의 물결(the Thrid Wave)로 그는 1906년 이후 1백년간 계속되고 있는 '오순절 교파'의 성장을 꼽았다.

스위트 박사는 "개신교(개혁교회)가 존 웨슬리(감리회)의 전통과 만나게 된 것이 바로 오순절 교회로, 이 교파의 역사는 기독교 역사상 가장 성공적인 부흥의 역사로 기억된다"며 "1백년 전 시작된 이 새로운 물결은 기독교

세계에 엄청난 파장을 몰고 왔다"고 전했다. 전 세계 기독교인 중 25% 정도가 오순절 교회의 영향을 받고 있는데, 이것이 한 세기 만에 일어난 일이라는 것. 그는 "이슬람이 세계에서 가장 빨리 성장하는 종교라는데, 그렇지 않다"며 "여전히 기독교는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고 했다. 또한, "우리 앞에 놓인 이 세 가지 물결(가톨릭·개신교·오순절) 중 첫째 물결(가톨릭)은 조금씩 성장하고 있고, 셋째 물결(오순절)은 세계 곳곳에서 놀라운 속도로 발전하고 있지만, 둘째 물결(개신교)만 잠잠하다"며 "이 부분에서, 3년 후 말을 종교개혁 500주년에 우리는 과연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물어야 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오순절 교파의 성장'에 대해 "너무나도 엄청난 물결"이라며 "신학교에서 교수들은 (가난한 자들을 위한) 해방신학이나 자유주의 이야기를 좋아하지만, 정작 가난한 자들은 오순절 교회를 선택했다"고 진단했다. 가난한 이들은 (해방신학자가 말하는 '해방'의 의미로) 손을 드는 게 아니라, (은혜를 갈구하는 의미로) 손을 들고 있다는 것.

스위트 박사는 "전 세계 기독교의 균형추는 변동하고 있다"며 "자신있게 이야기하건대, 서구 기독교는 죽어가고 있고, 거대한 변화는 동방과 남반구에서 일어나고 있다"며, "기독교 하면 '서구'였는데, 이제 이 흐름은 아시아 동쪽과 남반구로 향하고 있다"며 "이것이 전 세계 기독교의 방향에 대한 큰 그림으로, 이는 서구에서 기독교가 죽어가고 있다는 면과 함께 흥미진진한 시대를 살고 있다는 면 두 가지로 볼 수 있다"고 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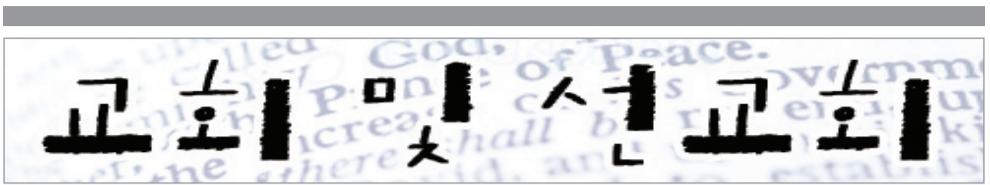
그는 "런던에 갔을 때 평일에는 웨스트민스터 사원에 2시간 30분간 줄을 서서 입장권을 구입해야 들어가 수 있었지만, 주말이면 시간에는 공짜로 들어올 수 있는데도 단 50여명만 앉아 있다"며 "관광지로는 찾지만 예배를 드리러 가지 않는 이것이, 우리에게 닥친 도전이자 위기"라고 덧붙였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5일간 매일 오전 스위트 박사가 'Bible and Semiotics(성경과 기호학)'를 주제로 성경에 대한 기호학적 접근, 성경의 이미지와 메타포, Oral Story & One Story 등을, 오후에는 조병호 박사(성경통독원)가 'Bible and TongStory(성경과 통(通)스토리)'를 주제로 바이블 토틀렉스, 제사장 나라와 하나님 나라, 신구약 중간사 등을 각각 강연할 예정이다.

성경통독원 측은 "이번 세미나는 종교개혁 5백주년을 몇 년 앞둔 시점에서 한국교회가 하나님 말씀인 '오직 성경'을 다시금 새롭게 다짐하고, 성경에 기록된 예수를 따르는 진정한 제자가 되기 위해 함께 뜻을 모으는 시간이 될 것"이라며 "또 교회의 권위는 '오직 성경'에서 나오고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오직 믿음에 의해 가능하며, 성도들 삶의 목표는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종교개혁의 대주제를 다시 상기하고자 세미나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레너드 스위트 박사는 현재 미국 뉴저지주 드류대학교 석좌교수와 오레곤주 조지포스 대학교 명예교수로 재직 중이며, 1995-2001년 드류대학교 교무부처장과 신학교 총장을 역임했다.

그는 500권 이상의 저서와 200여편의 논문, 1300여편의 설교문을 출간했으며, 한국에서는 <관계의 영성>, <의문을 벗고 신비 속으로>, <귀 없는 리더 귀 있는 리더>, <나를 미치게 하는 예수(이상 IVP)>, <교회 스타벅스에 가다(DMD)>, <미래교회 성공 키워드(땅에쓰신글씨)>, <모던 시대의 교회는 가라>, <세상을 호흡하며 춤추는 영성(이상 좋은씨앗)> 등이 유명하다.



LA 지역

한천영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9:00 어린이부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금)
Youth예배 오전 11:00 토요일합세배 오전 6:20

갈릴리선교회
함께웃고 함께우는 공동체
2212 S.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18
T. (323) 735-6412 / gmcchurhc.com

강진용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새벽예배 오전 5:30(화-금)
2부예배 오전 10:30 오전 6:00(토)
3부예배 오후 12:45 유초등부 오후 12:30
금요기도회 오후 7:00 중고등부 오후 12:45

갈보리민음교회
백천 세계 비전!
3300 Wilshire Blvd. Los Angeles, CA90010
T. (213) 365-8880 / F. (213) 365-8802

주일 오후 4시 새벽 오전 5:30(화-토)
저녁 오후 7:30(화,목,금)

엘리아 김 담임목사

나눔과 섬김의 교회
세상속에 나아가 나누고 섬기는 교회
978 S. Hoover St.#203 LA 90006
T. (213) 272-6031

1부예배 오전 8:00 성인 E모예배 오후 2:00
2부예배 오전 9:30 한어청년예배 오후 2:00
3부예배 오전 11:00 찬양예배 오후 3:30
4부예배 오후 12:30 새벽예배 화-토 오전 6시

박현성 담임목사

나성열린문교회
생명과 부흥이 풍성한 교회
1925 Wilshire Blvd, LA, T.(213) 383-2600 (213) 413-1600
임시예배처소 3119 W.6th, LA, CA 90020 laopendoor.org

1부예배 오전 7:45 E모예배 오전 11:30
2부예배 오전 9:30 새벽예배 오전 5:30(화-토)
3부예배 오전 11:30 수/금요일예배 오후 7:30

진유철 담임목사

나성순복음교회
성령충만으로 십자가의 능력을 증거하는 예배공동체
1750 N. Edgemont St., Los Angeles, CA 90027
T. (323) 913-4499 / F. (323) 913-4494

1부예배 오전 8:00 영어예배 1부 오전 9:00
2부예배 오전 10:00 2부 오전 10:00
3부예배 오전 11:45 금요일예배 저녁 8:00

나성한인교회
2241 N. Eastern Ave. Los Angeles, CA 90032
T. (323) 221-9531 / F. (323) 221-0345

1부예배 오전 8:00 대학부 오후 1:00
2부예배 오전 11:00 성경공부 저녁 7:30(목)
유초등부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금)
중고등부 오전 10:45 6:00(토)

김광삼 담임목사

나성제일교회
스망과 사랑이 넘치는 행복한 교회
213 S. Hobart Blvd, LA, CA 90004
T. (213) 388-7101

1부예배 오전 8:00 금요저녁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1부 오전 5:30
성경공부 오후 7:30(화) 2부 오전 6:30(화-금)
오전 10:30(수) 오전 6:30(토)

정우성 담임목사

남가주광염교회
말씀과 기도로 비스하는 은혜공동체
1153 Valencia st. Los Angeles, CA 90015
T.(213)598-0191

1부예배 오전 8:00 주일학교 오후 1:00
2부예배 오후 12:00 새벽예배 오전 6:00(화-토)
성경공부 주일오전 11:00

김요섭 담임목사

남가주리디머교회
세상을 축복하는 교회
1938 S.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18
T. (213) 215-8523 / scrdm.org

주일예배 오전 9:00 교회학교 주일 오전 9:00
E모예배 주일 오후 11:00 중,고등부 예배 주일 오전 9:00
청년부 예배 주일 오후 2:00 새벽예배 오전 5:30(화-금)
목요찬양예배: 목요일 오후 7시 30분

김경렬 담임목사

산타모니카한인교회
죽도록 섬기는 교회
1520 Pearl St., Santa Monica, CA 90405
T. (310)399-7949 / www.smkc.us

서건오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전 11:00 중고등부 주일 오전 11:00
금요일예배 오후 8:00 청년부: 주일 오후 1:30
새벽예배 화-토, 오전 6:00

새로남교회
말씀과성령으로 주의 뜻을 이루는교회
3407 W. 6th St 103 LA, CA 90020
T. (213) 384-0305 / www.gwcla.net

주일 예배 오전 11:00 삼일기도회 수요일 오후 7:30
찬양예배 오후 1:45 E.M.예배 주일오전 11:00

이영 담임목사

라성빌라델비아교회
하나님 중심 생활/ 말씀 중심 생활/ 교회 중심 생활
927 Bonnie Brae Street Los Angeles CA 90006
T. (714) 319-2234

김성광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후 2:00 금요일예배 오후 7:30
주일학교 오후 2:00

성재복음선교회
은 성도와 성령과 말씀으로 구원의 확신에 가하는 교회
520 S. La Fayette Park pl. #415 LA, CA
T. (213) 327-9200, T. (213) 598-9932

최운형 담임목사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수요일예배 오후 7: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예배 월-금 오전 5:30
주일 E모예배 오전 9:30 토 오전 6:00

세계선교회
하나님의교회, 사탄들의교회, 세상속의교회
927 S Menlo Ave, LA, CA 90006
T. (213) 388-1927, 388-2105

박승부 장로 17,27,37,47기 수료생 배출, 현재기 수료생 양성 중
-수기치료의료선교사 양성
-약품이나 기구없이 인간으로 각종 질병 치료하는 의술

세계의료선교사육성재단
2836 W. 8th st Los Angeles, CA 90005
T. (213) 381-7273 / (213) 605.2928

1부예배 오전 09:00 주일학교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예배 오전 5:30(화-금)
E모예배 오전 10:00

조인수 담임목사

씨니사이드교회
하나님을 기쁘게 주님의 소원을 이루어 예수 안에서 행복한 공동체
1183 S. Hoover St., Los Angeles, CA 90006
T. (213) 389-0691 / F. (213) 389-0694

이경애 목사, 이은우 목사
무료 사회복지 상담 및 대형 (정부 배너전 전방)
음식 보조 프로그램(Food Stamp), 메디칼, 임신부 메디칼

요한 선교회
gkal44 Yahoo.com Tel: (213) 703-6863
522 N Hobart Blvd Los Angeles CA 90004

1부예배 오전 8:00 영어예배 오전 10:00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3부예배 오후 1:30 새벽기도회 매일 오전 6:00

김세환 담임목사

엘에이연합감리교회
100년역사의 미국 본토에 세워진 최초의 한인교회
7400 Osage Ave. Los Angeles, CA 90045
T. (310) 645-3698 / F. (310) 645-3060

1부예배 오전 8:00 김혜성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10:00
3부예배 오전 11:30

영생장로교회
1829 S.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06
T. (323) 732-7356 / C. (818) 993-3574

류종길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9:00 금요찬양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금)
오전 6:00(토)

임마누엘선교회
초대교회의가정모임, 성경학교노년회, 만민제사장교회
1818 S. Western Ave., #200, Los Angeles, CA 90006
T. (323) 766-9922

1부예배 오전 8:00 3부예배 오후 1:00
2부예배 오전 10:30 수/금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예배 오전 6:00(화-토)

신승훈 담임목사

주님의영광교회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살고, 섬기고 사랑하는교회
1801 S. Grand Ave., Los Angeles, CA 90015
T. (213) 749-4500 / F. (213) 749-6700

대표 김갑선 목사 부서: Naturo pathy Clinic(월-금)
진료문의 213) 505-7067

지구촌 농업선교회
3000 W. 6th St. #309 LA CA 90020
T. (213) 505-7067

1부예배 오전 9:00 금요기도회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금)
중고등부 오전 11:00 오전 6:30(토)

이명수 담임목사

청운교회
신교에 흐름, 소.초.진 흐름, 바른교회관의 흐름
4465 Melrose Ave., Los Angeles, CA 90029
T. (323) 667-9920

1부예배 오전 8:00 E모예배 오후 2: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예배 오전 5:20(화-금)
월요일 예배 오후 2:22 오전 6:20(토)

김기섭 담임목사

LA사랑의교회
평신도를 깨우고 이단으로부터 지키고, 이단가정을 치유하며, 선교영광을 증진하는 교회
5100 Wilshire Blvd. Los Angeles CA 90036
T. (323)930-0011, (323)935-0011 / www.LASarang.com

1부예배 오전 8:00 금요찬양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예배 오전 5:30(화-토)
수요일예배 오후 7:30

강지원 담임목사

한우리장로교회
말씀과 예배가 살아있고 치유와 화해가 있으며 신도와 전도하는 교회
1932 10th Ave. Los Angeles, CA 90018
T. (323) 702-6709

미주한인의 날 기념주일 예배 확산되길



왼쪽부터 워싱턴교협 서기 이태봉 목사, 총무 박상섭 목사, 회장 최인환 목사, 미주한인전국재단 명예 회장 정세권 장로, 메릴랜드교협 회장 최정규 목사, 제1부회장 최영 목사.

워싱턴지역한인교회협의회(회장 최인환 목사)와 미주한인전국재단(총회장 이우호)이 1월 10일(금) 우레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미주한인의 날 기념주일이 미 전역으로 확대되어 한국 초기 교회에서 시작된 미주한 이민역사가 후손들에게도 잘 전승될 수 있도록 각 교회에 협력을 당부한다"고 전했다.

올해 이민 111주년을 기념하는 미주한인의 날 기념주일 합동예배는 1월 19일(주일) 오후 6시 30분 애난데일 소재 메시아장로교회(담임 한세영 목사)에서 열린다. 합동예배에서는 정인량 목사(워싱턴교협 증경회장)가 설교하며, 드보라 워싱턴스 선교단(대표 강정아 목사)이 특별출연한다.

미주한인전국재단 명예회장인 정세권 장로는 "미주한인교회총연합회, 워싱턴교협, 미주한인전국재단은 지난해 미주한인이민 110주년을 맞이해, '미주 4,300여개 한인교회가 매년 1월 13일 '미주한인의 날' 이후 첫 주일을 '미주한인의 날 기념주일'로 예배를 드려 한국 초기 교회에서 시작된 미주한 이민 역사를 후대들에게 교육하자'는 취지로 '미주한인의 날 기념주일' 제정을 결의한 바 있다"며, "이는 1902년 12월 인천내리감리교회 성도들(50명) 중심으로 한국인 102명이

미국 땅에 오게 된 것은 신앙적으로 타락해 가는 미국을 제2의 청교도 정신으로 재건시킬 영적 지도자로 한민족을 부르신 하나님의 섭리라고 믿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정 장로는 "특별히, 올해는 워싱턴교협과 메릴랜드교협이 함께 기념주일 예배를 드릴 수 있어 감사하다. 설교를 맡으신 정인량 목사님 또한 지난 2003년 워싱턴 DC에서 열린 한미동맹 50주년 기념 이민 100주년 기념 전국 만찬때 공동대회장을 하셨던 분이라의 미가 깊다"고 덧붙였다.

워싱턴교협 최인환 목사는 "미주한인 이민역사를 돌아보고 그 역사와 의미를 후손들에게 교육시켜 뿌리를 찾게 하고 정체성을 확립해 주는 것이 무엇보다 의미있다고 생각한다"며, "이 일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동포사회와 교계에 새롭게 강조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메릴랜드교협 최정규 목사는 "지나해 3.1절 기념행사를 했는데 대부분의 2세들이 3.1절이 무슨 날인지도 모른다고 대대해서 충격을 받은 적이 있다. 이번 기회가 미주한인들의 이민역사를 교회와 어른들이 잘 상기하고 후손들에게 가르쳐줄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주요한 기자

디딤돌선교회, 봉사활동 출정식 및 오바마 봉사상 수여



디딤돌선교회 관계자 및 오바마 봉사상 수상자 단체사진.

디딤돌선교회(대표 송요셉 목사) '2014 봉사활동 출정식 및 오바마 봉사상 수여식'이 12일(주일) 오후 5시 애틀랜타 소재 새날장로교회(담임 유근준 목사)에서 개최됐다.

2013년 수고한 봉사자들을 격려하고 2014년의 각오를 다지는 이날 행사에서 송요셉 목사는 "한해 동안 여러가지 모양으로 수고한 봉사자 및 후원자들에게 감사함을 전한다. 올해는 기도하던 중 3가지 소망을 품고 출정식에 참석하게 됐다"고 밝혔다. 송요셉 목사는 "먼저, 노숙자 영혼 구원에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음식을 나누는 단계는 많지만 복음 증거에 힘쓰는 곳은 많지 않다. 갈 길을 몰라 방황하는 노숙자들을 위로하고 말씀을 전해 변화시키는데 더 힘을 쏟고자 한다. 두 번째로 선교센터를 마련하고자 한다. 재화의 욕이 있는 이들을 교육시킬 장소가 마땅치 않다. 여러 교회를 사용하다 보니 여러 제약이 따른다. 좋은 위치의 빌딩을 찾아 기도 중에 있다. 함께 기도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송요셉 목사는 "마지막으로 '이삭 나누기 운동'을 펼치고자 한다. 이 운동은 추수를 마칠 때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이삭을 남겨두라 하신 말씀을 실천하는 운동으로 매달 10불 혹은 20불 이상을 정기적으로 후원하는 약정서를 받는 것이다. 많은 한인들의 동참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봉사상 시상식에서는 1년간 500시간 이상 봉사한 이에게 주어지는 금상을 Eugene Kim 학생이, 250시간 이상 봉사한 이에게 주어지는 은상을 Eunbyung Kang, Kyung-hoon Kim, Steve Park, Wonbyung Kang 학생이, 100시간 이상 봉사한 이에게 주어지는 동상을 Caleb Kim, David Lee, Esther Kim, Jaehyun Kim, Jongwoo Kim, Joonseo Kim, Paul Yoon, Raymond Ham, Sohee Shim, Yeseol Kim 학생이 각각 수상했다.

말씀을 전한 디딤돌선교회 이사장 유근준 목사는 "다윗은 아달람 굴에서 세상으로부터 소외되고 환난 당한 이들과 함께했다. 우리 또한 이들과 함께해야 한다. 더 많은 노숙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복될 수 있도록 수고를 아끼지 말아달라"고 격려했다.

김 앤더슨 기자

타코마중앙장로교회 박신일 목사 초청 신년 성회 성료

타코마중앙장로교회(담임 이형석 목사)는 지난 8일부터 11일까지 밴쿠버 그레이스한인교회 박신일 목사를 초청해 "너는 내게 부끄럼이 없다"라는 주제로 신년 축복성회를 개최했다.

박신일 목사는 △하늘 문을 열어 주소서 △기도의 두 손을 드십시오 △응답의 문을 열어 주소서 △축복의 자리에 서십시오 △승리의 문을 열어 주소서 △하나님을 볼드십시오 등의 주제로 성령의 역사를 삶 속에서 체험하는 신앙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나흘 동안 이어진 성회는 연일 성도들로 가득차 새해 말씀을 향한 성도들의 열정을 보여줬다.

박신일 목사는 "신년에는 하나님을 지식으로만 믿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길 바란다"며 "말려진 일에 최선을 다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간구하는 한 해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박 목사는 또 "우리의 신앙생활의 전부가 세상의 축복이 되어서는 안 된다"면서 "매일 삶 가운데 주 앞에 간절히 간구와 믿음으로,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김 브라이언 기자

교회

LA 동부 지역

이희철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1:00
3부영아예배 오후 1:00
어린이예배 오전 11:00

중고등부예배 오전 11:00
수요찬양성경집회 오후 8:00
금요성경공부 오후 8:00

갯스윌연합교회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 교회
904 E D St., Ontario, CA 91764
T. (909) 268-4279 / gwachurch.org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9:30(EM)
3부 오전 11:3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금)
오전 6:00(토)

박해성 담임목사

남가주헬로십교회
순전한 말씀으로 열매맺는 진리의 공동체
375 N. Towne Ave., Pomona, CA 91767
T. (909) 397-5737 / nfcus.com

주일예배 오전 11시
주일학교 오전 11시
성경공부 오후 1:3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금)
토요일새벽기도회 오전 6:00

김성일 담임목사

빅토빌예수마음교회
제자훈련사역과 성령사역이 조화를 이루는 성도공동체
T. (760) 220-3263, (760) 542-9366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9:30
3부예배 오전 11:00
4부예배 오후 12:50

새벽예배 화-금 오전 5:30
토 오전 6:00
수요일 오후 8:00
금요일 오후 8:00
대학청년부예배 오후 12:50

고태형 담임목사

선한목자장로교회
선포하고 가르치는교회 sunhanchurch.com
1816 S.Desire Ave., Rowland Heights, CA 91748
T. (626)965-3443 / F. (626)965-0404

1부예배 오전 7:45
2부예배 오전 9:45
3부예배 오전 11:45

중고등부 예배 오전 11:45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금)
오전 6:00(토)

고승희 담임목사

아름다운교회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가는 교회
1717 S. Otterbein Ave., Rowland Heights, CA 91748
T. (626) 810-3455 / F. (626) 964-5559

1부예배 오전 7:30
2부예배 오전 9:15
3부예배 오전 11:45
EM예배 오전 11:45

청년예배 오후 1:45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금)
오전 6:00(토)

박신철 담임목사

인랜드교회
성령이 하나되게 하신 것을 힘써지키는 교회
1101 Glen Ave., Pomona, CA 91768
T. (909) 622-2324, F. (909) 622-1480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금요일예배 오후 9:00

이춘준 담임목사

창대교회
173 E.Dumas St., San Bernardino, CA 92408
T.(909) 388-2940

1부예배 오전 7:45
2부예배 오전 10:00
3부예배 오전 11:45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금)
오전 6:00(토)
금요일예배 오후 8:00

양성필 담임목사

하나로커뮤니티교회
하나님의 꿈이 있는 공동체
1861 E. Romirer St., La Puente, CA 91744
T. (626) 912-6600

사우스베이 지역

주일예배 오전 11:30
목요일예배 오후 7:30분
새벽예배 오전 6:00(수,토)

주일후 성경공부 오후 1:30
영어예배(EM) 오전 11:30
유년주일학교 오전 11:30

안병권 담임목사

가나교회
1201 W. 255th St. Harbor City, CA 90710
T. (310)986-9797 ganachurch.hompage.com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1:00
3부예배 오전 11:45

1부예배(EM) 오전 11:00
2부예배(EM) 오후 1:15
중고등부예배(EM)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금요 중보기도회 오후 9-11시

정성용 담임목사

나성금관연합감리교회
3153 W. Marine Ave., Gardena, CA 90249
T.(310) 973-5106 / F. (310) 973-7429

주일예배 오전 11:45
주일학교 오후 12:00
성경공부 주일오후 2:00
금요찬양예배 오후 7:45

김영구 담임목사

나눔장로교회
꿈이 있고 기쁨이 있고 행복이 넘치는 교회
3521 Lomita Blvd #202 Torrance, Ca 90505
T. (310) 404-6219

1부예배 오전 9:00
2부예배 오전 11:00
3부예배 오전 11:30
수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5:15(화-금)
주일학교 유/초등부 오전 11:00
주일학교 중/고등부 오전 10:00
성기대연합소집 오전 10:20

서보천 담임목사

둘로스교회
영혼 구원하여 제자되는 교회
1925 Marine Ave., Gardena, CA 90249
T. (310)951-3153 / doulorschurch.com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9:45
3부예배 오전 11:45

EM 1부 9:45/2부 11:45
중/고예배 오전 11:45
유아/유치부예배 오전 11:45

권영국 담임목사

대흥장로교회
망할까지 내 증인이되라
15411 S. Figueroa St., Gardena, CA 90248
T. (310) 719-2244 / dkpc.org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0:00

3부예배 오전 11:30
금요일예배 오후 7:20

박성규 담임목사

주님세운교회
Vision 7300으로 지역사회와 세계교회에 헌신는 교회
2911 Lomita Blvd, Torrance, CA 90505
T. (310) 325-4020 / F. (310) 325-4025

1부예배 오전 8:30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7:00
금요일예배 오후 8:00

강영석 담임목사

성화장로교회
15801 Brighton Ave. Gardena, CA 90247
Tel. 310)515-1191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토)

청년부예배(EM) 오후 1:30
오전 11:00

강신권 담임목사

세계성경장로교회
신통(通)하고 인통(通)하며 문통(通)하여 만사형통합시다!
17002 Prairie Ave., Torrance, CA 90504
T. (424) 257-8169 / F. (424)257-8170

1부예배 오전 9:00
2부예배 오전 11:00
3부예배 오후 2:00

수요찬양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토)

이종용 담임목사

코너스톤교회
이 땅의 참교회, 말씀대로의 교회
24428 S. Vermont Ave., Harbor City, CA 90710
T. (310) 530-4040 / F. (310) 530-8400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1:00
3부예배 오전 11:30
4부예배 오후 1:15(EM청년)
5부예배 오후 3:00(M청년)

장애유아예배 오전 10:00
Toddler - Youth 오전 11:30
새벽예배 월-토 오전 5:30am
수요일예배 오후 8:00
금요일예배 오후 8:00

김바울 담임목사

토렌스 조은교회
www.torrancegcc.org
19950 Mariner Ave. Torrance CA 90503
T. (310) 370-5500 / F. (310) 370-2009

파사데나, 라크라센타, 라캐냐다, 글렌데일, 벨리, 벤추라 지역

주일 예배 오전 11:00
주일 성경공부/세교부만 오후 1:00

수요일예배 오후 7:00
새벽예배 오전 6:00(화-금)
오전 7:00(토)

류준영 담임목사

글렌데일한인장로교회
예수님을 붙잡고, 자라는, 건강한 교회!
4002 Verdugo Rd., Los Angeles, CA 90065
T. (323) 254-4012 / gkpcchurch.com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1:00
3부예배 오후 2:00

EM예배 오전 9:30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월-금 오전 5:30
토 오전 6:00

이성현 담임목사

드림교회
하나님의 꿈을 이뤄 드리는 교회
1305 E. Colorado Blvd., Pasadena, CA 91106
T. (626) 793-0880 / F. (626) 793-6412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후 12:00
아동부예배 오전 11:50
학생회예배 오후 12:00

수요중보기도회 오후 7:00
수요찬양예배 오후 7:30
수요찬양예배 오전 5:30(화-토)

최상훈 담임목사

벤추라감리교회
성령님이 역사하여 예수님을 바리새로 하는 교회
4300 Telegraph Rd., Ventura, CA 93003
T. (805) 658-2171 / venturakorea.com

주일 1부예배 오전 8:00(세리투스채플)
주일 2부예배 오전 10:00(세리투스채플)
주일 3부예배 오전 11:45(벨리채플)
목요영성집회 오후 7:45(다우니 채플)
금요영성집회 오후 7:45(벨리채플)

최희 담임목사

주안에교회
In Christ Community Church
15711 Pioneer Blvd. Norwalk, CA 90650
T.(818) 363-5887 in-christcc.org

EM예배 오전 10:00
스페인어예배 오전 10:00
한국어 오전 10시(필로우쉽)
오후 12:00(번역)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금)
오전 6:30(토)
수요찬양예배 오후 8:00

파사데나장로교회
새 사람, 새 교회, 새 세상을 열어가는 신앙공동체
585 E. Colorado Blvd., Pasadena, CA 91101
T. (626) 795-6252 / F. (626) 584-6544

문서선교에 앞장서는
기/독/일/보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 739-0403
Fax. 213) 402-5136

워싱턴기자클럽, 안호영 주미대사 초청 신년 좌담회 개최



안호영 주미대사.

워싱턴한인기자클럽(회장 김성환)이 동포 사회의 화합과 발전, 한미관계 발전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위해 1월 9일(목) 워싱턴DC 소재 주미한국대사관에서 안호영 주미대사와 함께 신년좌담회를 가졌다.

1981년, 1990년, 2005년에 이어 네번째 워싱턴 DC에서 근무하게 된 안 대사는 "이번에 와보니 한미관계가 엄청나게 발전했고, 동포 사회도 말할 수 없이 성장했다. 35년 전 북미 과정에서 일할 당시만 해도 한미관계는 군사적인 관계만 생각했는데 요즘엔 안보관계뿐만 아니라 통상관계, 외교관계, 피플 투 피플 (people to people) 관계까지 굉장히 종합적으로 발전해 나가고 있어서 매우 긍정적"이라고 말했다.

이날 좌담회에서는 한미동맹 강화를 위한 한인동포들의 역할, 한미 FTA의 실효성, 2014년의 주요 한미현안, 주미한국대사관과 동포사회의 소통 등 다양한 이슈들이 논의됐다. 한미동맹과 관련해 안 대사는 "얼마 전 한 미국인이 '자기 이웃이 한국인인데 그들의 근면함과 성실함, 자녀교육 등을 보면 존경스럽다'고 이야기해 준 적이 있다. 그때 한인동포들이 참 자랑스러웠다. 동포들이 미국 사회의 일원으로 활동하면서 한미동맹에 기여할 수 있는 분야가 많은 것 같다"며, "더 바

람이 있다면 미 주류사회에 더 큰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참정권 문제에 보다 관심을 가지고, 공직에도 많이 나서주시면 좋겠다. 이렇게 주류사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한미동맹강화에 직접적인 영향력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2014년 주요 한미현안에 대해서는 "박근혜 대통령께서 경제활성화, 안보태세확립, 비정상의 정상화(공공부문 개혁) 등 3가지를 대한민국이 당면한 국가적 과제로 언급했다. 주미한국대사관에서는 이를 기초해 한미관계에 대입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지침을 만들어 갈 것이다. 경제활성화에 있어서 특별히 창조경제 분야는 미국과 협조할 수 있는 분야가 많다. 지난해 기초를 마련해 놓은 신성장동력을 비롯해, 과학기술, 에너지 등 많은 분야에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해 경제활성화 협력의 틀을 만들어 갈 것"이라며, "한미 FTA도 이제는 그 활용도를 높이는 것이 더 중요하고, 미국이 주도하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도 기존 12개국과의 합의가 정리되면 한국과도 협의가 가능할 것이다. 안보분야에서도 전자권 이양 시기 협의, 방위비 분담, 원자력협정 등 올해 논의할 것이 많다"고 설명했다.

조요한 기자

오늘날 교회와 성도, 성경 진지하게 마주해야

"무신론의 종교비판과 신학적 의미" 주제로 세미나



연세대학교 신과대학 교수 정재현 박사.

나올에서 열렸다.

해외한인장로회 서북교회 전도부가 주최한 이번 강좌는 연세대학교 신과대학 교수인 정재현 박사가 나서서 이 시대 크리스천들을 향한 도전과 신앙성찰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했다.

정 교수는 "크리스천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보인 사랑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하는데, 혹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외면한 채, 구원의 은혜만 바라고 있지 않느냐"고 지적하며 "크리스천들은 기독교 교리가 얇은 차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복음과 자기 비움의 십자가 사랑의 의미가 내면 깊이 새겨져, 삶으로 예수를 증거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크리스천들이 무엇을 믿는가?"

라는 질문을 던지며, 오늘날 크리스천들은 "예외 없이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믿고 있는 하나님'을 믿고 있던 않은지 돌아봐야 한다"며 "성경의 말씀이 삶과 분리되고, 자의적 믿음으로 하나님을 제한하고 있던 않은지 돌아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 교수는 "기독교인들이 성경의 하나님이 아닌, 내가 믿고 싶은 하나님을 믿는데서부터 무신론자들의 공격과 비판은 시작된다"며 "복음을 증거하기 앞서 자신의 삶이 복음의 사랑과 일치하고 있는지 점검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는 또 "오래 전 전자들의 실천은 신앙으로 변했고, 이제는 신앙이 교리화 되어, 본연적인 실천보다는 교리만을 앞세우는 기독교가 되진 않았나 돌아봐야 한다"며 "기독교 본질로 돌아가, 말뿐인 기독교에서 벗어나 삶을 통해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하나님을 향한 순전한 믿음을 세상이 발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미나 후 소감을 발표한 시애틀제일장로교회 이인석 목사는 "세상에서 비판을 받는 현대 크리스천들의 문제점들을 예수님 시대 바리새인들에게서도 똑같이 찾아 볼 수 있다"며 "이 시대 교회와 성도들이 성경을 진지하게 마주해서 오늘날 교회의 모습과 자신을 비춰보고 점검해야 할 때"라고 진단했다.

김 브라이언 기자

필리핀 의료선교사 로미와 린다 부부, 한인교회에 협력 당부

필리핀 의료선교사인 로미(Romy)와 린다(Linda Caringal) 부부가 선교 협력자를 찾고 있다.

OMS에서 만난 이월상 목사(SEED선교회 국제대표)를 통해 워싱턴교협 신년축복예배에 참석한 로미 선교사는 "워싱턴 지역사회가 한 마음으로 필리핀 이재민 돕기 구조성금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더욱 감동을 받았다"며, "국가와 인종을 초월해 서로 협력하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전했다.

소아과 의사인 로미와 산부인과 의사인 린다는 1988년부터 1995년까지 잠바 미션 병원에서 전인치료를 제공하면서 잠비아에서 첫 사역을 했다.

그들은 INF(International Nepal Fellowship) 산하 GP(Global Partners)와 UMN(United Mission to Nepal)으로 1998년부터 2006년까지 네팔을 섬겼다.

로미는 포카라(Pokhara)에 있는 지역 병원에서 진료를 했으며, 갓만두 소재 파탄 병원에서 소아과 자문으로도 섬겼다. 린다는 HIV와 AIDS 프로그램의 기술 고문으로 섬겼다.

2007년 7월 로미는 GP의 아시아 지역 디렉터로 임명받았으며, 린다는 다방면으로 그를 도왔다. 아시아 11개국(캄보디아, 인도, 일본, 네팔, 몽골, 미얀마, 파키스탄 등)에서 웨슬리 사역(Wesleyan ministries)을 감독하고, 선교사들과 국가 지도자들을 지원하는 것이 이들의 주요 임무다.

이들 부부는 필리핀에서 의학 학사 학위를 받고 예일대학(로미)과 보스턴대학(린다)에서 석사 학위를 받았다. 또 선교를 위해 코네티컷에 소재한 해외 사역 연구 센터에서 교차문화연구(cross-cultural studies)를 마쳤다.

조요한 기자

O.C./앨버틴 지역

이철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1부예배(EM) 오전 9:45
2부예배 오전 11:00 2부예배(EM) 오후 1:30
3부예배 오후 12:45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토)
수요찬양예배 오후 7:00

가나안장로교회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 가는 교회
17200 Clark Ave., Bellflower, CA 90706
T.(562) 866-0980/5027 / canaanchurch.org

1부예배 오전 7:20 금요찬양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9:00 정애인예배 오전 11:00
3부예배 오전 11:00 영아정년부 오전 9:00/11:00
한아대학생예배 오후 2:00 새벽기도회 매일 5:30

김영길 담임목사

감사한인교회
사랑받고 사랑하는 교회, 진도와 성도에 정성을 다하는 교회
6959 Knott Ave., Buena Park, CA 90620
T. (714) 521-0991 / F. (714) 521-4636

1부예배 오전 8:00 중고등부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1:00 나침반 한국학교 주일 오전 9:15
영 유아부 오전 11:00 EM대학부 오후 1:30
유 초등부 오전 11:00 새벽예배 월-금 오전 5:30, 토 6:30

민경엽 담임목사

나침반교회
모이는교회 흠뻑어지는교회
1200 W Lambert Rd, Brea CA 92821 (Lambert & Puente)
TEL: 562-691-0691. FAX: 562-691-0698

손병렬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3부예배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9:30 4부(청년)예배 오후 1:00

남가주동신교회
하나님이 마음껏 역사하시는 교회
2505 Yorba Linda Bl., Fullerton, CA 92831
T. (714) 680-9556 / F. (714) 680-6418

1부 예배 오전 8:00 매일새벽예배 오전 5:30
2부 예배 오전 11:30 Youth 예배 오전 10:30
수요예배 오후 8:00 EM예배 오후 2:30

박용덕 담임목사

남가주빛내리교회
God First 거룩한 MVP 공동체
1201 S. Beach Blvd. #110 La Habra, CA 90631
T. (714) 401-9874 / starkoreanchurch.org

1부 주일예배 오전 8:00 새벽예배 오전 6:00 분당
2부 주일 정애인예배 오전 10:00 수요기도 저녁 8:00 분당
3부 주일예배 오후 2:30 금요공부 저녁 8:00 분당

허귀암 담임목사

노르워크 한인교회
영혼을 구원하여 제자로 세우는 교회
13000 San Antonio Dr., Norwalk, CA 90650
Tel: (562) 802-4959, Cell: (714) 308-7038
E-mail: usa8291@gmail.com

김민재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전 10:45 수요일예배 오후 7:00
EM영아예배 오후 12:45 새벽예배 오전 5:30 (화-토)
금요강해예배 오후 7:30

예진교회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의 친구' 공동체
955 W Imperial Hwy Brea, CA 92821 ECCU Auditorium
(Worship Center) T. (714) 788-3677
18639 Yorba Linda Bl. Yorba Linda, CA 92886 (교회 사무실)

1부예배 오전 8:45 금요 Alpha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월-금)
중고등부 예배 오전 11:00 오전 6:00 (토)
E배배 오전 9:30

이서 담임목사

미주비전교회
역동적인 예배가 살아있는 비전공동체
1655 West Broadway St., Anaheim, CA 92802
T. (714) 999-9900 / visioncc.org

1부예배 오전 7:30 4부예배 오후 1:00
2부예배 오전 9:30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금)
3부예배 오전 11:30

김한오 담임목사

베델한인교회
우리기독교인이, 내가 크리스천이다, 하나님은 응답하신다.
18700 Harvard Ave., Irvine, CA 92612
T. (949) 854-4010 / F. (949) 854-4018

주일예배 오후 12:30 (30분) 성경공부 (화) 오후 8:30 (30분)
중, 고등부 오후 3시 금요찬양예배 오후 8시
청년부 오후 3시 한국교회 (토) 오전 10

방익수 담임목사

사랑의방주교회
믿음을 받고 믿음을 나눠 주고 믿음을 영감하여
공동체를 살리는 교회
13955 Yale Ave., Irvine, CA 92620
T. (949) 654-0191

신원규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7:30 수요일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예배 (화-금) 오전 5:30
주일학교 오전 11:00 (토) 오전 6:00

삼성장로교회
주님 축복권을 누리는 성도의 삶 선교와 구제의 삶으로 실현
501 S. Idaho St., La Habra, CA 90631
T. (562) 690-9800 / F. (562) 690-8044

1부예배 오전 7:30 (분당) EM예배 오전 10:00 (FC체움)
2부예배 오전 10:00 (분당) 오후 12:30 (분당)
3부예배 오전 12:30 (FC체움) 수요예배 오후 7:00
새벽예배 오전 5:45 (월-금) / 6:00 (토)

세리토스장로교회
11841 E. 178th St., Artesia, CA 90701 (분당)
T. 562-677-7777, F. 562-677-7778 / ilovepc.org

1부예배 오전 7:30 새벽예배 (월-금) 오전 5:30
2부예배 오전 9:30 (토) 오전 6:00
3부예배 오전 11:30 열린예배 (수) 오후 7:30
4부예배 오후 1:30 성명집회 (매월 둘째 금) 오후 7:30

엘바인 침례교회
5101 Walnut Ave., Irvine, CA 92604
T. (949) 857-9425 / F. (949) 857-9242

최상준 담임목사 주일대예배 오전 11:00 금요찬양예배 오후 8:00
중, 고등부 오전 11:00 새벽기도회 (화-금) 오전 6:00
중고등부 오전 11:00
대학청년부 오후 1:30

엘바인 한민음교회
믿음으로 하니되는 교회
18182 Culver Dr., Irvine, CA 92612
T. (949) 769-9628

김삼도 목사 관주일예배 오전 11:30
주일학교 오전 10:00

엘바인 할렐루야교회
15520 Rockfield Blvd., #F Irvine, CA 92618
T. (949) 514-4346 F. (949) 305-3951

주일예배: 1부 오전 6:00 매일 오전 6:00 (화-금)
오후 7:30 오후 7:30

지 사론 담임목사
(매월 S,D,F, Power minister)

열방사랑선교센터
말씀과 기도와 성령의 열매로 연합된 영혼구원과 해를 넘겨 나라는 이르는
실질적: 생명의 사랑을 감동시키는 주님의 부르심을 알고 인도하는 선교단체
9850 Garden Grove Blvd Garden Grove CA 92844
T. (714) 488-8291, (714) 644-1697

주일 인터넷 생방송듣기 오전 6:30
주일 예배 오전 11:30
목요 예배: 오후 7:30
토요 예배: 오후 8:30

우대권 담임목사 초등부 목요일예배: 오후 7:30

영광빛복음교회
14515 Blaine Ave., Bellflower, CA 90706
T. (213) 291-5901 / (714) 833-2568 daekwon.org

주일 1부예배 오전 9:15 유년부 초등부예배 오전 11:30
주일 2부예배 오전 10:00 영아중고등부예배 오전 11: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45 한아중고등부예배 오전 10:30
영아주일예배 오전 10:00 새벽기도회 월-금 오전 5:30,
토 주일 오전 6:00

영명민 담임목사

오렌지카운티제일장로교회
열린교회, 주는교회, 키우는교회
8500 Bolsa Ave., Westminster, CA 92683
T. 714-891-2029, 898-1068 F. 714-373-3097

1부예배 오전 7:30 새벽예배 평일 오전 6:30
2부예배 오전 9:30 토요일 오전 6:00
3부예배 오후 11:30 금요성령예배 오후 8:00
4부예배 오후 2:00

한기홍 담임목사

은혜한인교회
행복한 교회 삼급받은교회 세계선교를 마무리짓는 교회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T. (714) 446-6200 / F. (714) 446-6207

1부예배 오전 8:00 금요찬양기도회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9:30 청년부예배 오후 2:00
3부찬양 오전 11:15 새벽기도회 오전 5:30 (월-토)
수요일예배 오후 7:30

남성수 담임목사

오렌지카운티한인교회
영혼을 구원하며 제자삼는 교회
14381 Magnolia St., Westminster, CA 92683
T. (714) 893-1652 / krcoc.com

주일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주일목사예배 오후 2:30 목요 성경학교 오후 7:30
월요일 선교학교 오후 7:30 금요일예배 오후 8:00
회오 중보예배 오후 7:30 토요일 EM예배 오후 7:30

목회 담당 앤드류 김 목사
선교 담당 안근성 목사

작은자 교회
3세대가 함께 성령안에서 자유롭게 예배하는 교회
1681 W Broadway Anaheim, CA 92802
Tel: 714-635-6402, Cell: 714-600-7700 www.ubmchurch.com

1부예배 오전 8:30 수요기도회: 오후 8: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 오전 5:45 (월-금)
청년예배 3부: 오후 1:30

주혁로 담임목사

주님의 빛 교회
7651 5th St., Buena Park, CA 90621 www.lordlight.org
T. (562) 896-9191, (714) 670-6700

결혼교실, 시부모교실, 부부교실, 아버지교실
www.GodFamily.com
www.CMFM.org

김철민 장로

CMF선교회
가정을 세우는 CMF Ministries
3463 1/2 Pumice St., Norwalk, CA 90650
T. (562) 483-0191 / (714) 493-0191

"강을 건너 세례로", 사랑으로 세상을
치유하고 치유하는 섬김의 사람들이 되자
www.samcare.org

박세록 대표

SAM CARE INTERNATIONAL
1309W. Valencia Dr., Unit #A, Fullerton, CA 92833
T. (213) 447-8169 / F. (213) 381-1506

엘에이 정식허가 고급하숙
임주자화제\$ 책임보험 5성급호텔의 시설
아침, 저녁 제공 케미 tv 초고속인터넷, 냉장고, 세탁기, 교통편리

1호점: 8가 + Catalina. 정식허가
2호점: 5성급호텔의 시설 (올림픽+원저)
3호점: 최고급 5성급호텔 시설 (3가+옥스퍼드)

T. 213.327.4710

세계 최초의 캐거 각종 암, 난치병, 아토피 천연 치료제 개발

미국 FDA에 의약품으로 인증 등록됨
일반 의약품 등록 번호(NDC No: 58912-2001)

기적의 약(Miracle Pharmacy)

미라팜-22

시판개시!

Mirapharm-22



Made in USA

각종 암,
난치병, 아토피
예방 및 치료약,
각종 질병 예방 및
치료약



90캡슐 / 한달 분 / 한 병

22세기형 최첨단 신약으로 탄생했습니다.

100% 천연 유기물질로 만들었으며
24년간의 연구와 임상을 거쳐
효과는 확실히 검증이 되었고 부작용의 염려가 없습니다.

- ◆ 14년간의 연구와 10년간의 임상 끝에 100% 천연 물질이면서 의약품으로 인증 받은 미라팜-22
- ◆ FDA에서 본 제품의 독성 및 기타 성분 분석 검사 결과, 영양 함유물 및 식품으로 안전하다고 인증됨
- ◆ 미국 FDA에 의해 각종 암, 난치병, 아토피 등 면역 결핍에 의한 각종 질병의 예방 및 치료약 등록
- ◆ 친환경 천연유기물질을 생명공학 공법으로 가공한 차세대 신개념의 면역 증강, 각종 질병 치료제
- ◆ 100% 천연유기물질 소재로 만들었기에 부작용의 염려가 없고 각종 난치병에도 많은 효험을 나타냄
- ◆ 어떤 면역증강 건강보조식품보다 월등히 뛰어나며 일반의약품(OTC Drug)으로 인증받은 첨단 의약품

갑상선 말기암 환자의 최근 체험사례



복용후 5일 - 11/5/2013 복용후 25일 - 11/25/20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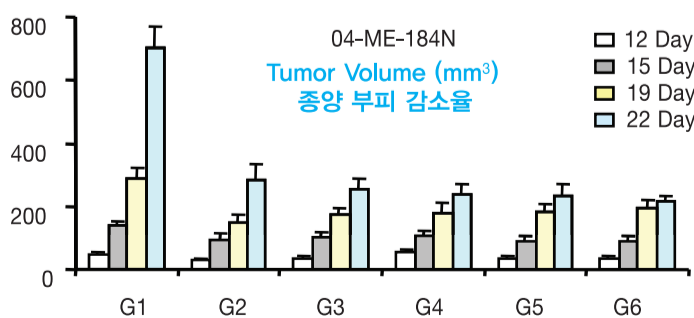
생후 5개월부터 28년된 아토피 환자의 치료 사례



복용전 복용후 99일

미라팜-22의 암 예방 및 치료제에 대한 전임상 테스트 확인 도표

최종일 - 투여 22일째



군 (mg/kg)	Control 무치료	Doxorubisin (2) 화학항암제	Mirapharm-22 (75) 미라팜-22	Mirapharm-22 (150) 미라팜-22	Mirapharm-22 (300) 미라팜-22	Mirapharm-22 (300) 사전 예방처리
22일째 (최종일)	704.6 ±67.2	285.6 ±50.6	251.9 ±36.3	235.3 ±34.6	232.1 ±38.5	214.2 ±20.5
22일째의 억제율 %	0	59.5	64.3	66.6	67.1	69.6

키모테라피에 사용하는 화학요법 항암제보다 월등히 우수한 암 부위 감소율을 자랑하는 천연 치료제인 미라팜-22의 임상 결과에 대한 논문은 곧 학술지에 발표할 예정입니다.



HQ 헬스 / HQ 바이오텍, INC.

833 S. Western Ave. #1, L.A., CA 90005

L. A. 본 점 (213)365-2100
세리토스점 (562)760-2359

월-금: 10am-7pm, 토:10am-5pm

기독교의 급격한 비서구화에 <세계기독교학> 태동

아시아, 아프리카, 중남미 기독교에 대한 세계-지역화(glocalization)적 연구

지난 50년간 기독교는 유럽·미국 중심의 서구에서 급속히 퇴조한 대신, 아시아·아프리카·중남미 등에서 활발히 성장하고 있다. '10/40창(窓) 선교', '미전도종족 선교', '전방개척 선교' 등을 통해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된 지난 세기를 거치면서, 기독교는 그야말로 '전 세계인의 종교', 특히 '제3세계의 종교'가 됐다.

故 랄프 윈터 박사 등 수많은 학자들이 주목했던 이 '세계 기독교의 지형 변화'는, '세계기독교학(Studies in World Christianity 또는 Global Christianity)'이라는 새로운 학문을 부상시키고 있다.

11일 오후 서울 성산동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세미나실에서 개최된 한국기독교역사학회 제321회 학술발표회에서는, 이 같은 흐름을 소개하면서 한국 기독교 학계의 과제를 제시하는 주제발표가 진행됐다.

'세계기독교학의 부상과 연구현황: 예일-에든버러 세계기독교 및 선교역사학회를 중심으로'를 발표한 이재근 박사(합동신대·교회사)는 "1900년에는 전 세계 기독교 인구 중 80%가 코카서스인, 즉 유럽·북미·호주 등에 거주하는 백인이었지만, 현재는 그 비율이 25%에 지나지 않으며 지금 추세라면 2050년까지 20% 미만으로 떨어질 것"이라며 "많은 역사가와 신학자는 이 변화된 지형도의 의미와 과제가 무엇인지를 밝히는 데 에너지를 집중 투자하고 있다"고 밝혔다.

세계기독교학, 아직 형성기이지만 지속적 생명력 유지할 것

이 박사에 따르면 실제로 1980년대 초반부터 여러 선구자들의 수고로 서구에서는 이런 비서구 기독교의 역사와 문화, 신학을 서구 교회의 선교역사, 경건주의 및 복음주의 운동 역사, 부흥운동사, 문화 및 선교인류학, 종교학, 사회학 등과 연계해서 연구하는 '세계기독교학'이 새로운 학문으로 공식 등장했다. 그는 "지난 50년간 일어난 변화는 기독교 초기 수십 년 동안 일어난 변화를 제외하고는 기독교 역사상 가장 극적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세계기독교학은 전통적 신학과 역사학의 주요 분과 학문과는 달리 아직은 신생학문으로 여전히 형성기에 있지만, 이 학문이 오래도록 지속적인 생명력을 유지할 가능성이 있다"며 "수많은 통계와 많은 학문적 분석자료들이 주장하듯, 다음 세대를 이끌 기독교의 주체는 아시아와 아프리카, 중남미 지역에서 성장한 교회가 될 것이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이 박사는 한국 기독교 및 기독교학계, 특히 한국 기독교 역사학계의 장기 과제도 여기서 찾을 필요가 있



에든버러대 출신으로, 세계 기독교의 현황을 생생하게 전달한 이재근 박사

다고 진단했다. 교회사나 기독교사(史)는 특정 전통·지역·시기만 따로 떼어서 독립적으로 연구할 수 있는 주제영역이 아니고, 언제나 문화와 국경의 영역을 넘어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네트

워크의 역사이기 때문이다. 그는 "선교운동 시작(개신교 18세기) 후, 전세계 기독교는 기본적으로 동질성을 지향하는 '세계화(globalization)'를 경험하면서 소위 보편화되었지만, 세계화만으로는 각 나라·지역·문화·시대별 기독교 역사의 특수성과 다양성으로 대변되는 '지역화(localization)'의 역사를 볼 수 없기 때문에 현미경적 시각을 잃어버리고 모든 것을 일반화해 버리는 우를 범하게 된다"며 "결국 두 시각을 적절히 조화시킬 수 있는 '세계-지역화(glocalization)'의 시각이 필요한데, 세계 기독교, 세계기독교학의 오늘날 현황은 한국 기독교를 세계 기독교 또는 아시아 기독교라는 전체적인 틀 안에서 바라보고 자리매김하는 연구가 더 많이 필요함을 보여준다"고 덧붙였다.

세계기독교학의 발전: 월즈의 공헌, 에든버러대의 지원

이재근 박사는 결론에 앞서 세계기독교학의 발전 과정을 소개했다. 이 분야의 선구자는 앤드류 월즈(Andrew F. Walls)로, 그는 감리회 평신도로서 졸업 후 여러 기독교계 연구기관에서 연구에 종사하다 약 30세인 1957년 아프리카 시에라리온과 나이지리아에서 교수 선교사로 봉직했다. 그는 그곳에서의 연구를 통해 '서구 학계에서 기독교 역사에 접근하는 전통적 연구방식은 실제 선교를 통해 진행되는 기독교 확장운동에서 과거와 현재, 미래에 차지하는 비서구 기독교의 존재와 의미를 제대로 읽어내지 못할'을 인식하기 시작했다.

여기에 초대교회 전공자였던 그의 학문이 아프리카 학생들에게 감흥을 주지 못함을 깨닫고, 그는 서구 교회의 전통의 재검토와 아프리카 교회의 배경 문화·종교 등을 종합 연구한 후 "아프리카인들이 현재 경험하고 있는 세계관의 틀에서 형성된 기독교와 여러 현상은, 오히려 계몽주의 시대 이후 현대 서구 기독교 세계의 현상보다 초대교회의 현실에 더 가깝다"고 결론 내렸다. 세계기독교학의 출발이었다.

이후 1966년 스코틀랜드 아버딘대학으로 돌아온 월즈는 1970년 부교수로 승진한 후 그곳에서 전문가들을 끌어모아 세계기독교학의 틀을 잡아나갔고, 1982년 비서구기독교연구소(Centre for the Study of Christianity in the Non-Western World)를 설립하면서 학문적으로 도약하게 된다.

그러나 월즈 교수의 심장마비와 대학측의 재정적 어려움으로 연구소는 위기를 맞았고, 에든버러대학 뉴컬리지(신학부)가 그 배턴을 이어받는다. 1867년 최초의 선교학 교수를 임명한 대학이자 1910년 '세계선교대회'가 열린 이곳에서, 연구소는 명실상부하게 세계 기독교와 기독교 선교를 통전적 학제간 연구방식으로 연구하고 성과를 나누는 전담으로 자리매김했다.

월즈가 1996년 은퇴한 후, 연구소는 기독교-무슬림 관계 전문가 데이비드 커(David Kerr), 말라위 선교사 출신 잭 톰슨(Jack Thompson)에 이어 2009년 브라이언 스탠리(Brian Stanley)가 소장직을 맡으면서 재도약을 맞고 있다. 스탠리는 연구소 이름을 세계기독교연구소(Centre for the Study of World Christianity)로 바꾸면서 학문연구의 초점을 선교학(Missionary Studies)에서 세계기독교학-세계 기독교의 역사, 신학, 문화, 윤리, 종교, 정치, 민족, 성(性) 등을 포괄하는 영역-으로 옮겼다.

세계기독교학, 영미권에서 조직신학·교회사·성서학 등과 대등

이재근 박사는 "이같은 용어 변경은 '비서구'라는 표현에 내재된 서구 중심적 사고방식이 수용되기 힘든 시대변화를 반영하고, 학문 연구범위가 단지 '비서구'의 기독교가 아니라 '서구를 포함한 전 세계' 기독교의 존재와 유기적 상호관계를 재인식시킨 새로운 결정"이라며 "오늘날에는 이 분야 교수를 다중 또는 이중 언어에 능통하고 학문적 명성을 갖춘 학교에서 최종학위를 취득했으며, 자국 기독교와 서구 기독교 또는 대륙별·지역별 기독교 역사와 현상을 종합적으로 연구할 수 있는 '백과사전적 지식'을 가진 비서구인 학자로 채용하려는 경향이 있다"고 소개했다. 최근에는 영미권 주요 신학회에서도 '세계기독교학'이 조직신학이나 교회사, 성서학, 윤리학 등 신학 전통 분과와 대등한 위치의 분과로 신설되고 있다고 한다.

그는 "이 학문 이름 그대로 '세계화'를 담보할 수 있었던 가장 큰 동력은 전세계 학문 네트워크의 지속적인 성장이었으며, 이 네트워크 결성과 확장에 가장 크게 기여한 것이 바로 '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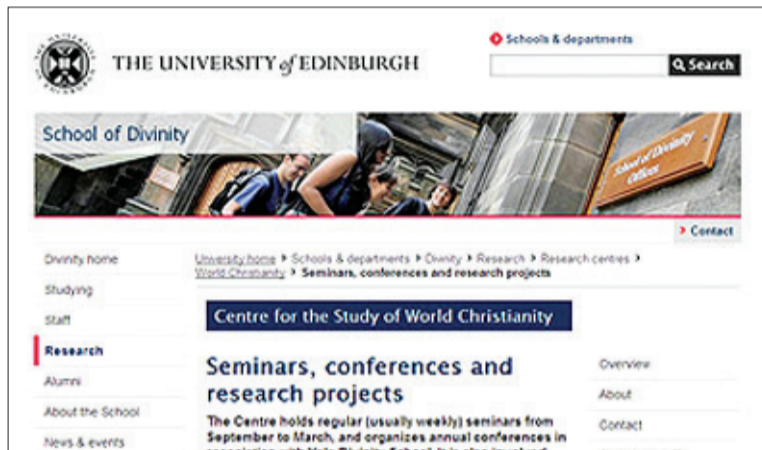
일-에든버러 세계기독교 및 선교역사학회(이하 예일-에든버러 학회)였다"고 전했다. 학회에서는 다양한 학문 방법론을 활용하는 전문가들이 동일 주제를 다양한 관점에 따라 판단하게 한다.

이 학회는 월즈가 아버딘대학을 떠나 예일대 신학부 교수가 된 감비아 학자 라민 산네(Lamin Sanneh)와 함께 결성한 학자들의 모임으로, 1992년부터 매년 예일대학과 에든버러대학에서 교대로 열리고 있다. 학회는 '선교운동의 역사적 양상들과 세계기독교의 발전상에 대한 정보를 논의하고 교환하는 일을 촉진하기 위해, 무엇보다도 이 정보를 문서화하기 위해', 그리고 '정치·사회·외교·종교·역사 영역에서 나온 관점들을 선교운동의 의미와 이 운동이 전세계에 끼친 효과를 재평가하는 데 활용'하는 포럼이다. 지난해 예일대에서 열린 학회는 '선교역사와 세계기독교에서의 건강·치유·의료', 올해 6월 에든버러대에서 열리는 학회 주제는 '선교역사와 세계기독교에서의 성(gender)과 가족'이다.

이 박사는 지난 3년간 학회에서 본 세계기독교학의 동향을 전하기도 했다. 그 특징은 첫째, 발표자 수 평균 40명은 참석자 평균 80명의 절반 정도 논문 등을 통한 공헌보다는 배우는데 관심이 있는 학계 입문자들이 많이 참석한다. 둘째, 발표자 비율은 7대 3 정도로 여전히 서구권 학자가 많



한국기독교역사학회 새해 첫 학술발표회가 진행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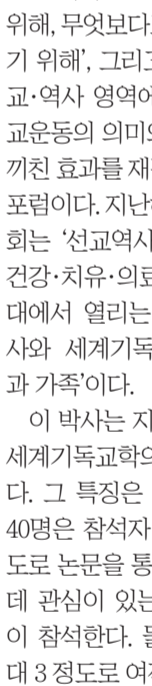


에든버러대학 홈페이지 내 '세계기독교연구소' 소개 모습. ©홈페이지 캡처

지만, 세계적 명성이 있는 서구권 학회 중 비서구인 참석자 비율이 가장 높다. 셋째, 비서구권 발표자들 중에는 아시아권 비율이 압도적인데, 이는 정치·경제·학문적 여건에 비례한다. 넷째, 아프리카권은 가나와 나이지리아 등 특정 국가의 약진이 두드러진다. 다섯째, 세계 기독교 인구 분포에서의 엄청난 약진에도 지난 100년간 중남미 기독교는 학문세계에서 존재감이 거의 없다.

한편, 이날 세미나에 앞서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제20회 총회 및 한국기독교역사학회 제11회 총회가 열리기도 했다.

이대웅 기자



미국 고든콘웰대학교에서 편찬한, 세계기독교에 대한 최신 통계자료 표지. 이 박사가 소개한 '세계기독교학' 연구자료의 일환이다.

온돌마루

UL마크 인증제품 사용
NRTL(미국 전기 안전 규격제품).

획기적인 절전제품 / 전자파제로

안방 아랫목, 거실, 기도실, 유아방, 찜질방 설치중

피코 건축자재 (피코+카탈리나)

213)256-4884

美 살인적 한파에 교회들 피난처 돼

추위 피할 장소와 음식 제공하고 쉼터 개방 시간 확대

미국 동남부 지역을 살인적인 한파가 강타한 가운데, 교회들이 오갈 곳 없는 이들을 향해 문을 활짝 열고 쉼터를 제공하고 있다.

미 기상당국의 최근 발표에 따르면, 위험적인 북극 한파가 미 전역의 3분의 2를 강타해 추위로 현재까지 사망자만 15명에 달한다.

이에 지역 교회들은 노숙자들과 가족들이 추위를 피할 수 있도록 교회들을 개방하기에 나섰다. 이미 노숙자들에게 거처를 제공하고 있는 교회와 기독교 시설들도 수용 가능한 인원과 시간대를 확대하고 있다.

조지아 주 애선스(Athens)의 노숙자 센터인 비거 비전 커뮤니티 쉼터(Bigger Vision Community Shelter) 대표 에드 무어는 “우리는 지역 당국과의 의논을 통해서 기온이 극도로 내려가는 밤에는 더 많은 수의 사람들을

받아들이기로 했고 또한 이들이 조금이라도 더 오랜 시간 머무를 수 있게 하기 위한 최선의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애선스의 제일연합감리교회(First United Methodist Church)는 지역 당국이 운영하는 노숙자 센터를 이용할 수 없는 사람들을 수용하고 있다. 벤티버틀러 목사는 “우리 교회는 밤에 도움이 필요한 이들을 위해 문을 열 것이고 현재로서는 이 날씨에 대응할 유일한 해결책은 이것뿐인 것 같다”고 언급했다.

한편, 라파예츠 페이스 커뮤니티 센터(Lafayette's Faith Community Center)는 한파로 인해 운행을 멈춘 고속버스 승객들에게 쉼터와 샤워 시설, 예배를 함께 제공하고 있다.

3살인 아들과 함께 교회가 제공하는 쉼터에 머무르고 있는 승객 중 한

명인 니콜 해리스는 “그들은 우리를 정말로 많이 도와줬다. 샤워와 타월뿐 아니라 간단한 먹거리도 제공하고 있다”고 말했다.

센터 대표인 앤드류 발라드는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도울 수 있어서 감사하다”며, “비록 피곤하지만 도울 수 있는 자리에 있다는 것은 기쁜 일이다”고 밝혔다.

아이오와 주의 수시티(Sioux City)에서는 기온이 급격히 내려감에 따라서 기독교 자선단체인 가스펠미션(Gospel Mission)도 추위를 피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하고 있다.

가스펠미션의 로버트 코원은 “다리 밑에서 자야 하는 사람들에게는 선택권이 없다. 그들에게는 갈 곳이 필요하다. 그들은 살아남아야 하기 때문이다”며 도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손현정 기자

담배로부터 배우는 교회의 대마초 대처법

법 뛰어넘는 기준과 절제 필요

지난 1월 1일에 콜로라도 주에서 오락용 대마초 판매를 시작했다. 대마초는 이미 20개가 넘는 주에서 의료용에 한해서 합법화 되어 있지만, 오락용으로는 콜로라도 주가 처음이다. 워싱턴 주도 6월부터 판매에 들어간다고 한다. 알래스카 주도 초임기에 들어가 있다. 주의 경계선이란 것이 눈에 보이게 그려져 있는 것이 아니니까 미국에서 대마초가 합법이 되었다고 보아도 크게 틀린 말은 아니다. 연방법원에서도 이를 제재할 의사가 없다고 한다.

“대마”에 대한 논의는 끊이지 않는다. 찬반 또한 팽팽하다. 건국의 아버지인 조지 워싱턴이 대마 재배를 장려했다는 것은 익히 알려진 사실이다. 실제로 대마라는 작물이 유용하게 쓰였다는 기록을 쉽게 찾아 볼 수 있다. 대마초가 마리아나라는 이름으로 폄하되고 마약으로 분류되는 것이 거대한 음모라는 설도 있다. 석유화학제품이 근간을 이루는 산업들에게 대마 작물은 커다란 걸림돌이었다.

흔히 대마초가 합법화되면 호기심에 시작을 했다가 중독이 될 것을 우려한다. 하지만 알려진 것과는 달리 대마초는 담배보다도 중독성이 약하다고도 한다. 코카인과 같은 강한 마약과 같이 분류되고 싶어하지 않는다. 담배나 술 때문에 죽은 사람은 많아도 대마초 때문에 죽은 사람은 없다는 주장도 있다. 여기서 찬반의 주장을 다 열거하려면 지면이 부족하다.

일정량의 포도주는 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사실이 거의 정설로 받아들여지고 있기 때문에, 술은 논의에서 잠시 제외하고라도 담배에 대해서는 할 얘기가 많다. 흡연하는 동안에 갖게 되는 약간의 심리적인 안정감을 제외하고는 담배가 백해무익하다는 점은 대부분의 흡연가도 동의한다. 오랜 시간이 걸렸지만 흡연이 인체에 유해하고 암을 유발할 수 있다는 사실도 밝혀져 있다.

그래도 담배의 판매는 합법이다. 왜일까? 담배를 피운다고 모두 암에 걸리는 것은 아니니까 개인의 선택에 맡기겠다는 생각이다. 술도 마찬가지이다. 그렇다면 대마초는?

정부가 어느 정도까지 개인 선택의 돌레를 결정해야 하는지는 정답을 찾기 어려운 오래된 숙제이다. 미국은 이미 대금주령을 통해서 아픈 경험을 가지고 있다. 술을 금했지만 결과는 오히려 더욱 참담했다. 밀주가 성행하고 이에 관련된 범죄가 증가했다. 내용을 알 수 없는 밀주를 마시고 죽은 사람들이 한 둘이 아니다. 하지만 어디에 하소연할 곳도 없었다.

담배회사 사장이 담배를 피우는지는 잘 모르겠다. TV 광고에 날선하고 예쁜 여배우가 나와서 기름진 음식을 선전하는 것을 보면 그런 것이 궁금

해진다. 진짜로 저 사람은 저 음식을 좋아해서 자주 먹을까?

대마초를 합법화하는 것과 대마초를 피우는 것은 다른 문제이다. 대마초를 합법화하려는 노력은 법의 테두리 안으로 집어 넣고 통제를 하겠다는 뜻이다. 상품의 질을 통제하고 가격을 조정하고, 또한 세금을 부과해서 세수를 확보하려는 목적이 있다.

법으로 금해도 사람들이 피운다면 차라리 합법화해서 관리하는 편이 낫겠다는 판단이다. 괜히 마약상들에게만 좋은 일을 시킬 이유가 없다. 단순 마약사범들이 줄어들게 되면 경찰과 법관도 덜 필요하게 되고 감옥이 모자라서 고민 중인 대부분의 주에서 예산문제도 쉽게 해결된다.

문제는 당연히 호기심에서 시작된 중독의 위험성이다. 그래도 불법이면 법이 무서워서라도 접근을 하지 않을 사람들에게도 이제는 쉽게 기회가 주어진다. 인류의 타락이 이 “호기심”에서 시작되지 않았던가? 아무리 중독성이 담배보다 약하다고 하지만 그래도 이름이 괜히 “마약”일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를 파멸시킬 수 있기 때문에 마약이다. 또 다른 문제는 마약에 대한 인식의 변화다. 사회적인 용인은 개인의 판단에 큰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개인적인 찬반을 떠나서 미국이 대마초를 합법화하는 길로 들어선 이상 그 속도는 엄청나게 빨라질 것이다.

법은 바뀐다. 미국에서 20세기 초까지는 대마 재배가 합법이었다. 17-8세기에는 대마 재배를 거부하면 감옥에 갈 수도 있었다. 그러던 것이 불법이 되었고 100년만에 다시 합법이 되어가고 있다.

우리에게는 법을 뛰어넘는 기준과 절제가 필요하다. 술이 합법이지만 술이 자신과 사회를 망치게 내버려 둘 수 없다. 이것은 단순히 음주를 불법으로 규정한다고 해서 해결되지 않는 것을 우리는 이미 경험했다.

정부는 대마초 합법화를 통해서 통제 또는 다른 길을 모색하고 있지만, 우리의 인식이 바뀌지 않는다면 대마초 흡연인구는 늘어날 것이다. 하지만 우리는 담배에 대해서 이미 승리를 얻고 있다. 대마초에 대해서도 고도의 대응전략이 필요하다.

-하인혁 교수는?

노스캐롤라이나 주 웨스턴캐롤라이나대학교 경제학 교수/ 라이프웨이교회 안수집사/ 연세대 경제학과 졸업, 미네소타대학에서 박사 학위 취득



하인혁 교수

레바논 최대 기독교 도서관, 무슬림 방화로 큰 피해

전체 8만여 권 중 5만여 권 소실... 17세기 고서적도 손상

레바논에서 가장 큰 기독교 도서관 중 하나가 무슬림들의 방화로 극심한 피해를 입었다.

트리폴리 시에 위치한 이 도서관은 8만여 권 이상의 장서를 소장하고 있으며, 그 중 400여 권은 최고(最古) 17세기로 거슬러 올라가는 희귀 서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방화로 전소되거나 손상을 입은 책은 무려 5만여 권에 달한다.

갑작스런 방화는 지난 주말에 벌어졌다. AFP 보도에 따르면 방화범들은 도서관장인 이브라힘 수로즈 그리스 정교회 주교가 이슬람을 모독했다고

주장하며 이를 응징하고자 불을 질렀다고 밝혔다.

수로즈 주교는 최근 마호메트를 모독하는 글을 썼다는 의심을 받았으나 사실무근으로 밝혀진 바 있다. 그러나 그는 “이 일에 책임이 있는 모든 이들을 용서하며 트리폴리에 평화와 기쁨을 기도한다”고 언론 인터뷰를 통해 언급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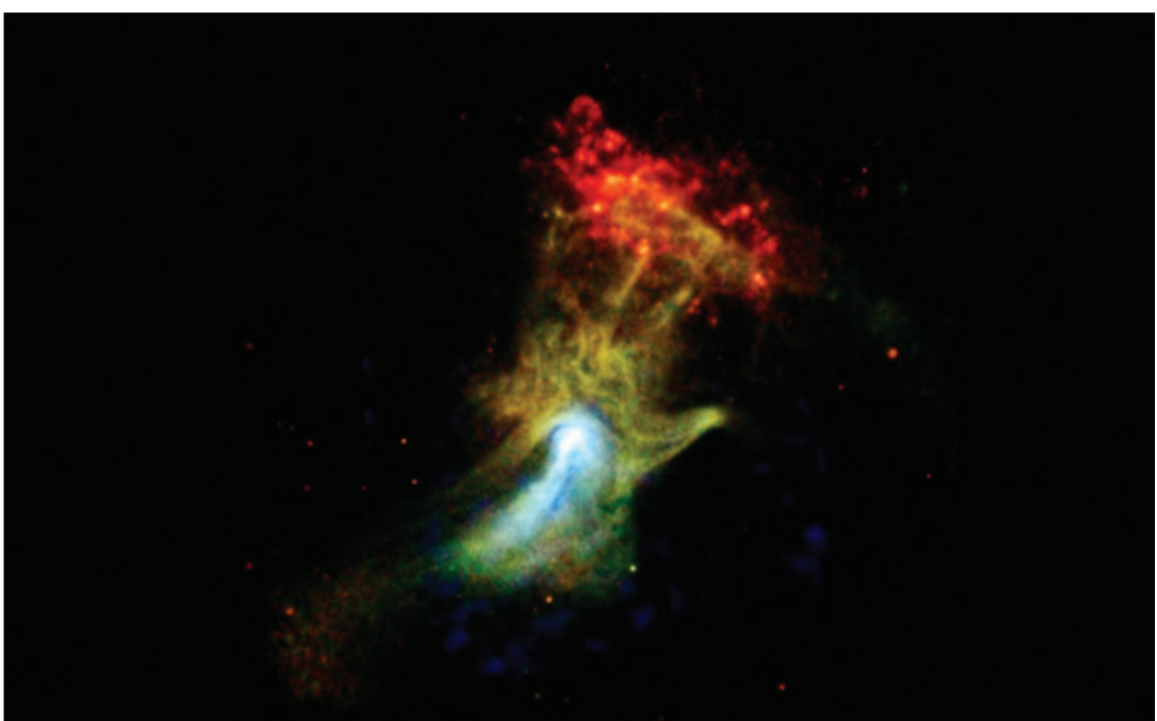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화가 자행된 데 대해서 현지 기독교 지도자들은 물론 이슬람 지도자들 역시 유감을 표하고 있으며, 특히 방화범들뿐 아니라 공격을 가하도록 지시한 이슬람

극단주의 세력을 색출해 이들과까지 처벌해야 한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

현재 트리폴리의 많은 시민들은 자발적으로 도서관으로 향해 수로즈 주교에 대한 지지를 표하고 있으며, 도서관 복구 작업을 돕고 있다.

레바논은 전체 인구 중 무슬림이 65%, 기독교인이 34%이며 헌법상 종교자유가 보장되어 있지만 시리아 내전 등 주변 국가들의 영향으로 사회적 안정이 위협받으면서 이슬람 극단주의에 의한 기독교 박해도 최근 증가하고 있다.

손현정 기자



천체망원경에 촬영된 “하나님의 손” 화제 미국항공우주국(NASA)의 천체망원경에 최근 거대한 손 모양의 사진이 찍혀 일명 ‘하나님의 손(Hand of God)’으로 불리고 있다. NASA의 핵분광 망원경이 촬영한 이 형체는 초신성의 폭발에 의해 발생한 물질과 각종 에너지로 구성돼 있으며 맥동성 바람 성운(pulsar wind nebula)에 속한다. © NASA/JPL-Caltech/McGill

Sales • Rental • Service • Free Estimate • Supplies

10¢
최저 1장

**복사기 판매
렌탈서비스**

FMB RENT PROGRAM

- SERVICE는 물론 TONER, DRUM ROLLER 등 모든 PART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 정기적으로 SERVICE를 실시합니다.
- 4시간내 A/S를 신속 처리

복사기 무료

최신식 디지털
COLOR COPY MACHINE

칼라카피어 렌트전문!

칼라카피




FBM *First Business Machines, Inc*

전화문의 (800)582-3321 / (562)802-9044 Fax : (562)802-8094 www.fbmcopiers.com

13245 E. Rosecrans Ave., Santa Fe Springs CA 90670

<서승원 특별 기고>

헬레니즘과 유다이즘에 대한 오해들(12)

3. 헬레니즘과 유다이즘의 관계

2) 헬레니즘과 유다이즘에 대한 상반된 견해들

그런데 위에서 행켄이 지적한 신약 학자들에게 있어서의 헬레니즘과 유다이즘에 대한 오해와 유사한 오해를 유다이즘의 연구에 종사하는 사람들에게서도 찾아볼 수 있다. 예를 들면 코헨은 그의 책 <마카비 형제들로부터 미슈나에 이르기까지>에서 헬레니즘과 유다이즘이 서로 대립된 개념으로 이해된 배경을 다음과 같이 적고 있다:

현대의 학자들은 헬레니즘이란 말을 두 가지 뜻으로 사용한다. 한 가지는 헬레니즘이 알렉산더 대왕과 그 후계자들이 동방민족들에게 가져다 준 문화, 사회, 그리고 생활방식을 뜻한다. 그 문화는 헬레니즘이다. 왜냐하면 그 언어가 희랍인들의 것이요, 그 문학이 희랍인들의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희랍인들의 것이며, 그 사회적 엘리트들이 희랍인들이요, 그 가장 특유한 사회적 제도 즉 폴리스가 희랍인들의 것이었기 때문이다. 헬레니즘은 정복자에 의해서 이송된 생활양식이고, 그것은 유대인들과 모든 동방민들에게 하나의 큰 도전이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희랍인들에 대한 경배와 희랍인들의 관행인 헬레니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에 대한 경배와 유대적인 관행인 유다이즘에 대한 반대말(antonym)이다. 이러한 인식과 어법(usage)은 마카비문서 1, 2에

담겨져 있는 안티오쿠스의 박해와 마카베우스 형제들의 봉기에 대한 서술에서 비롯된 것이다.

더 나아가 코헨은 헬레니즘 유다이즘(Hellenistic Judaism)과 팔레스타인적 유다이즘(Palestinian Judaism)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이러한 헬레니즘에 대한 인식은 팔레스타인적 유다이즘에 대한 반대어로서의 헬레니즘 유다이즘에 대한 인식을 가져왔다. 이 견해에 의하면 헬레니즘 유대인들이란 디아스포라에 살고, 희랍어를 말하고 글을 희랍어로 쓰고, 그들의 종교를 헬레니즘 세계에서 도입된 사상과 관행으로 물들게 한 유대인들이다. 이에 반해 팔레스타인의 유대인들은 그들의 모국에서 살며, 히브리어와 아람어를 말하고 글을 이들 언어로 쓰고, 그들의 종교의 엄격성을 그대로 유지하고 외적 전염(foreign contagion)으로부터 그것을 순수하게 지키기 위해 투쟁한 사람들이다. 이러한 인식은 팔레스타인의 정통적(orthodox)이고 율법주의적(legalistic)인 유대인들과 대조적으로 세련되고 세계시민적(즉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는 의미에서) 유대인을 대표하는 다소의 바울이란 인물과 초기기독교에서 히브리인들과 헬라파 사람들(Hellenists) 사람들 사이의 대립을 말하는 사도행전 6:1에 의해서 유래한다.

여기서 코헨은 팔레스타인의 유대인들을 헬라적 유대인들 즉 디아스포



서승원 박사
바이블아카데미 원장

라의 유대인들과 날카롭게 대립시키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는 여기서 그 자신의 견해를 표현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그는 자신의 견해를 다음과 같이 적고 있다:

헬레니즘 시대의 모든 유다이즘은, 디아스포라와 이스라엘의 땅의 그것들을 포함하여, 헬라화 되었다(were Hellenized). 다시 말해 고대 세계의 문화를 구성하는 요소들이었다. 유다이즘의 어떤 면들은 다른 면들보다 더 헬라화 되었으나 어떤 것도 고립된 섬이 아니었다. 팔레스타인이 유다이즘의 순수한 형태를 보존한 반면에 디아스포라는 변질되었거나 혼합된 형태의 유다이즘의 분향(the home of adulterated or diluted forms of Judaism)이었다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이다.

코헨이 그의 책 <마카비 형제들로부터 미슈나에 이르기까지>를 출판한 때는 1987년이다. 2001년에 발표한 “예기치 않은 곳에서의 헬레니즘”(Hellenism in Unexpected Places)이

란 제목의 논문에서 그는 헬레니즘의 영향을 받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쿰란공동체, 유대전쟁을 주도한 자들, 그리고 랍비들까지도 그 영향에서 자유롭지 못했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

팔레스타인의 유대인들과 디아스포라의 유대인들의 차이에 대해서 행켄은 말한다:

원래 아람어를 말한 팔레스타인과 바벨론의 디아스포라에 살던 유대인들과는 대조적으로 헬라적 유대인들과 유대인 크리스천들은 (그 말의 실제적 그리고 원래의 의미에서) 그 모국어가 희랍어인 사람들을 말한다. 이들의 모국어의 관점에서 누가는 사도행전 6:1에서 헬라파 사람들과 히브리인들을 구분하고 있다. 헬라파 사람들의 모국어는 희랍어이고 히브리인들의 모국어는 아람어이다. 그러나 우리는 이 두 그룹의 사람들을 성지의 메트로폴리스인 바로 예루살렘에서 만나게 되는데, 그래서 일반적 구분과는 사뭇 다르다. 예수님 당시 희랍어는 약 삼 백년 이상 쓰여져 왔고 그 배후에는 길고도 다양한 역사적 자리하고 있다는 사실이 쉽게 잊혀지곤 한다.

삼백년은 결코 짧은 세월이 아니다. 그리고 그 기간 동안에 일어난 변화가 미미하였으리라고 상정하기 힘들다. 문제는 그 변화에 대한 정확한 평가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데 있다. 이 점에 대해서 스톤(Michael Edward Stone)은 다음과 같이 적고 있다:

이 모든 연구들의 누적된 결과는

그레코-로망(Graeco-Roman) 시대에 팔레스타인에 살았던 유대인들에게 미친 헬레니즘의 영향에 대한 문제를 제기해 왔다. 그러한 영향은 더 이상 과소평가 되어질 수 없다. 다른 한편으로 디아스포라에서 일어났던 것과 같은 헬라화(Hellenization)에 대한 뚜렷한 증거는 아직 나타나지 않았다. 그에 대한 증거는 나타나지 않았지만 그 가능성은 남아있다. 분명한 것은 희랍어와 희랍문화의 요소들의 침투가 상당하였으리라는 것이다.

이어서 스톤은 유대 본토와 디아스포라의 관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적고 있다:

이스라엘 내에서의 유대인들의 공동체와 디아스포라에 있어서의 공동체들의 관계에 대한 평가를 내리려 할 때 이러한 상황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물론 디아스포라의 모든 공동체들이 예루살렘과 동일한 관계를 유지하지는 못했을 것이다. 많은 공동체들에 대해서 우리가 아는 바는 극히 빈약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계들이 꽤 긴밀하였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많은 증거들이 있다. 많은 디아스포라 공동체들은 당시 예루살렘에 회당이나 또는 유사한 기관(centers)들을 소유하고 있었다. 더욱이 주요 절기 때에 이루어지는 성지순례(pilgrimage)를 통하여 이스라엘의 먼 지방에서뿐만 아니라 디아스포라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여들었다.

<계속>

<3단계 영어> Three-Level English Education(28)

English Beginning Level (초급영어 28회)

What do you want to have now?
당신은 무엇을 지금 갖길 원하나요?
I want to have my own car.
나는 내 차를 갖길 원합니다.
When do you want to buy it?
언제 그것을 사시렵니까?
When I have money, I will buy it.
돈이 있을 때 사려고 합니다.

Where do you live now?
지금 어디에서 사시니까?
I live in Los Angeles.
로스앤젤레스에 삽니다.
How do you go to work?
어떻게 일하러 가시나요?



배효식 교수
미국침례신학교(ABSW)

I take the bus to work.
버스를 타고 일하러 갑니다.
Where is your office?
사무실은 어디에 있나요?
It's in Santa Monica.
산타모니카에 있습니다.

English Intermediate Level (중급영어 28회)

Humans give life to their children.
Only God's Spirit can change you into a child of God. Don't be surprised when I say that you must be born again from above.
Only God's Spirit gives new life. The Spirit is like the wind that blows whenever it wants to. You can hear the wind, but you don't know where it comes from or where it is going.

인간은 그들의 자녀들에게 생명을 준다. 오직 하나님의 영만이 당신을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시킬 수 있다.

“당신이 위로부터 다시 태어나야만 한다”고 내가 말할 때 놀라지 마라. 오직 하나님의 영만이 새 생명을 주신다. 영은 바람과 같아서 불고 싶을 때 분다. 당신은 바람 소리는 들을 수 있지만 그 바람이 어디에서 오고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한다.

English High Level (고급영어 28회)

A relaxed and disciplined approach in education can help children and young people learn morals and ethics through Scriptures quickly. The goal of spiritual growth for a person is to become like Jesus Christ.

Comenius believed in four kinds of schools:
(1)The school of Mother's Knee (2) The Vernacular School- Learning one's Mother Tongue (3)The Latin School (4)The School of University and Travel.

교육에 있어서 편안하고 훈련된 접근은 어린이들과 젊은이들이 빨리 성서를 통해 도덕과 윤리를 배우게 할 수 있다. 한 인간의 영적 성장의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처럼 되는 것이다. 코메니우스는 네 종류의 학교가 있다 믿었다. (1)어머니 무릎 학교 (2)모국어 학교 (3)라틴어 학교 (4)대학과 여행
-코메니우스 기록 중

여드름, 성공률 99%

효과 없을시 100% 환불

몸속의 원인을 다스리고
피부의 내면과 외면을
동시에 치료합니다.

첫상담 무료!



경산 한의과병원 원장 류재규
KYUNG SAN ACUPUNCTURE CLINIC | 경산 한의과대학 교수

Tel: 213.380.0853
3030 W. Olympic Blvd., Suite 202-203(삼호관광 물 2층) LA, CA 90006

북새통

책으로 통하는 새로운 세상



신간추천

빵만으로는 살 수 없다

이여령 | 열림원 | 337쪽

이 책은 이여령 초대 문화부 장관이 펴낸, 텍스트로서의 성경 읽기의 새로운 독법을 제시하는 역저이다. 성경 읽는 즐거움을 전하기 위해 저자는 성경에 등장하는 상징적인 아이콘들을 키워드 삼아서 문화사적 맥락과 컨텍스트를 추적해 나간다. 문학작품처럼 이야기를 구성하는 요소, 플롯 등을 하나하나 풀어서 해석한다.



약한 나로 강하게

김양원 | 두란노 | 248쪽

어릴 적 소아마비로 장애를 갖게 된 저자가 미래에 대한 절망감을 극복하고 장애인을 섬기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고 일생 동안 장애인들과 함께 동고동락해 온 삶의 여정을 담았다. 장애인에 대한 편견과 거부감 등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하나님께 부르짖음으로써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사역의 지경을 넓혀 온 이야기를 소개한다.



새 사람

존 스토트/정지영 | 아바서원 | 168쪽

이 책은 복음주의권에서 가장 권위있는 말씀 집회인 케직사경회에서 로마서 5-8장을 본문으로 그리스도인의 삶에 관해 설교했던 존 스토트 신부의 강해집이다. 이 책에서 스토트는 새 사람이 된 그리스도인이 받을 위대한 특권들, 그 풍성한 유업에 관한 소망의 메시지를 담대히 선포한다.



예수님을 알고 싶어요

글 크리스티나 구딩스/그림 켈리스/유진실 | 홍성사 | 148쪽

“예수님은 누구세요?”, “예수님은 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나요?” 예수님의 탄생과 하신 일, 죽으심과 부활까지 예수님의 생애를 한눈에 보여 주는 그림책. 친근감 있는 삽화는 당시 이야기의 배경을 상상하며 성경 이야기에 자연스럽게 빠져들게 하며, 본문에 있는 ‘나도 성경 박사’는 성경의 핵심 내용을 알기 쉽게 설명해 준다.



화제의 신간

조이헬로십교회 박광철 목사 묵상집 “말씀의 향기” 출간

이메일 통해 성도들과 나뉘은 묵상 묶어 출간

남가주 조이헬로십교회 박광철 목사의 묵상집 “말씀의 향기”가 책으로 출간됐다. 신간 “말씀의 향기”는 박 목사가 그동안 매일 이메일을 통해 성도들과 나뉘은 말씀 묵상을 1년 분으로 묶었다. 박광철 목사는 “그동안 묵상해 온 많은 글 가운데, 우리 삶에서 주님의 향기를 드러낼 수 있도록 격려하고, 진정한 크리스천의 삶이 무엇인지 인도할 수 있는 글들을 엄선해 묵상집으로 엮었다”며 “묵상집은 매일 아침 큐티와 함께 사용하면 좋은 글들이고, 우리 일상의 이야기기도 많이 담고 있어 전도용으로든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소개했다. 문예춘추사에서 출간된 “말씀의 향

기”는 현재 한국 서점을 통해 구매할 수 있다. 박광철 목사는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재학시절 조이선교회를 통해 예수님을 영접하고 목회자로 소명을 받아 서울신학교와 풀러신학교에서 수학했다. 이후 서울신대학에서 5년 동안 교수로 재직하다 1993년 동양선교교회에 3대 목사로 부임해 이민 목회를 시작했다. 이후 1998년 8월 동양선교교회를 사임하고, 11월에 자택에서 이상은 사모와 두 아들과 함께 조이헬로십교회를 개척했다. 박 목사는 ‘가정에 힘이 있어야 이민교회가 산다’는 철학으로 가정 사역에 관심을 쏟고 있으며, 아내 이상은 사모

와 함께 ‘행복한 가정생활 세미나’의 강사로 많은 가정을 변화시키고 있다. 또 미주 각 지역에서 세미나를 통해 상처받은 목회자 가정을 치유하는 데에 힘쓰고 있다. 박광철 목사는 상당 경험을 토대로 성도들이 겪게 되는 신앙적인 어려움, 궁핍증 등에 답하는 상담서나 잔잔한 감동을 전해주는 책들을 집필해 왔으며, “부끄러운 A학점보다 정직한 B학점이 낫다”와 같은 삶의 지혜를 담은 서적들로 많은 이들에게 공감을 얻었다. 더불어 사도행전 강해 시리즈를 통해 바른 신학과 성경 교육을 향한 열정을 드러내기도 했다. 김 브라이언 기자



조이헬로십교회 박광철 목사.

세종 뇌보감 골드

“치매예방, 뇌졸중예방”
“기억력을 개선합니다”

“추억도 기억이 없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세종바이오텍 SEJONGBIOTECH, INC.

세종 송보감

“춤추는 당뇨를 잡아라”
“막힌 혈관을 뚫어라”

www.sejongbiotech.us

세종 요로청보감

“요실금, 오줌소태 개선”
“전립선건강에 탁월한 효능”

진짜 발효삼? 고려 발효삼

“면역력 증진, 기력향상”
“캡슐로 만든 발효홍삼”

허락하신 자연으로 인간을 생각합니다. 213-383-8899
www.sejongbiotech.us 621 S. Virgil Ave #270 LA CA 90005(미주북음방송국2층)

초스피드 다이어트

1주에 7파운드~25파운드

- 초강력 정력제 + 원형탈모 대머리
- 치질: 항문 문제로 하혈이나 통증으로 수술해야 하는 증상
- 자궁물혹이나 자궁근종: 하혈이나 통증으로 수술해야 되는 분

구연산 판매합니다.

배빼는 속변약 몸 전체 부종 빠지는 약

\$50 한달분

미용침

3대째 가업으로 이어온 영선한의원

영선한의원

Young Sun Acupuncture Clinic & Herb

Tel: 213.380.7800 213.924.8189

LA MEDICAL CENTER 3663 W. 6th St., #308, Los Angeles, CA 90020 (6가와 아트모아)
영업시간: 월~금, 10시 ~ 5시 / 토 10시 ~ 2시

충돌하는 세계관

이슬람 · 인본주의 · 공산주의 뉴에이지 · 포스트모던의 ‘도전’에 ‘응전’

“물러서지 말고 기독교 세계관으로 살아가라”



데이빗 A. 노에벨 | 꿈을 이루는 사람들 608쪽

데이빗 A. 노에벨(David A. Noebel)의 <충돌하는 세계관(Understanding the Times)>은, 기독교 세계관을 현 시대에 가장 강력한 영향을 미치는 여러 세계관들과 비교한다. '세계관 교과서'로 불리는 이 책에서 기독교와 비교되는 사상은 이슬람교, 세속적 인본주의, 마르크스-레닌주의, 뉴에이지, 포스트모던주의 등 다섯 가지이다.

방대한 분량을 자랑하지만, 책의 구조는 비교적 간단하다. 기독교와 위 다섯 가지 세계관이 구체적인 학문 분야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 파악하는 것이다. 대상이 되는 학문은 신학을 비롯해, 철학, 윤리학, 생물학, 심리학, 사회학, 법학, 정치학, 경제학, 역사학 등 총 10개이다. 저자에 따르면 이 10개 학문 분야는 "성경적 기독교 관점에서 하나님과 그분의 창조적이고 구원하는 질서의 다양한 면모를 반영한다."

저자는 이에 앞서 '세계관(world-view)이란 무엇인가? 왜 세계관을 공부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에 답하고 있다. 근본적으로 세계관은 "우리가 세계와 그 안에 있는 우리의 위치를 바라보는 방식"이고, "우리가 왜 여기 존재하는가? 삶의 의미와 목적은 무엇인가? 옳은 것과 틀린 것에 차이가 있는가? 신은 존재하는가? 인간이란 그저 고등하게 진화된 짐승일 뿐인가?" 등의 질문에 해답을 제공한다. 결국 우리의 세계관은 "삶의 모든 면모에서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고 반응하는지를 결정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 세계관이라는 개념은 하나님을, 세계를, 또한 하나님과 자연과 당신의 관계를 이해하는 것을 돕는 뼈대(framework)나 지도를 제공하는 어떤 이념·믿음·신념 혹은 가치를 말한다. 여기서 위 10개 학문이 선택된 이유가 나오는데, 제대로 된 '세계관'이라면 저 학문 분야들에 관하여 분명하고 특정한 관점을 내포하고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저자는 이를 통해 세계관을 명확히 표현하고자 하는데, 이는 모든 생각과 관념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고후 10:5)' 하라는 바울의 훈계에 기반을 두고 있다.

	기독교	이슬람교	세속적 인본주의	마르크스·레닌주의	뉴에이지	포스트모던주의
근 거	성경	코란, 하디스, 수나	인본주의 선언 1-3	마르크스, 엥겔스, 레닌 등	맥레인, 스펡글러, 초프라 등	니체, 푸코, 데리다, 로티
신 학	신론(삼위일체론)	유신론(일신론)	무신론	무신론	범신론	무신론
철 학	초자연주의(신앙의 이성)	초자연주의(신앙의 이성)	자연주의	변증법적 유물론	비자연주의	반실재론
윤 리 학	절대적 도덕	절대적 도덕	상대적 도덕	노동자 도덕	상대적 도덕(카르마)	상대적 문화
생 물 학	창조론	창조론	네오다윈주의	단축진화론	우주적 진화론	단축진화론
심 리 학	심신이원론(타락)	심신이원론(타락 불안정)	일원론(자아실현)	일원론(행동주의)	높은 의식	사회적으로 구축된 자아들
사 회 학	전통적 가족, 교회, 국가	다처제, 회당, 이슬람 국가	비전통적 가족, 교회, 국가	계급 없는 사회	비전통적 가족, 교회, 국가	성적 평등주의
법 학	신법(자연법)	샤리아법	실정법	노동자법	자아법	비판법학연구
정 치 학	정의, 자유, 질서	이슬람 성전	자연주의	국가 통제주의	자아 국가	좌익주의
경 제 학	소유의 청지기 의식	소유의 청지기 의식	간섭주의	사회주의	만유의 계몽된 생산	간섭주의
역 사 학	창조, 타락, 구속	역사적 결정론	역사적 진화	역사적 유물론	진화중심 신성	역사주의

책에 등장하는 주요 세계관을 비교한 도표.

이슬람교를 비롯한 인본주의와 마르크스주의, 뉴에이지, 포스트모던 등을 공부해야 하는 이유는, 이들과 기독교 세계관의 진정한 차이를 이해한다면 이들 세계관과 기독교 세계관이 양립할 수 없음을 깨달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성경적 기독교가 비논리적·비역사적·비과학적이라 주장하는 이들 세계관들의 도전에 '응전'할 수 있다. 그렇다고 다른 세계관들의 단점에 치중할 것이 아니라, 저자는 학문적인 관점에서 이들의 특징을 잘 소개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과정을 통해 저자가 말하려는 것은 다음과 같다. "기독교 세계관만이 삶의 '모든 면을 보듬고 있는' 유일하고도 적합한 '믿음 체계'이며, 또한 그것이 개인과 가정보다 거대하지만 둘 중 어느 것도 파괴하지 않는다고 믿는다. 기독교는 삶에 의미를 부여할 뿐 아니라 역사, 과학, 지각, 진정한 세계의 경험에 있어 가장 적합하다." 책의 목적은 "포괄적인 유신론적 세계관을 입증하여, 무신론에 대한 모든 의문의 여지를 말소하는 것"이다.

책이 소개하는 각 세계관들을 학문, 특히 특정 세계관과 가장 무관해 보이는 '법학'을 예로 들어 대입해 보자. '기독교 법학'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진화하고 변화하는 기반 대신 절대적 기반으로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성품에 기반을 두고, 성경은 하나님께서 무엇을 선하다고 보시며 요구하

시는 바가 무엇인지 명확하게 말한다(미 6:8). 반면 이슬람교에는 상세한 법적 전통이 있고, 무슬림 법학자들의 목표는 법의 제정이 아니라 '피크흐', 이미 존재하는 것으로 여겨지는 법에 대한 이해나 지식이다. 하나님은 그분의 의지와 그분 자신을 드러내신다는 기독교 세계관과 달리, 이슬람교는 '알라께서 그분과 그 성품을 드러내지 않으셨으며 대신 그 법률을 드러내셨다고 말한다.

세속적 인본주의 법학은 진화론적 신념에 부합하려 자연법을 내면의 지침으로 재규정하지만, 자신들의 세계관과 법 이론 사이의 일관성을 유지하려 온전히 실정법을 받아들이는데 있어 딜레마에 빠진다. 마르크스-레닌주의 법학은 유물론적 사고와 사회의 진화에 대한 믿음에 기초하므로 법의 기초를 실정법에 의존해야 한다. 이들은 '정당(공산당)'에 도덕성과 법의 최종 권위를 부여하는데, 반대 입장을 지닌 이들에게 이것은 편파적이다. 개인의 내면성장에 집중하는 뉴에이지 법학은 그 권위가 개인 내에 있으므로, 외부의 규칙인 법학과 모순된다. 포스트모던주의 법학은 모든 정부와 범죄 수사체계에 대한 냉소를 만들어낸다.

모든 학문들에 대해 각 세계관을 비교 검토한 후, 저자는 결론을 맺는다. "모든 비기독교 세계관들도 어느 정도의 진리는 내포하고 있다. 그러나 기독교로부터 나머지 세계관을

구분짓는 명확한 선은 바로 각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믿는 바이다. 기독교는 우주의 존재와 그에 관련된 만물을 가장 잘 설명한다." 10개 학문 분야 모두에서 기독교 세계관은 경쟁자들보다 밝게 빛을 발한다는 것이다. 기독교적 경제학을 실천하는 것은 가장 많은 사람들의 번영으로 이어지고, 기독교 사회학은 실행에 옮기면 강력한 가족을 장려하고 널리 퍼진 마약사용·범죄·실업·질병을 예방한다. 기독교 법학은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인권을 보장하며, 기독교 신학과 철학은 영의 구원(마 16:26)과 정신의 개발을 가져옴과 동시에 삶에 의미를 부여한다.

이렇듯 모든 학문 분야에서 여타 세계관들보다 기독교 세계관이 '우월'하므로, 저자는 기독교인들을 향해 "물러서지 말고 기독교 세계관으로 살아가라"고 권면한다. 현재 기독교 세계관은 삶의 거의 모든 영역에서 후퇴하고 있는데, 이를 재석권해야 한다는 것이다. "기독교 사상을 옹

호하는 것은 도덕성의 부활을, 영적 관심의 회복을, 지적 정직함의 부활을, 용기의 회복을 말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독교인들이 기독교 세계관에 대한 지식을 뒷받침하며, 어린 세대들에게 이를 가르쳐야 한다는 사실이다."

저자는 한국 출간을 기념해 가진 인터뷰에서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는 주된 이유는 그들 공적 교육이 세속적·비기독교적·무신론적·인본주의적·마르크스주의적·동성애적 등의 성격을 띠고 있는데, 교회들이 이러한 상황에 개입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젊은이들은 학교에서 이질적인 이념들에 철저히 세뇌당해 스스로를 진화중심 짐승이자 사회주의자이며, 윤리적으로 중립적이고 고도로 성적이며, 낙태옹호론자·기후변화주의자·세계정부 옹호론자 등이라 믿으며 학교를 나서게 된다"고 전했다. 그는 세계관을 한 마디로 "이념의 묶음"이라고 요약했다.

이대웅 기자

이제부터 수련회는 "윌리엄 케리 국제 대학교"에서!

1539 E. Howard St. Pasadena, CA 91104. 626.398.2415
conference@wciu.edu www.wciuproperties.com/

입으면 허리문제가 해결되는 희안한 옷!!

너무 쉬운 'NB 코르셋의 원리를 알면 통증의 원인을 쉽게 고칠 수 있습니다. 'NB 코르셋'은 내 몸을 멋진 틀(NB 코르셋 김스에 넣어 자연 치유력을 이용한 과학과 지혜로 미와 건강을 만들어 내는 **걸작품**입니다.

NB 코르셋의 특징

- 24시간 입어도 갑갑하지 않고 편안함
- 입자마자 자세가 달라짐(교정)
- 입자마자 혈액순환이 달라짐(통증완화)
- 특수 공법의 인체에 완벽한 섬유+세계 특허 이중 지퍼사용 한 식약처에 의료기기로 등록된 옷.

어리교정을 위한 남성용도 있습니다.

쓰러진 토마토를 세우는 것은 **버팀목**입니다. 의사가 척추를 바르게 세울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김스를 하지 않고는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버팀목(기립근)이 약해서 제대로 지탱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NB 코르셋'은 늘어나지 않는 특수 천으로 김스를 대신하고 코르셋 속의 10개의 버팀목이 약한 근육을 대신하여 골반과 척추와 경추를 바르게 교정해줍니다.

NB 코르셋이 필요하신 분

- >> 디스크환자
좌골신경통 허리통증 척추측만증 교통사고
- >> 각종 질환
요실금 중풍 관절염 손발 저림 만성피로
- >> 체형교정
골반 틀어진 분 허리 굽은 분 O형다리 거북이목
- >> 미용효과
목주름 많은 분 얼굴비대칭 복부비만 부정교합



CHRISTIAN BUSINESS

www.chdaily.com

광고문의 213.739.0403

E-mail : chdailya@gmail.com

Classified AD



웨밀리 자동차

FAMILY AUTO SALES

새차 리스, 중고차 최고가 매입

HONDA, TOYOTA, LEXUS, BMW, MBZ
(하이급차, 고급차, 유럽차, 일제차)

Tel. 323.737.5900 Fax. 323.737.5987

933s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06

한국에서 미국으로

송금 전문

(213) 342-7776

월서+킹슬리

페인팅 (PAINTING)

마루 (Hard-wood Flooring)

정직 (HONESTY)!

(213) 923-2915

U.S. ENTERPRISE Co.

*HAND MEN AVAILABLE

법률 문제로 답답한 가슴을!!!

공인 법무사(CERTIFIED L.D.A & PARALEGAL #227 / BOND 5785BF11090)인
제가 속 시원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
변호사한테 가지기전에 "꼭 먼저" 만나 보아야 할 사람입니다!

퇴거, 파산, 이혼, 이민, 민사소송

기타 각종 법적 서류 작성

714-349-8934 (한국말) 잔 안

714-667-0728 (영어)
2112 N. MAIN ST. #290, SANTA ANA

213-487-0728 (영어)
1543 W. OLYMPIC BL. #422, LA

TONERSUM

가격 때문에 칼라 레이저 프린터 사용을 망설였던 목회자분들에게 희소식!

Only \$99.99/month
(up to 2000 pages)

프린터 판매 및 리스 삼성토너 스페셜 리스트

HP, Brother Big Sale Tel. (626) 802-5712

사고 판다 New & Used Buy & Sell

각종 조립식 선반 전문

아외용 천막
Canopy
Size (5'x5')
(10'x10') (10'x20')

상점 및 그리지용
Boltless Shelving

99센트 마켓 선반, 창고 선반 수량 불문 현찰 매입
조립식 선반을 전문으로 취급하여 딜러임을 보유 선반 전문 회사

창고용
Pallet Rack

마켓용
Gondolas

중고 선반 대량 보유

(323)855-5687 / (213)200-3050 / (213)623-5491

646 S. San Pedro St. Los Angeles, CA 90014 Downtown LA (Between 6th, 7th St)

커튼 전문

가 주 L.A. 커튼

"우드셔터, 각종 블라인드, 썬 스크린 롤러 Shade"

거리불문 무료견적




Tel. 213.447.1101

43406 Standcliff Ave. Lancaster, CA 93535

K.T. 택배 T. 213-365-8588

말도 안되는 가격 \$ 6.99 초고속 픽업 & 배송!!

전화 한통화로 당일무료 픽업!

무료포장 (박스, 충격흡수제 무료)

최저 가격!! 인터넷 사업자 대박우대

소량화물 4개중 1개 공짜!

"가격은 낮추고 서비스는 최고로 모시겠습니다"

법무사 사무소 법적 해결

소장: Kenny Oh (323)377-5702 ko7law@gmail.com

변역 (학술/사업/개인) | 법정통역, 소송/방어서류

민사법 의도/과실/사기/부당 행위 피해, 입주자분쟁(소송/방어) 접근 금지 법원 명령

계약법 작성/분석/분쟁/수금문제 가정보약식/일방이혼

1543 W. Olympic Bl. #580 LA, CA 90015 Law Office of R. Song

모/든/문/제/체/류/신/분/과/무/관

삼성이 하면 다릅니다!

귀국 · 시내 · 타주이사 · 차량운송

한국식 포장이사도 해드립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고객 사랑을 실천하겠습니다~

무료전화 877-580-2424
310-538-3333



18118 S. Broadway st #B Gardena, CA90248 www.easy2424.com

손바느질 양복의 명가 골드핑거

T.213.386.5858

직접재단/직접재봉/남녀맞춤/명품 옷수선

975 S.Vermont Ave. #102, Los Angeles, CA 90006

Master Tailor

김병호

온돌마루

UL마크 인증제품 사용
NRTL(미국 전기 안전 규격제품).

확기적인 절전제품 / 전자파제로

안방 아랫목, 거실, 기도실, 유아방, 찜질방 설치중

피코 건축자재 (피코+카탈리나) 213)256-4884

A-1 정비 오일 교환

엔진 & 미션 전문

✓트랜스미션 ✓타이밍벨트

✓브레이크 ✓투입정비

76

오일사용

10%

할인

\$23.99 *tax 6cyl.
\$18.99 *tax 4cyl.
\$28.99 *tax 8cyl.
(Carbon Filter Extra)

Tel. 323.737.2922

Trans (323)731-0613
Engine (323)752-2971

- 시온마켓 내 -

치우차우만두

• 찐빵

• 고기만두

• 김치만두

• 야채만두

• 물만두

• 군만두

교회 단체주문 환영합니다. 냉동만두 판매/배달합니다.

213.368.0922

3500 W. 6th St., Suite 100 Los Angeles, CA 90020

한방생리대 도.소매

G. Together Inc.

- 인삼생리대
- 익모초생리대
- 한방생리대

Edward Kim 김인태, CEO

213-392-2323 (Korean) 213-500-5896 (English)

3544 W. 3rd St. Los Angeles, CA 90020 / G_Together_Inc@yahoo.com

베데스다 의료 봉사센터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의료혜택을 못받는 분들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치과와 약, 한방등의 진료의 혜택을 드리고 있습니다.

문의전화 213-384-7078

편도선염, 비염, 천식, 아토피의

“편강환”



서효석 박사 연구팀이 폐의 기운을 복돋운 결과, 폐질환은 물론, 피부질환까지 그 효능이 탁월해서 전세계인에게 보급시키고자 미국에 상륙시킨 편강환!

임상실험에서 그 효능이 입증된 증상들

- 목 감기(편도선염)
- 기관지 확장
- 코감기 및 비염
- 폐기종
- 기관지염 및 천식
- 폐성유학
- 어린이의 감기 예방
- 폐렴
- 아토피성 피부염
- 기미, 여드름, 주근깨, 검버섯

치매는 치매탕으로

특징

1. 인지기능을 상승시켜주는 아세틸콜린 농도 증가
2. 굳어지는 혈액을 풀어주는 PLASMIN 활성화된다
3. 치매의 원인이 되는 B - AMLYOID를 제거
4. 뇌세포를 파괴하는 산화스트레스 제거
5. 뇌의 혈류를 촉진시켜 영양과 산소 공급 증가
6. 임상에서 보여주는 사례

임상에서 보여주는 사례

1. 치매환자에게서 뛰어난 인지능력 개선효과와 기억력이 검증되었다
2. 뇌세포를 파괴하는 B-AMLYOID를 정상수준으로 유지되었다
3. ANTI-PLASMIN의 작용으로 혈액응고를 풀어주어 정상 수치 유지됨을 보았다
4. 영증반응의 조율기능이 향상되었다
5. 혈관 확장 능력의 회복과 혈액 흐름의 증가가 현저하게 개선됨을 보았다

편강 · 실로암 한의원 원장: Oh, Pyong Un

전화 : (213)427-0036, (213)675-8524, Fax: (213)427-0195

2641 W.Olympic Bl. #202 Los Angeles, CA 90006 www.siloamherbal.com

전단지


문의 : 213-739-0403

기독교일보 광고사업팀

디자인에서 인쇄, 배포까지

그냥 한번에 해 주는데 없을까?

교회 행사용 전단지, 브로셔, 교회배너..





한국 자녀교육 강사 섭외 1순위 황경애 사모

백만 불 장학생 어머니 가장 큰 비결은 기도 그리고 인내

‘백만 불 장학생 어머니’ 황경애 사모를 만났다.

기자는 애틀랜타 토박이 황경애 사모의 둘째 최성찬 군 결혼식을 위해 애틀랜타를 찾아 잠시 짬을 내 만났다. 로렌스빌에서 20년 동안 뿌리를 내리고 살면서 키워낸 최은혜, 최성찬, 최은희 세 남매 모두 전액 장학금을 받고 우수한 대학에 입학했고, 특히 셋째인 최은희 양은 4년 장학금을 받고 하버드대에 입학했을 뿐 아니라 ‘벨게이츠 밀레니엄 장학금’ 1백만 불을 받아 미국은 물론 한국에서 큰 반향을 일으키기도 했다.

단 한 번의 화려한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것은 어쩌면 쉬운 일일 수 있다. ‘황경애 식 자녀교육’ 열풍을 이끌고 있는 <백만 불 장학생 엄마되기>, <엄마 울지마>의 주인공 황경애 사모와 세 자녀는 화려한 스포트라이트를 받았던 2009년 이후 지금,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을까?

명문사립인 보스턴대 국제정치학과를 4년 전액장학생으로 졸업한 뒤 미 정부 장학금을 받고 스페인 바르셀로나 대학에서 유학을 마친 뒤 미국 10대 법률회사에서 근무하기도 했던 장녀 최은혜 양은 현재 미 국무부에서 근무하고 있다. ‘역시 엄친딸이구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전에 황경애 사모는 “로펌을 그만두고 1년 동안 직장이 없어 많이 힘들어했다”고 했다.

“첫째는 1년 정도 직장이 없었어요. 명문대학과 하버드 로스쿨 졸업, 10대 로펌 근무, 백악관 국토안보국 근무 경력도 있으니 스펙은 뒤집게 하나도 없는데 번번히 3차 면접에서 고배를 마시니 많이 힘들어 했죠. 떨어지고 절망스러워서 저에게 연락을 할 때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라. 네가 아무리 똑똑해도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지 않으면 못 가는 거야. 하나님께서 더 높은 자리로, 더 좋은 길로 인도하시려고 이 길은 막으시나 보다’라면서 위로하고 함께 기도했어요. 지금은 미 국무부에서 근무하고 있는데, 취업이 되고 딸 아이 스스로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라고 고백했죠.”

둘째이자 장남인 최성찬 군 역시 보스턴대 정치외교학과를 4년 장학생으로 마친 후, 3번의 도전 끝에 하버드 대학원에 진학해 꿈을 향해 한 걸음씩 전진하고 있다. 어릴 때부터

다양한 문화와 언어 적응이 빠르고, 사람 사귀는 것을 유난히 좋아해 외교관이 되겠다는 꿈을 꾀 온 최 군은 춤을 유난히도 좋아하는 ‘잘 노는 청년’이다. 이번 결혼식 때도 리셉션을 새벽 3시까지 할 정도였다고 귀띔했다. 누나나 동생처럼 공부하지 않아도 곧잘 A를 받아오는 것을 보고 “너는 천재성이 있다”는 말로 늘 격려해 주던 엄마의 말대로 결국은 하버드 대학원에 가게 됐다고 스스로 놀라곤 한다고 전했다.

“공부는 둘째가 가장 안 했어요. 춤은 밤새 춰도 지치지 않을 정도로 좋아했지요. 하고 싶은 걸 마음껏 해보라고 한국 JYP에 데려가서 오디션도 보게 했는데, 결국은 자신의 꿈이 무엇인지 스스로 찾고, 그 꿈을 찾으니 공부하더라고요. 전 둘째 아이보고 늘 ‘넌 참 천재성이 있다. 공부를 안 해도 성적이 나오는 걸 보라’면서 격려해줬어요. 당연히 자기가 천재가 아닌 걸 알지만, 엄마의 말에 ‘정말 그런가?’ 반신반의 하면서도 결국 하버드 대학원에 들어갔죠. ‘엄마가 늘 나에게 천재라고 해서 그러지 결국엔 천재가 된 것 같아’라고 해요. 아이들 안에 무한한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걸 보고 기다려 주고 가능성을 개발해 주는 게 부모의 역할인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최은희 양은 하버드대를 우등으로 졸업하고 6개월 동안 클락스톤 난민촌에 가서 봉사한 뒤, 한국 교육봉사단원으로 한국에서 저소득층, 다문화 가정, 탈북자 자녀 등 교육기회가 상대적으로 적은 아이들을 무보수로 가르치고 있다. 자신이 장학금을 받아 공부한 양질의 교육을 사회에 환원한 뒤 대학원에 진학한다는 야무진 계획대로 전진하는 중이다.

자녀들이 ‘탄탄대로’만 걷게 하고 싶은 것이 부모의 마음. 하지만 황경애 사모는 자녀들이 겪는 실패와 고난이 감사하다고 했다.

첫째 최은혜 양이 번번이 취업에 실패해 낙심할 때 늘 하던 위로의 말은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라’는 것이었다. 그 과정을 지나면서 은혜 양은 더 하나님 앞에 깊어지고 간절해지고 겸손해 졌다. 무엇보다 하나님 없이는, 엄마의 기도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걸 깨달았다는 고백도 더해졌다. 둘째 최성찬 군은 위계양으로 죽음 직전까지 갔다 기적같이 살아나기도 했다. 셋째

최은희 양 역시 한국에서 SAT 강의 를 하면 매달 수백 만원씩 벌 수 있다는 제안을 단칼에 거절할 수 있었던 것은 자신에게 주어진 기회와 혜택이 스스로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것이기 때문이라는 단단한 내면이 갖춰져 있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아이들이 고민하고 선택하고 걸어가는 그 길 뒤에서 늘 묵묵히 기도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간구하는 엄마 황경애 사모의 눈물의 기도 덕분이다.

그렇다면 그녀가 생각하는 자녀교육의 핵심은 무엇인지 물었다.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스스로의 잠재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기다려 주는 인내심이 중요하죠. 또 한 가지 엄마가 자신의 인생을 행복하게 살아야 해요. 간혹 제가 혼자 아이 셋 키우면서 뒷바라지 하느라고 희생만 했을 거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신데, 전 제가 하고 싶은 건 다 했어요. 새로운 영화가 나오면 그날 가서 아이들과 영화보고, 뮤지컬, 발레, 오케스트라 공연도 좋은 건 다 보러 다녔어요. 낮에는 일한다고 청바지에 티셔츠 차림으로 있다가도 저녁에 공연이 있으면 근사하게 짝 차려 입고 셋을 데리고 박스 극장도 가고요. 셋 모두 교회에서 하는 단기선교를 보냈고, 20대에 세계 일주를 모두 보내줬어요. 힘들었죠. 돈도 많이 들고요. 하지만 아

이들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왕처럼 교육을 받아야 한다는 게 제 철학이었어요. 밥은 굶어도 시간을 넓혀 주고,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인생을 즐기고 배울 수 있는 데는 투자를 아끼지 않았습니니다.”

황경애 사모는 세 자녀 모두로부터 “엄마처럼 살고 싶다”, “엄마처럼 아이들을 기르고 싶다”는 인정을 받았다. 풀타임 일을 하고 밤에는 시간을 아껴 집안일과 자녀들의 숙제와 공부를 보냈고, 아이들이 참여하는 학교행사에는 빠진 적이 없다. 첫째와 둘째가 같은 고등학교를 다닐 때는 거의 매일 제집 드나들 듯 학교를 다녔고, 교장선생님부터 학생들까지 그녀를 모르는 사람이 없었을 정도였다.

“어릴 때부터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기도를 해 줬어요. 아침에 학교 갈 때도 문 앞에서 축복해서 보냈고요. 성경은 하루에 한 절만이라도 꾸준히 읽게 했죠. 교회와 학교 활동에는 거의 다 참여하게 했어요. 그렇다고 세상의 유혹이 없어지는 건 아니지만 빠질 기회가 많이 줄었지요. 사춘기에는 누구나 다 그렇듯 많이 힘들었지만 후회는 없습니다. 최고로 해 주지는 못했지만 최선을 다했고 목숨을 걸고 아이들을 키웠어요. 아이들도 최선을 다한 엄마를 알고 인정해 줬어요.”

자녀들이 장성한 뒤 황경애 사모의 일은 더욱 많아졌다. ‘황경애식 교육 열풍’이 부는 한국뿐 아니라 동남아

시아, 러시아, 몽골, 뉴질랜드, 호주, 아프리카 등 전세계를 다니면서 현지인들을 대상으로 자녀교육 세미나를 인도하고 있다. 이슬람 국가든 공산국가든 언어, 인종, 문화를 뛰어 넘어 ‘엄마’라는 공통분모가 있기 때문에 쉽게 마음의 문을 열고 자신의 말에 귀를 기울인다고 한다.

마지막으로 미국 이민사회에서 고군분투하며 자녀들을 키우는 엄마들에게 조언을 부탁했다.

“학교 행사에 빠지지 말고 참석하세요. 영어 못해도 가서 앉아있더라도 하면 아무래도 선생님들이 조금이라도 더 관심을 갖게 돼요. 공교육 과정을 성실하게 따라가고 마치지만 하면 주(State)안에 있는 대학은 무조건 가는 게 공교육 시스템이예요. 거기서 조금 더 잘하면 좋은 대학, 뛰어나면 아이비리그에 갈 수 있어요. 또 교회 활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하세요. 그리고 엄마도 엄마의 인생을 만들어야 돼요. 취미 생활이 있어야 하고 자신을 위해 장미꽃 한 다발은 즐길 수 있어야 해요. 전 시를 썼어요. 그래서 시집도 몇 권 냈고요. 엄마의 감수성이 마르지 않아야 아이들에게도 퍼줄 수 있어요. 그리고 임신을 할 계획이라면 꼭 3일 금식기도 하고 뱃속에서부터 기도와 찬송을 많이 들려주세요. 그럼 정말 다른 아이가 나옵니다(웃음).”

박현희 기자



황경애 사모와 세 자녀. 왼쪽부터 최은혜, 최은희 양, 황경애 사모, 최성찬 군.

척추 전문 새로운 한방병원

비 수술 척추 디스크치료 척추 한방 병원

특진안내

- ▶ 디스크 치료 후에도 계속 통증으로 고생하시는 분
- ▶ 팔이 뻣기고 저리며 통증이 있거나 감각이 없으신 분
- ▶ 목을 돌리기 힘들고 통증이 있으며 손가락에 감각이 없으신 분
- ▶ 어깨 통증으로 팔을 들어 올리기가 힘든 분
- ▶ 잠을 자고 난 후 갑자기 목을 움직이지 못하며 통증이 심하신 분
- ▶ 갑자기 허리를 움직이지 못할 정도로 통증이 심하신 분
- ▶ 지긋지긋한 허리통증과 만성 디스크로 뼈뺏어진 척추
- ▶ 엉치 및 다리가 뻣기고 저리며 통증이 있으신 분
- ▶ 물건을 들다가 뼈긋하여 허리가 아픈 분
- ▶ 그 외 척추로 인한 모든 질병 걱정 닦!

진료과목

- 침구과
- 한방 소·아과
- 한방 내과
- 한방 신경정신과
- 한방 산부인과

비 수술 척추 추나 치료

척추 교정으로 **척추질환**과 **척추 통증 치료 예방**이 가능합니다.

원장 장재수
40년 경력 척추 자세교정 전문가

T. 213)219-2739, 323)737-3789

3513 W. Olympic Blvd #102, Los Angeles, CA 90019

그레이스미션대학교

(Grace Mission University, GMU)

전문인 선교사(BAM)가 되고 싶으십니까?
선교학을 공부하시고 싶으십니까?
선교사가 되는 길을 찾으십니까?

그레이스미션대학교(GMU)가 도와드립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선교사명을 가진 귀한 분들을 모십니다.
 GMU의 선교학 석사 과정은 TRACS의 인가를 받은 정식 학위입니다.
 이제는 비즈니스를 통하여 선교를 하는 Business As Mission의 시대입니다.

선교학 석사 (MAICS) 과정 신설!!

2014년 1월 30일 개강(신입생 모집중)

선교학 석사과정 입학 안내 (Master of Arts Intercultural Studies)

www.gm.edu

성경 신학(Biblical Theology) : 15 Unit Hours (5과목)

-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경개론 (Intro. To the Bible) - 신약학과정 (New Testament Courses) 중 택1 - 구약학과정 (Old Testament Courses) 중 택1 - 조직신학과정 (Systematic Theology Courses) 중 택2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복음서 (Gospels), 사도행전과 바울서신 (Acts & Pauline Epistles), 일반서신(General Epistles) 모세오경 (The Pentateuch), 역사서/지혜서(Historical Books & Wisdom Lit.) 조직신학 I (Systematic Theology I), 조직신학 II (Systematic Theology II), 조직신학 III (Systematic Theology III) |
|---|---|

실천신학 (Practical Theology & Integration) : 18 Unit Hours (6과목)

- 선교학 (Mission Theology)
 - BAM 신학적배경 (Theological Foundation of BAM)
 - 통전적 선교전망 (Holistic Mission Perspective)
 - 선교역사와 BAM (Mission History & BAM)
 - 졸업세미나 (Integrative Exit Seminar)
 - 실천신학 (Practical Theology) 중 택1
- 셀/교회개척 (Cell & Church Planting), 리더십과 행정 (Leadership & Administration), 다문화 목회 (Cross-cultural Ministry)

경영학 분야 (Business Professional Studies) : 15 Unit Hours (5과목)

- 회계 (Accounting) - 기획 (Planning) - 마케팅 (Marketing) - 관리 (Management)
- 회사 설립 (Founding of Business) 또는 정보기술 (Information Technology)



입학안내

그레이스미션대학교 (Grace Mission University, GMU)

Tel : 714-525-0088 Fax : 714-525-0089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E-mail : gmu@gm.edu